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1. 주 의
2. 경 고

제2장 시정요구

제1장 자 체 심 의

1. 주 의

안 건 번 호 : 2002자심1

언 론 사 : 주식회사 내일신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5
대표이사 최 영 희

주 문 : (주)내일신문사가 발행한 내일신문 2002년 2월 14일자 3면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 태세』, 『민주, 임창열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내일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기사제목을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처리한 것은 특정 정당·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눈길끄는 광역선거 - 경기도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

민주, 임창열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

남동우 기자 baywo@nail.com

설 연휴를 지나면서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욱 분주해졌다. 상향식 공천·국민참여 경선 등 이전의 선거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여선을 치러야 하는 데다 본선까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제 고문의 본거지인데다, 서울을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유권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손학규 의원이 독주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면서 '대세론'의 덕을 보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출마의사를 내비쳤던 이재창 의원측도 최근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상수 의원도 원내 총무 경선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손 의원은 주대 형식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학규 의원의 한 측근은 "경기지사 선거는 이인제 대 손학규의 싸움"이라며 "모든 언론사의 여론

조사가 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의 4월 전당대회에서 이인제 고문이 후보가 되는 경우를 전제한 얘기가기는 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손 의원측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뚜렷한 주자군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김영환 의원이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당적이 없는 임창열 현직자로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임창열 자사측은 민주당 대선주자군들을 대부분 만나,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인제 고문만이 "김영환 의원의 경쟁력을 고려해 보지"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연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주자군 중 임창열 자사가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자군 중의 한경원 남궁 석 의원은 '유대식 제이브'로 상처를 입어 이미 낙마직전인 상태다.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

설 연휴를 지나면서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욱 분주해졌다. 상향식 공천·국민참여 경선 등 이전의 선거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여선을 치러야 하는 데다 본선까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제 고문의 본거지인데다, 서울을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유권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손학규 의원이 독주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

해 큰 차이로 앞서면서 '대세론'의 덕을 보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이재창 의원측도 최근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상수 의원도 원내 총무 경선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손의원은 추대형식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학규 의원의 한 측근은 "경기지사 선거는 이인제 대 손학규의 싸움"이라며 "모든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의 4월 전당대회에서

이인제 고문이 후보가 되는 경우를 전제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손의원측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뚜렷한 주자군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김영환 의원이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당적이 없는 임창열 현 지사도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임창열 지사측은 민주당 대선주자군들을 대부분 만나,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인제 고문만이 "김영환 의원의 경쟁력을 고려해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주자군 중 임창열 지사가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자군 중의 한명인 남궁석 의원은 '윤태식 게이트'로 상처를 입어 이미 낙마직전인 상태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

언 론 사 : 주식회사 동양일보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1070

대표이사 조 철 호

주 문 : (주)동양일보사가 발행한 동양일보 2002년 2월 15일자 14면 『권오창 현 군수·한나라 공천자 '2파전' 예상』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동양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예산군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에 유리한 제목을 선정하고 그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 활약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권오창 현 군수·한나라 공천자 '2파전' 예상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무소속의 4파전이 예상되는 예산군 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인물평을 심층 분석해 본다.

6·13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는 권오창(68·예산군수), 김인태(70·전 충남도의원), 박제상(60·전 예산군부군수), 박종순(66·전 예산군수), 이준호(64·한나라당 예산지구당부위

원장), 이한식(65·충남도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박제상, 박종순, 이한식, 이준호씨 등 4명은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권오창 현 군수는 자민련, 김인태씨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권주자인 이 총재의 후광을 업은 한나라당과 현직 군수를 보



■자기 예산군수 누가 되나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무소속의 4파전이 예상되는 예산군 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인물평을 심층 분석해 본다.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무소속의 4파전이 예상되는 예산군 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인물평을 심층 분석해 본다.

6·13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는 권오창(68·예산군수), 김인태(70·전 충남도의원), 박제상(60·전 예산군부군수), 박종순(66·전 예산군수), 이준호(64·한나라당 예산지구당부위원장), 이한식(65·충남도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박제상, 박종순, 이한식, 이준호씨 등 4명은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권오창 현 군수는 자민련, 김인태씨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권주자인 이 총재의 후광을 얻은 한나라당과 현직군수를 보유한 자민련의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자민련과 민주당소속의 경우는 출마예상자가 1명씩이나 한나라당은 4명이 공천경쟁을 벌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련 공천이 확실시 되고있는 권오창 현 예산군수는 2선에 걸친 당선에 힘입어 법정 3선에 도전장을 내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회생과 함께 남북부 우회도로를 비롯 진행중인 현안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55회 도민체전유치로 10~20년을 앞당긴 군정을 펼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박제상·박종순·이한식 등 한나라 4명 공천경쟁 관심 민주 김인태는 표 다지기

권 군수는 관선과 민선을 통틀어 7여년을 예산군수로 활동하면서 지금껏 군내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계층에 닿아는 지지기반을 토대로 표를 쌓고 있다.

자질과 능력면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있는 박종순씨는 관선군수를 역임하고 민선 1~2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경험으로 비춰볼때 이번 3기에서는 예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3년여 동안 민생을 돌아봤다는 박제상씨도 30여년의 오랜 공직경험에서 배어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과 리더십을 내세워 예산군부군수 재임중 닦아놓은 지지표와 한나라당 예산지구당 수석상임부위원장로서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는 참석으로 표발 일구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이한식씨는 도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정치적 소신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다며 자민련에서 당적을 옮겨 지난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김해 김씨 종가로부터 추천을 받고있는 김인태씨는 고려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95년 도의원 당선시 많은 표를 얻은 데 힘입어 나름대로 지지기반을 닦아놓고 현재 (사)화랑보존회장으로 있으면서 혈연, 학연, 지연을 토대로 표다지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엄태룡(전 군의회의장), 안세용 군농협지부장의 출마설은 시기상조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조용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군민의 여론에 촉각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예산·이종선 기자〉

권오창 현 군수·한나라 공천자

'2 파전' 예상

마신 경험으로 비춰볼때 이번 3기에서는 예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3년여 동안 민생을 돌아봤다는 박제상씨도 30여년의 오랜 공직경험에서 배어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내세워 예산군부군수 재임중 닦아놓은 지지표와 한나라당 예산지구당 수석상임부위원장으로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는 참석으로 표발 일구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이한식씨는 도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정치적 소신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다며 자민련에서 당적을 옮겨 지난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김해 김씨 종가로부터 추천을 받고있는 김인태씨는 고려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95년 도의원 당선시 많은 표를 얻은 데 힘입어 나름대로 지지기반을 닦아놓고 현재 (사)화랑보존회장으로 있으면서 혈연, 학연, 지연을 토대로 표다지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엄태룡(전 군의회의장), 안세용 군농협지부장의 출마설은 시기상조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조용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군민의 여론에 촉각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유한 자민련의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자민련과 민주당소속의 경우는 출마예상자가 1명씩이나 한나라당은 4명이 공천경쟁을 벌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련 공천이 확실시 되고 있는 권오창 현 예산군수는 2선에 걸친 당선에 힘입어 법정 3선에 도전장을 내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회생과 함께 남북부 우회도로를 비롯 진행중인 현

안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55회 도민체전유치로 10~20년을 앞당긴 군정을 펼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권 군수는 관선과 민선을 통틀어 7여년을 예산군수로 활동하면서 지금껏 군내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계층에 닿아는 지지기반을 토대로 표를 쌓고 있다.

자질과 능력면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박종순씨는 관선군수를 역임하고 민선 1~2기에 출마해 고배를

안 건 번 호 : 2002자심3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대표이사 박 병 동

주

문 : (주)대구일보사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년 2월 16일자 3면 『박군수 “누구든 덤벼”』, 『정군수 경쟁자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대구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군위·의성군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예정자가 특정당에 입당함으로써 당선이 예상된다는 그의 치적을 부각 보도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경쟁자가 없다며 그의 프로필과 PR성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박군수 “누구든 덤벼”

군위 군수

군위군수 선거전은 박영언 군수의 재선이 벌써부터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98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박영언 군수(64)가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천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당과 함께 이미 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으로부터 공천내락을 받은 상태이고, 그동안 이뤄놓은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 안길포장, 문화복지 사업 등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박 군수의 높은 벽을 의식해선지 한나라당에서 박 군수와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선 인사는 지금으로선 없다.

다만 5개 읍·면 조합장을 지낸 김휘찬 군위농협조합장(53)이 무

박영언군수 재선 분위기
한나라 공천 거의 굳어져

김휘찬씨 무소속 저울질

소속 출마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박 군수는 현직의 프리미엄에다 한나라당 공천권까지 거의 거머쥔 상태라 지역에선 “그의 재선은 파는 당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한다.

박 군수는 4년동안 군정을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면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본선에서의 필승을 장담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제2석골(팔공산) 터널 조성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하고 있다. 4년간 이른 지역발전 토대위에 한단계 업



김휘찬씨

박영언씨

사진은 가나다순

그레이턴 군위발전을 위해 나가겠다며 ‘본선’의 표발을 누리고 있다.

김 조합장은 15년간 조합일을 하면서 터득한 농경정신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세로 지역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박 군수가 워낙 강력한 당인지 출마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자꾸만 미루고 있다.

이밖에 당선된 군위군수를 지낸 홍순홍씨와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출마경험이 있는 구문장씨의 이름도 군수선거 출마경쟁에 오를내리고 있으나 출마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군위=배철환·강승탁기자

단체장

“鄭군수 경쟁자 없다”

의성 군수

의성은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정해진 상태이며, 다른 당과 무소속 등에서 움직이는 인사는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너무 싱거운 형국이다. 정해결 군수 얘기가 많아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북도내에서 가장 단합한 경쟁 지역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고, 경우에 따라선 한나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에는 3명 가량이 군수출마를 위해 움직일 것 같았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이다. 그랬으나 군위·의성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이 지난달 초 정해결 군수를 한나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때문에 양공천을 기대하던 안

리더십·추진력 높은 평가

한나라외엔 거론인사 전무
“무투표 당선 가능성” 여론

순덕 경북도의원(62) 등은 도의원 선거 공천장을 달보라고 주저않아 버렸다.

정해결(63) 현 의성군수는 여권이 이렇게 되자 3선을 향해 신명나게 출달을 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물론 공천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되자 지역민들은 조금은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적정 수의 경쟁자들이 나와 지역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일해 보겠다고 외치면 구경이라든 해볼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자 아쉬움을 표현한다.

정 군수는 지난 98년 무소속으로

당선돼 2선의 연임을 하는 중인데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또한 대과였어 군정을 수행해 왔다는 소리도 들린다.

의성군 육산면이 고령정 장 군수는 의성초등학교와 의성중학교를 거쳐 경북도, 계곡대, 대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교육자였다. 의성중·고교 교사 등을 거쳐 의성고 교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재자들이 많다. 재자들은 정 군수의 한탄할 것 없다.

한편 김복규 전 군수는 출마가능성이 향토안 절제됐으나 스스로 출마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해결씨

의성=김훈용기자
kimhw@idaegu.com

(주요 기사내용)

박군수 “누구든 덤벼”

군위군수 선거전은 박영언 군수의 재선이 벌써부터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98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박영언 군수(64)가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천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당과 함께 이미 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으로부터 공천내락을 받은 상태이고, 그동안 이뤄놓은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 안길포장, 문화복지사업 등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박 군수의 높은 벽을 의식해선지 한나라당에서 박 군수와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선 인사는 지금으로선 없다.

다만 5개 읍·면 조합장을 지낸 김휘찬 군위농협조합장(53)이 무소속 출마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박 군수는 현직의 프리미엄에다 한나라당 공천권까지 거의 거머쥔 상태라 지역에선 “그의 재선은 파는 당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한다.

박 군수는 4년동안 군정을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면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본선에서의 필승을 장담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제2석굴(팔공산) 터널 조성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하고 있다. 4년간 이룬 지역발전 토대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위발전을 꾀해 나가겠다는 ‘본선’의 표발을 누비고 있다. (후략)

“鄭군수 경쟁자 없다”

의성은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정해진 상태이며, 다른 당과 무소속 등에서 움직이는 인사는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너무 싱거운 형국이다. 정해걸 군수 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북도내에서 가장 단출한 경쟁지역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고, 경우에 따라선 한나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에는 3명 가량이 군수출마를 위해 움직일 것 같았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이다. 그랬으나 군위·의성지구당위원장인 정창화 의원이 지난달 초 정해걸 군수를 한나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때문에 당공천을 기대하던 안순덕 경북도의원(62) 등은 도의원 선거 공천장을 담보받고 주저앉아 버렸다.

정해걸(63) 현 의성군수는 여건이 이렇게 되자 3선을 향해 신명

나게 출달을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2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물론 공천을 보장받았다.

(중략)

정 군수는 지난 95년 무소속으로 당선돼 2선의 연임을 하는 중인데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또한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해 왔다는 소리도 듣는다.

의성군 옥산면이 고향인 정 군수는 의성초등학교와 의성중학교를 거쳐 경북고, 계명대, 대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교육자였다. 의성중·고교 교사 등을 거쳐 의성고 교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많다. 제자들은 정 군수의 탄탄한 기반이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4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매일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표이사 김 원 식

주 문 : (주)충청매일사가 발행한 충청매일 2002년 2월 18일자 15면 『김무한 자민련도지부 사무처장 부여군수 출마 “풍요로운 부여건설 위해 주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충청매일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여군수) 출마예정자인 특정인의 출마변을 다루면서 찬사일변도의 주관적인 표현을 인용보도하고, 그에 대한 주변인물의 지나치게 호의적인 견해를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0조(인터뷰기사) 각 위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풍요로운 부여 건설위해 주력”



자민련 김무환 충남도지부 사무처장은 김종필 총재를 가장 지근에서 모신 핵심 참모로서 JP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한몸에 얻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87년 김 총재가 정치를 재기하기 위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할 당시 창당멤버로서 정당의 꽃으로 불리우는 초대 조직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김 총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JP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유달리 고향사랑이 남다른 김 사무처장은 99년 부여발전을 이룩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군수직에 도전했으나 한번 고배를 마신 쓰러진 경험도 갖고 있다. 그 후 김 사무처장은 자신의 의지를 접지않고 현재까지 뜨거운 열정과 특유의 독심으로 부여를 열심히 관리하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장을 내게 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부여는 우리당 김종필 총재께서 태어나신 고향으로써 그 어느 지역보다도 깊은 의미가 깃들여 있는 자민련의 성지인만큼 이번만은 내가 직접 나서 기필코 백제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풍요와 번영이 함께 넘치는 활기찬 부여건설에 매진 하면서 일신을 다 바치겠다”고 확실하게 출마 변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 길만이 김종필 총재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열악한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젊은 정치인으로 항상 군민열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가가 되기 위해 24시간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여에서 대전 사무실까지 매일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출근을 하는 김 사무처장의 기상시간은 오전 4시반 정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김 사무처장은 기상하

자마자 먼저 조간신문을 30여분간 훑어본후 오전 6시부터 부여지역을 한 번 순회한 후 대전으로 향하면서 그의 공식 일정은 시작된다. 사무처의 한 국장은 “김사무처장과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분같이 무뎠회전이 빠른 사람은 처음봤으며 아랫사람들 한테도 참으로 자상하며 그런 분이 행정관리 책임자가 되면 정말로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김 총재의 비서관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부여 지구당 사무국장을 거쳐 운정장학회 초대 사무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실장(1급), 김대중 대통령 정권인수위 통일, 외교, 안보분과 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김학원 의원(부여)의 보좌역도 겸임하고 있다. /서울=김주완 기자

기하기 위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할 당시 창당멤버로서 정당의 꽃으로 불리우는 초대 조직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김 총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JP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유달리 고향사랑이 남다른 김 사무처장은 95년 부여발전을 이룩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군수직에 도전했으나 한번 고배를 마신 쓰러진 경험도 갖고 있다. 그 후 김 사무처장은 자

신민 주력한 부여건설에 매진하면서 일신을 다 바치겠다”고 확실하게 출마 변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 길만이 김종필 총재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열악한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젊은 정치인으로 항상 군민열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가가 되기 위해 24시간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여에서 대전 사무실까지 매일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출근을 하는 김 사무처장의 기상시간은 오전 4시반 정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김 사무처장은 기상하자마자 먼저 조간신문을 30여분간 본후 오전 6시부터 부여지역을 한 번 순회한 후 대전으로 향하면서 그의 공식 일정은 시작된다. 사무처의 한 국장은 “김사무처장과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분같이 무뎠회전이 빠른 사람은 처음봤으며 아랫사람들 한테도 참으로 자상하며 그런 분이 행정관리 책임자가 되면 정말로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김 총재의 비서관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부여 지구당 사무국장을 거쳐 운정장학회 초대 사무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실장(1급), 김대중 대통령 정권인수위 통일, 외교, 안보분과 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김학원 의원(부여)의 보좌역도 겸임하고 있다.

(주요 기사내용)

“풍요로운 부여 건설위해 주력”

자민련 김무환 충남도지부 사무처장은 김종필 총재를 가장 지근에서 모신 핵심 참모로서 JP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한몸에 얻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87년 김 총재가 정치를 재

신의 의지를 접지않고 현재까지 뜨거운 열정과 특유의 독심으로 부여를 열심히 관리하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장을 내게 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부여는 우리당 김종필 총재께서 태어나신 고향으로써 그 어느 지역보다도 깊은 의미가 깃들여 있는 자민련의 성지인만큼 이번만은 내가 직접 나서 기필코 백제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풍요와 번영이 함

안 건 번 호 : 2002자심8

언 론 사 :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조 갑 제

주 문 : (주)월간조선사가 발행한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302~303면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 여론조사 1위 질주 임창렬 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월간조선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결국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제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지지율을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동 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全國취재 16개市長·道知事 선거에 누가 뛰고 있나? 경기도

한나라당 孫鶴圭 의원 여론조사 1위 질주 林昌烈 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



金 成 炫 新聞日報 政治部 기자 (dapaw@chosun.com)

경기지사 지리는 「야생」으로 불려

경기지사 지리는 「야생」으로 불려 (대권)에 비해 「야생」으로 불리고 있다.

1997년 대선 때 李承熙(이영희)씨가 경기지사직을 맡았을 때를 주자로 하여 발표한 뒤부터 열거된 말이다. 유권자가 60%에 달하는 데다, 지방직을 떠나 전국에 분포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보편적 의미의 대선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 후보는 아직 안출이 가려지지 않았다.

4년 전에서 보였던 孫鶴圭(손학규) 의원 지사와 孫鶴圭(孫鶴圭) 의원의 「권대결전」, 「젊은 후보 출현전」, 「이영희 후보 출현전」, 「김기현 후보 출현전」

오가 돌아와 나오지만, 당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없다.

선거는 孫鶴圭에 집중되었다. 지난 4년 10월 11일에 이르는 58%의 지지율, 경기도 수송·서비스업 선진 1위 단일 등을 기록으로 대세후보(CEO)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 여론은 10월 11일에서 10월 11일의 투표로 나타났다.

조명 안희정(조명)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명인 김경이 나와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이는 선거 이전에 몇 가지 孫鶴圭(孫鶴圭)를 반대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이 확정되어 있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孫鶴圭)에 입찰을 받아야 한다. 지난 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준 金大(김대중) 대통령이 당 중재자를 사퇴한 상황에서 민주당

당 중재를 받고 떠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孫鶴圭 의원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경기도의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율 23.5%, 둘째로 경기지역 지방신문 두 곳이 열린 조사에서 각각 16.7%와 16.7%로 지지율 1위를 달렸다.

1995년 지방선거 때에 이후 다시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이재관) 의원과 박종철(박종철) 의원과 당시 당장장자였던 安熙宇(안상우) 의원이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李承熙(이영희)는 1995년 과당부터 1998년 노진사에 오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경기도 행정에 몸담아 왔다. 「孫鶴圭」경기지사 입찰작은 지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복수 가능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윤태식」게이트, 연루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려졌다.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文惠植(문혜식) 의원은 「말을 탄 기수(후보)」도 중요하지만 「말(당)」이 더 중요하다. 「말(당)」이 없다면 지역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력에서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경기도지부장을 사퇴한 李在昌(이재관) 의원과 박종철(박종철) 의원과 당시 당장장자였던 安熙宇(안상우) 의원이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李承熙(이영희)는 1995년 과당부터 1998년 노진사에 오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경기도 행정에 몸담아 왔다. 「孫鶴圭」경기지사 입찰작은 지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복수 가능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윤태식」게이트, 연루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려졌다.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文惠植(문혜식) 의원은 「말을 탄 기수(후보)」도 중요하지만 「말(당)」이 더 중요하다. 「말(당)」이 없다면 지역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력에서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경기도지부장을 사퇴한 李在昌(이재관) 의원과 박종철(박종철) 의원과 당시 당장장자였던 安熙宇(안상우) 의원이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李承熙(이영희)는 1995년 과당부터 1998년 노진사에 오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경기도 행정에 몸담아 왔다. 「孫鶴圭」경기지사 입찰작은 지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복수 가능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302~303면〉

2002. 3. 15. 13:30

출판사: 월간조선 (주) (주)월간조선 (주)월간조선 (주)월간조선 2002. 3. 15. 13:30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孫鶴圭 의원 여론조사 1위 질주

林昌烈 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

경기지사 자리는 「小權」으로 불러

경기지사 자리는 대통령의 「大權(대권)」에 빗대 「小權(소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7년 大權때 李仁濟(이인제) 씨가 경기지사직을 발판으로 대선 주자로 일약 발돋움한 뒤부터 생겨난 말이다. 유권자가 650만명에 이르는데다, 지방색을 떠나 전국의 민심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있어,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6개월 뒤의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개에 가리워져 있다.

지난 선거에서 싸웠던 林昌烈(임창렬) 현 지사와 한나라당 孫鶴圭(손학규) 의원의 「再대결설」, 「젊은 후보 공천설」, 「이한동 총리 전격 출마설」 등 갖가지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지만,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없다.

林지사는 再출마에 적극적이다. 지난 4년 간 101억 달러에 이르는 外資(외자) 유치, 경기도 수출·무역수지 전국 1위 달성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CEO 도지사論」을 펴고 있다. 林(임)지사는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道民(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경기은행 퇴출 로비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林지사는 선거 이전에 몇 가지 難關(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야 하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復黨(복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선거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을 홀로 떠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孫鶴圭 의원은 현재 로선 가장 강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경기도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율 23.5%. 올해 초 경기지역 지방신문 두 곳이 벌인 조사에서 각각 39.7%와 16.7%로 지지율 1위를 달렸다.

199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다시 지역구인 경기도 光明(광명)을 탈환한 그는 최근 주요 도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捲土重來(권토중래)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 안에 별다른 공천 경합자가 없다.

서강大 교수 출신 3選의원인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력과 「가장 신사적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참신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孫의원 측은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金榮煥 前 과기부 장관이 적극적

민주당에서는 金榮煥(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南宮哲(남궁석)·安東善(안동선) 의원의 출마 준비설이 나도는 가운데, 文喜相(문희상) 의원, 南宮鎭(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다.

金榮煥 전 장관은 가장 적극적인 자세다.

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경기지역 주요 지역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퇴임 후에는 「세대교체」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金 전 장관측은 『1월 29일 개각으로 장관직을 잘 마쳤으니, 조만간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宮哲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윤태식 게이트」 연루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文喜相(문희상) 의원은 『말을 탄 기수(후보)도 중요하지만 말(당)이 더 중요하다』며 『黨命이 떨어진다면 거역할 수는 없겠지만, 경선제에서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경기도지부장을 사퇴한 李在昌(이재창) 의원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安商守(안상수) 의원이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李 의원은 『1965년 과장부터 1990년 도지사에 오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경기도 행정에 몸담아 왔다』며 『官選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安의원 측은 『부정부패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설 연휴인 2월 10일 전후로 의사 표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9

언 론 사 :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조 갑 제

주 문 : (주)월간조선사가 발행한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304~305면 『김진선 지사,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월간조선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강원도지사) 입후보예정자들의 치적, 프로필 등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발언을 제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全國취재 16개市長 道知事 선거에 누가 뛰고 있나? 강원도

金振玠 지사,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
李燮燮·崔棟圭·咸鍾漢·金榮珍씨 등 거명



金 昌 祐 金 昌 祐 金 昌 祐 金 昌 祐

金振玠 지사는 한나라당 공천이 관건

전국취재 16개市長 道知事 선거에 누가 뛰고 있나? 강원도 지사, 금지사 아래서 政務 부지사들 지명(金振玠 지사 61·민주당)이 출마 의사가 밝았다. 이밖에 金振玠 지사(55·민주당)의 출마의사를 咸鍾漢(咸鍾漢 55·한나라당), 金榮珍(金榮珍 62) 등 강원도지사, 李燮燮(李燮燮 55) 등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거명되었다.

金振玠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振玠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咸鍾漢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榮珍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前 부지사는 2001년 11월 강원도청을 방문한 후, 金振玠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金振玠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咸鍾漢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榮珍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振玠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咸鍾漢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咸鍾漢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榮珍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咸鍾漢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金振玠 지사는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고도 많은 민생의 문제를 풀고 있다. 강원도지사 金振玠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02년 3월 15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304~305면〉

2002년 3월 15일

(주요 기사내용)

金振玠 지사,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

李燮燮·崔棟圭·咸鍾漢·金榮珍씨 등 거명
金振玠 現 지사는 한나라당 공천이 관건

현직인 金振玠(김진선·한나라당·56) 지사, 金지사 아래서 政務 부지사를 지낸 李燮燮(이돈섭·63·민주당)씨가 출마 의사를 밝혔

다. 이밖에 崔棟圭(최동규·54) 중소기업청장, 咸鍾漢(함종한·58·한나라당), 金榮珍(김영진·62) 前 강원지사, 孫殷男(손은남·59) 前 농업경제 대표이사 등이 거론된다.

金지사는 『누가 나서도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꼬집을 만한 큰 失政(실정)이 없는데다 최근 강원도가 全北(전북)을 제치고 2010년 동계 올림픽 主 개최지로 선정돼 도민들의 지지가 더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自薦(자천)이든 他薦(타천)이든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嶺東(영동)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金(김)지사측에게는 고무적인 점이다.

東海태생으로 북평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金지사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 嶺西(영서)지역에서는 영서 출신 후보들에게 열세 내지 대등세를 보였으나, 嶺東에서 물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쉽게 승리했다.

金(김)지사는 강원도 전역을 서울에서 두 시간대의 교통권으로 구축하고, 수도권의 100여 개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한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꼽고 있다. 金지사의 고민은 한나라당의 공천 여부다.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李燮燮 前 부지사는 30여 년 간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束草(속초)시장, 原州(원주) 麟蹄(인제)군수, 東海(동해) 출장소장 등 강원도에서 일해 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원도를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략)

崔棟圭 중소기업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崔청장은 『金지사한테 발탁되어 강원도 정부 부지사를 지낸 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金지사에 대해 말을 물겠느냐』고 말했다. (중략)

咸鍾漢·孫殷男·金榮珍씨는 비교적 소극적

咸鍾漢 前 지사 역시 他薦으로 거론되는 경우다. 咸 전 지사는

『金지사는 1994년 내가 강원도지사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했고,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라며 『金지사의 신변에 큰 하자가 없는데 내가 술가락을 뺏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중략)

孫殷男씨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을 거치면서 春川(춘천)과 鐵原(철원) 등 嶺西지역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민주당 강원도지부가 후보로 고려하고 있으나,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략)

자민련의 「히든카드」로 손꼽히는 金榮珍 전 지사는 『내가 자민련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느냐. 그만큼 도와줬으면 된 것 아니냐』며 출마에 흥미가 없다고 했다. 1987년 강원도지사를 지낸 金씨는 자민련은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강원도지사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는 자민련 간판을 달고나온 崔棟圭씨를 민선 지사로 뽑을 만큼 한때 親자민련 분위기가 강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11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사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14

대표이사 임 덕 치

주 문 : (주)경북매일사가 발행한 경북매일 2002년 2월 25일자 5면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 당선’』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청도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자가 무투표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청 도 군 수

청도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4명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무투표당선도 기대되고 있다.

한나라당공천을 희망하고 청도군수 출마예정자들은 김상순(62·현군수, 박명길(60) 전의성부군수, 박영욱(62·전 구미시 보사회장경국장, 장경곤(57) 경주시부시장 등으로 모두 30년 안팎의 공

지난 99년 의성부군수를 마지막으로 33년간 공직을 마친 뒤 곧바로 고향에 돌아와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한나라당 경북도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을 내세워 한나라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면 경선 등의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정당하지 못할 경우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박영욱 전 구미시 보사회장경국장은 공직생활 35년중 30년을 청도군에 근무






김 상 순
장 경 곤
박 병 길
박 영 욱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당선'

직생활을 경험한 행정관료출신들이다. 청도군수의 선거의 관심거리는 김군수의 3선고지 점령여부. 98년 지방선거 당시 김군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단독 출마, 선거전이 싱겁게 끝났던 것과는 달리 벌써부터 음해성, 비방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민선 초대, 2대에 이어 3선고지 점령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김군수는 "청도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군수론을 밝히고 "군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칠 아는 행정전문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군수는 민선초대 군수로 취임하면서부터 낙후된 청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직접 발로 뛰면서 7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확보, 도로망 확충 등 엄청난 발전을 시켜 '청도군 지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되는 등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서면 출신, 박병길 출마예정자는 무해 군 전체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공천경합에 뛰어 들었다. 밀성박씨 문중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지연, 학연, 청도정신문화 등 40여개의 자생단체를 풀 가동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경선, 청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한나라당 공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경우 공천은 자신 있다"며 "공천이 되지 않을 경우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도를 출신의 장경곤 경주시부시장은 현직에 몸담고 있어 평소 고향에 대한 뿌리깊은 인맥관리가 있었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부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 청도를 찾아와 인맥을 구성하는 등 꾸준한 불밀황동을 펼치고 있다. 장부시장은 절대 총학생회장출신으로 안동군수, 영천, 경산부시장, 경북도 문화체육국장 등을 거친 행정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 당선'

청도군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

군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단독출마, 선거전이 싱겁게 끝났던 것과는 달리 벌써부터 음해성, 비방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민선 초대, 2대에 이어 3선고지

는 4명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무투표당선도 기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청도군수 출마 예상자들은 김상순(62) 현군수, 박명길(60) 전 의성부군수, 박영욱(62) 전 구미시 보사회장경국장, 장경곤(57) 경주시부시장 등으로 모두 30년 안팎의 공직생활을 경험한 행정관료 출신들이다.

청도군수의 선거의 관심거리는 김군수의 3선고지 점령여부. 9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점령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김군수는 "청도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군수론을 밝히고 "군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칠 아는 행정전문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군수는 민선초대 군수로 취임하면서부터 낙후된 청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직접 발로 뛰면서 7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확보, 도로망 확충 등 엄청난 발전을 시켜 '청도군 지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되는 등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서면 출신, 박병길 출마예정자는 지난 99년 의성부군수를 마지막으로 33년간 공직을 마친 뒤 곧바로 고향에 돌아와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한나라당 경북도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을 내세워 한나라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면 경선 등의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정당하지 못할 경우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박영욱 전 구미시 보사회장경국장은 공직생활 35년중 30년을 청도군에 근무해 군 전체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공천경합에 뛰어 들었다. 밀성박씨 문중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지연, 학연, 청도정신문화 등 40여

개의 자생단체를 풀 가동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경산, 청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한나라당 공천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경우 공천은 자신있다”며 “공천이 되지 않을 경우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을 밝히고 있다. 청도를 출신의 장경곤 경주부시장은 현직에 몸담고 있어 평소 고향에 대한 뿌리깊은 인맥관리가 없었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

청도를 찾아와 인맥을 구성하는 등 꾸준한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부시장은 경대 총학생회장출신으로 안동군수, 영천, 경산부시장, 경북도 문화체육국장 등을 거친 행정력을 장점으로 세우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12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사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14

대표이사 임 덕 치

주 문 : (주)경북매일사가 발행한 경북매일 2002년 2월 25일자 5면 『박진규 현 시장 ‘독주채비’ 갖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영천시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가 단독으로 특정당 공천을 희망함에 따라 선거가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전망이다. 그의 독주를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기초단체장 누가뛰나 <2>

경북중부지역

영 천 시 장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 박진규 현 시장이 공천잡음을 일시에 해소. 23일 단독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영천시장 선거는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지난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규재(60) 한나라당 부위원장, 김준영씨(62) 신협 이사장, 이대원씨(60) 전영천경찰서장 권영성(60) 상공회의소 회장 김준호 등이 자천 타천으로 한나라당공천 희망자

위한 행장을 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영씨는 지난번 시장보궐선거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 2번이나 시장출마에서 낙선을 위한 설욕전을 염두에




박 진 규

김 준 영

박진규 현시장 ‘독주채비’ 갖춰

로 떠올랐으나 현재는 사실상 공천이 무산된 상태.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진규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시민을

두고 있다. 김이사장은 2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 확보해놓은 사조직 등을 활용, 당공천과 관계없이 출마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마예정자	나이	학 력	주 요 경 력	직 업	소속당
박 진 규	63	경북대농대	민선2기시장	현역 시장	한나라당
김 준 영	61	영남대법대	신협이사장	중앙교통대표	한나라당

(주요 기사내용)

박진규 현 시장 ‘독주채비’ 갖춰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 박진규 현 시장이 공천잡음을 일시에 해소. 23일 단독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함에 따라 영천시장 선거는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지난 선거에서 낙선의 고

배를 마신 조규재(60) 한나라당 부
위원장, 김준영씨(62 신탁이사장),
이대원씨(60) 전 영천경찰서장, 권
영성(60)상공회의소 회장, 김준호
등이 자천 타천으로 한나라당 공천
희망자로 떠올랐으나 현재는 사실
상 공천이 무산된 상태.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진규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영씨는 지난번 시장보궐선거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 2번

이나 시장출마에서 낙선을 한 설
욕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이사
장은 2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 확
보해놓은 사조직 등을 활용, 당공
천과 관계없이 출마의 뜻을 포기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건번호 : 2002자심13

언론사 : 주식회사 서울동부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2동 427-3

대표이사 안영근

주 문 : (주)서울동부신문사가 발행한 서울동부신문 2002년 2월 22일자 3면 『여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서울동부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당 여성 출마예정자들(10명)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치적, 출마의 변을 사진과 함께 의도적으로 부각 보도(10명 중 8명에 대한 언급은 전무함)한 것은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위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여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17일, 민주당사에서 여성출마희망자들 “30%이상 여성공천” 요구



이금라 시의원

이 조약의 당사국
으로 참가하였을 것은
중간 과정에서 드물
지만 미국은 조약에

이금라 시의원 “토론통한 시민참여확대” 밝혀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Abstract

(주요 기사내용)

“여성, 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새천년 민주당 여성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 10여 명은 17일 여의
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단체장 공천 과정에
서 여성 30% 할당 조항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한국 정치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도 현재 2백32개 기초단체장에는 여성 단체장이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단체장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한 이금라 시의원(50·강동2)은 강동구청장출마를 선언하면서 “강동구 소각장 대책활동을 이끌면서 주민운동

의 리더로서 서울시 청소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일념과 여성정치진출 20%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며 “두번의 임기동안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가졌던 이념을 현실정치와 행정에 적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정치와 행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두번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청소·소비자문제·도시 계획·행정조직 개편 등 시정전반

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 구청장으로서 공익을 기준으로 이슈에 대한 토론과 상호 이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정치에 앞장서서 자치구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길연 서울송파강동 뉴스 사장 겸 편집인도 송파구청장에 민주당 공천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18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북매일사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14

대표이사 임 덕 치

주 문 : (주)경북매일사가 발행한 경북매일 2002년 3월 5일자 4면 『‘한나라 공천=당선’ 이번 없을 듯』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릉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을 통해 특정당 공천자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 공천=당선’ 이번 없을 듯

민선1, 2대 당시 3명의 후보가 나

선 것과는 달리 정종태 울릉군수의 구속으로 무주공산이 되자 자천 타천후보가 5명에 이르는 등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다.

경북도내 지역정서상 ‘한나라당

공천=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운열(60) 전 군위부군수, 정경호(67) 울릉농협장, 최영기(65) 전 울릉수협장, 이종국(52) 전 민정당연락소

울릉군수

민선 12대 울릉군의 후보가 나선 첫 해는 참다. 정동태울릉군수의 구속으로 무주공산이 되자 자민태울릉보가 5명여 이복은 중 후보자가 탄생하고 있다.

경로모나 지역정서상 '한나라'를 긍정 수용한 이 유력 노리고 있다. 현재 여론 되고 있던 후보자들은 울릉별(별) 전 군 의회군수, 오창근(58), 울릉농협장, 황영 가(60) 전 울릉수협장, 이종국(52) 전 민정

이종국 씨 · 최영기 씨 · 오창근 씨 · 정경호 씨 · 정윤열 씨 ·

선거에서 결집을 이루려면 '이복의 조력'과 지지자들의 표지를 업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경북도 관광, 총무과장, 군위부 군수를 역임한 정윤열씨는 관광울릉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당선돼야 한다고, 울릉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표 발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부군수와 동서지간이 라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서로 양보 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최종출마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전 민정당 연락소장 출신인 이종 국씨는 젊은 나이와 정당생활시절 조직을 재정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조직을 중심으로 표 발을 다지고 있다. 21세기 울릉도발 전전략연구회를 설립 가동에 들어 갔다.

공직기간 대부분의 생활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보낸 오창근씨는 농 민들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 을 바탕으로 표다지기에 나서고 있 다.

울릉군수 후보자들의 생활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보낸 오창근씨는 농민들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 공천=당선’ 이면 없을 듯

당연히 오창근과 현 울릉군수, 오창근 등 6명.

출마의사가 강하게 나돌던 한나라당 소속 박경동 도의원과 울릉군 의회의장을 지낸 최수일 의원, 이상인(60)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현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1, 2대 선거 당시 전 군수에게 도전, 낙선의 고배를 마신 최영기 전

을을 해라하는 정치가 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당선돼야 관광울릉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표 발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부군수와 동서지간이라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서로 양보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최종출마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출마예정자	나이	학 령	주요경력	직업	소속당
최영기	58	동아대정치	울릉수협장		한나라당
오창근	58	중앙대의농업경영	경남대학교농업경영		한나라당
정경호	67	장학대	국립경북농업과학장	울릉농협장	한나라당
정윤열	60	중앙대	군위부군수		한나라당
이종국	52	울릉대학교	한라산농특수연구소		한나라당

■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문경·동향연구자, 김현·최동원기자, 양봉·김두환기자

장, 오창근(58) 현 울릉군농촌지도소장 등 6명.

출마의사가 강하게 나돌던 한나라당소속 박경동 도의원과 울릉군 의회의장을 지낸 최수일 의원, 이상인(60)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현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1, 2대 선거 당시 전 군수에게 도전, 낙선의 고배를 마신 최영기 전

울릉수협장과 이상인 현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지난 선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직과 지지자들의 표심을 업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경북도 관광, 총무과장, 군위부군수를 역임한 정윤열씨는 관광울릉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당선돼야 관광울릉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중심으로 표발같이

에 분주하다.

정경호 울릉농협장은 농민들의 표를 기반으로 당선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표발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부군수와 동서지간이라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서로 양보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최종출마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전 민정당 연락소장 출신인 이종국씨는 젊은 나이와 정당생활시절 조직을 재정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조직을 중심으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21세기 울릉도발전전략연구회를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

공직기간 대부분의 생활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보낸 오창근씨는 농민들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19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성 락 오

주 문 :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2년 3월 7일자 4면, 3월 8일자 4면, 3월 11일자 5면 『6·13 지방선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영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식을 전하면서 사흘 연속 특정당에 소속한 후보예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타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野 후보 경쟁률 2~3대 1

◇...한나라당 대구북구 갑·을 지구당과 달서구 갑·을 지구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역 대구시의원들의 재출마 포기가 잇따랐다.

철곡지역인 북구 4선거구에서 이진호 철곡농협조합장이 한나라당 후보신청을 포기했고, 월배지역인 남서구 4선거구의 김용보 약사도 신청을 포기, 신인들의 등용이 가능해졌다.

시의원 선거구별 한나라당 후보 신청 경쟁률은 2~3 대 1이다. 백명희 시의원이 북구청장직 도전으로 자리를 비우는 북구 1선거구에는 장경훈 구의회 전 의장과 서돈수 구의원이 후보 신청을 했다. 북구 2선거구는 김석환 시의원에 구의원 출신의 구본향 지구당조직부

장이 도전장을 냈다. 또 북구 3선거구에는 여원기 시의원과 함께 이달희 한나라당 경북도지부 여성부장, 이재술 구의원이 후보등록했다.

달서구쪽은 갑지역인 1·2선거구는 지구당이 후보신청을 연기한 가운데 을지역인 3·4선거구의 경쟁이 드세다. 달서 3선거구는 정만식 시의원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후보신청을 해, 현역 시의원간 공천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북구청장 경선 2파전

◇...한나라당 달서구청장 후보 신청마감 결과, 황대현 현 구청장과 류광현 구의회 전 의장만 후보등록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달서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이훈 대구시운수원장은 후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북구청장 후보 신청에는 이명규 현 구청장과 백명희 대구시의회 전 부의장이 등록, 21일 대구전 시컨벤션센터에서 640명의 대의원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6·13 지방선거

이원형 의원 활발한 움직임

◇...한나라당 대구시장후보 경선에 나선 이원형 국회의원은 대구지역 각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활발한 여론수렴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정확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노회찬 대구상의 회장,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민병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파악했다.

경선불참선언 비난 논평

◇...이와상 대구서구청장이 6

서 "12일 동료의원들의 사전조율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도지사후보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라며서 이같이 말하고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실시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권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상이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지율 여부에 따른 경선방침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도내 전역 野 후보 속속 결정

◇...한나라당 상주지구당(위원장 이상배)은 6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상주시장 후보로 김군수 시장을 합의추대하는 등 경북도내 전역에서 한나라당 시장, 군수와 광역의원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날 이상배 위원과 부위원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에서 김 시장과 변영주 전 도의원, 김동진 전 대한매일경제사장 등 3명을 두고 2시간30분에 걸쳐 격론을 벌인 끝에 운영위원 39명의 찬성으로 김 시장을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추대했다.

경주 1선거구 현역의원 격돌

◇...한나라당 철곡지구당(위원장 여인기)은 6일 2차운영위에서 권준희 한나라당 철곡지구당부위원장(50)과 김주영 전 철곡농촌지도소장(60)을 각각 제 1·2선거구의 한나라당 광역의원후보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경주지구당(위원장 김일우)은 6일 3개 선거구의 도의원 공천선정협수를 마감한 결과 1선거구에는 김진록, 이상호 현 도의원이 공천을 신청, 현 의원간 공천경합을 벌이게 되었으며, 2선거구에는 이날 현 도의원과 박병훈 경주미래포럼대표가 신청했다.

[정처부 2사회부

鄭지부장, 도지사 합의추대 강력 시사

대구 북구·달서 現시의원 잇단 불출마

원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박병오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입맛에 안맞다고 경선을 거부하는 것은 두 번이나 공천해 당선시키고 현직직으로 반역준 당과 동지에게 배신행위"라며 "정전당당하게 경선마당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경선 완전 배제는 안해

◇...정창화 한나라당경북도지부 위원장은 6일 "권오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외의 경북도지사에게 크게 흠집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듭 이 도지사 합의추대방향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낮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거구에는 여원기 시의원과 함께 이달희 한나라당 경북도지부 여성부장, 이재술 구의원이 후보등록했다.

달서구쪽은 갑지역인 1·2선거구는 지구당이 후보신청을 연기한 가운데 을지역인 3·4선거구의 경쟁이 드세다. 달서 3선거구는 정만식 시의원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후보신청을 해, 현역 시의원간 공천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북구청장 경선 2파전

◇...한나라당 달서구청장 후보신청마감 결과, 황대현 현 구청장과 류광현 구의회 전 의장만 후보등록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선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달서구 북구청장을 역임한 이훈 대구시운수원장은 후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북구청장 후보 신청에는 이명규 현 구청장과 백명희 대구시의회 전 부의장이 등록, 21일 대구전 시컨벤션센터에서 640명의 대의원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이원형 의원 활발한 움직임

◇...한나라당 대구시장후보 경선에 나선 이원형 국회의원은 대구지역 각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활발한 여론수렴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정확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노회찬 대구상의 회장,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민병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파악했다. (중략)

경선 완전 배제는 안해

◇...정창화 한나라당경북도지부 위원장은 6일 "권오을 의원을 제외

<2002. 3. 7. 4면>

(주요 기사내용)

野 후보 경쟁률 2~3대 1

◇...한나라당 대구북구 갑·을 지구당과 달서구 갑·을 지구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역 대구시의원들의 재출마 포기가 잇따랐다.

철곡지역인 북구 4선거구에서 이진호 철곡농협조합장이 한나라당 후보신청을 포기했고, 월배지역인

달서구 4선거구의 김용보 약사도 신청을 포기, 신인들의 등용이 가능해졌다.

시의원 선거구별 한나라당 후보 신청 경쟁률은 2~3 대 1이다. 백명희 시의원이 북구청장직 도전으로 자리를 비우는 북구 1선거구에는 장경훈 구의회 전 의장과 서돈수 구의원이 후보 신청을 했다. 북구 2선거구는 김석환 시의원에 구의원 출신의 구본향 지구당조직부장이 도전장을 냈다. 또 북구 3선

한 나머지 15명의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에게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듭 이 도지사 합의추대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낮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담회에서 “12일 동료의원들의 사전조율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도지사후보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최 대한 배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운영위 이전에 실시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에서 권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상이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지율 여부에 따른 경선방침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도내 전역 野 후보 속속 결정

◇…한나라당 상주지구당(위원장 이상배)은 6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상주시장 후보로 김근수 시장을 합의추대하는 등 경북도내 전역에서 한나라당 시장, 군수와 광역의원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날 이상배 의원과 부위원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에서 김 시장과 변영주 전 도의원, 김동진 전 대한매일경북지사장 등 3명을 두고 2시간 30분에 걸쳐 격론을 벌인 끝에 운영위원 39명의

찬성으로 김 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했다.

경주 1선거구 현역의원 격돌

◇…한나라당 칠곡지구당(위원장 이인기)은 6일 2차운영위에서 권춘택 한나라당 칠곡지구당부위원장(59)과 김주연 전 칠곡군농촌지도소장(60)을 각각 제1·2선거구의 한나라당 광역의원후보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경주지구당(위원장 김일운)은 6일 3개 선거구의 도의원 공천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1선거구에는 김진목, 이상효 현 도의원이 공천을 신청, 현 의원간 공천경합을 벌이게 되었으며, 2선거구에는 이달 현 도의원과 박병훈 경주미래포럼대표가 신청했다.

◇…한나라당 대구북구을지구당(위원장 안택수)은 7일 오후 지역구내 한 음식점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2명의 당소속 대구시의원 후보를 결정했다.

지구당 운영위원 60명 중 5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북구 3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에 이재술 구의원(41)을, 북구 4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에 구의원 출신의 김충환 송림스포츠프라자 부사장(41)을 합의 추대했다.

한나라당 대구서구지구당(위원장 강재섭)도 이날 오후 대구호텔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소속 서구청장 후보에 윤진 전 서구의회의장을, 대구시의원 후보에 박주영 구의원과 강성호·강환 현 시의원을 추인했다.

◇…대구동구지구당(위원장 강신성일)도 이날 39명의 운영위원들이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3명을 결정했으나 이곤 시의원 후보 3명을 결정했으나 이



6.13 지방선거

곤 시의원인 절차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면서 대의원 경선을 주장해 소란이 일었다.

이런 소란 속에 운영위원들은 이날 강신성일 위원장이 제시한 추진안(동구청장 후보에 임대운 현 구청장, 시의원후보에 이덕천·정홍범·류승백 현 시의원)과 일부 운영위원이 제시한 경선안을 놓고 비민주적인 끝에 20 대 19로 추대안을 가결, 이같이 현역 위주로 당소속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결정 뒤에도 이곤 시의원은 “위원장이 민주방

식인 경선을 택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도 시의원 후보를 미리 지목해 운영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운영위원회에 미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공정하게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8일 오후 한국관 웨딩부페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수성갑지구당(위원장 김만제) 정기대회에는 한나라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참석해 200여명 대의원들의 표심잡기를 위한 열띤 연설전을 펼쳤다.

이날 지구당측은 이성수 전 대구시의회의장, 이원형 국회의원에게 5분씩 연설시간을 주되, 순서는 이들의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미리 방침을 정하는 등 신경을 썼다.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희갑 대구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대구시 방문으로 지구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치부

〈2002. 3. 8. 4면〉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대구북구을지구당(위원장 안택수)은 7일 오후 지역구내 한 음식점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2명의 당소속 대구시

의원 후보를 결정했다.

지구당 운영위원 60명 중 5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북구 3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에 이재술 구의원(41)을, 북구 4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에 구의원

출신의 김충환 송림스포츠프라자 부사장(41)을 합의 추대했다.

한나라당 대구서구지구당(위원장 강재섭)도 이날 오후 대구호텔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소속 서구청장 후보에 윤진 전 서구의회의장을, 대구시의원 후보에 박주영 구의원과 강성호·강환 현 시의원을 추인했다.

◇…대구동구지구당(위원장 강신성일)도 이날 39명의 운영위원들이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3명을 결정했으나 이곤 시의원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면서 대의원 경선을 주장해 소란이 일었다.

이런 소란 속에 운영위원들은 이날 강신성일 위원장이 제시한 추진안(동구청장 후보에 임대운 현 구청장, 시의원 후보에 이덕천·정홍범·류승백 현 시의원)과 일부 운

영위원이 제시한 경선안을 놓고 비밀투표한 끝에 20대 19로 추대안을 가결, 이같이 현역 위주로 당소속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결정 뒤에도 이곤 시의원은 "위원장이 민주방식인 경선을 택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도 시의원 후보를 미리 지목해 운영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

며, 운영위원회 미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공정하게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8일 오후 한국판 워딩부패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수성갑 지구당(위원장 김만제) 정기대회에는 한나라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참석해 200여 명 대의원들의 표심 잡기를 위한 열띤 연설전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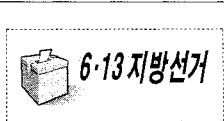
이날 지구당측은 이성수 전 대구시의회회장, 이원형 국회의원에게 5분씩 연설시간을 주되,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미리 방침을 정하는 등 신경을 썼다.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희갑 대구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대구시 방문으로 지구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대구 시장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영탁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코리아나 예식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지구당위원장에게 재선출된 뒤 인사말을 통해 출마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마하겠다"는 '공식선언'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는 대구·경북'을 '돌아오는 대구·경북'으로 만들기 위해 송두리째 몸을 던지겠다" "마지막으로 몸 던져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 말미에 "주변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데 나

갈 결심을 했으면 굳이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역유지와 원로, 언론과 협의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에 앞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표상으로 나타난 대구경제의 침체상을 열거하고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국토개발과 교통행정에 쏟은 실적을 홍보했다. 한편 지구당 당직자들은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는 박경호 현 군수가 합의추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구시의원 후보는 경쟁자가 많아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류는 박근혜 의원의 탈당이후 잇달아 열린 달성지구당의 읍·면 협의회장, 부위원장단 모임에서 확인됐다. 이들 당직자들은 후보신청자들에게 대한 심사와

공천탈락 박팔용시장 "李총재와 싸울것" 박군수 한나라 달성군수 후보 협의추대

경선여부를 결정할 지구당 운영위원으로, 이들이 박 군수를 한나라당 달성군수 후보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이번이 없는 한 달성군수 경선은 열리지 않게 됐다.

12일 신청자 접수를 마감하는 대구시의원은 1선거구(화원·다사·하빈·가창)에는 정태일 현 시의원, 권세진 지구당 사무국장, 송대준 가장면 협의회장 표명한 전 군의원, 전성배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사무국장이 신청할 움직임이다. 또 눈공·육포·현충·유가·구지의 2선거구에는 박성태 현 시의원에 서병호 군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

하다.

◇…불공정 시비로 시장후보 경선투표가 중단됐던 한나라당 김천시 지구당(위원장 임인배)이 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준현 전 경북도사회복지과장(61)을 김천시장 후보로 전격 공천했다.

이날 후보로 확정된 조씨는 "당직자들에 의해 결정됐으므로 부담은 없다"면서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가 된 만큼 시장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팔용 김천시장은 "객관적인 지지를 조사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회장 총재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회원은 9일 "불공정경선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칠곡군수 선거전은 한나라당 후보인 배상도씨와 무소속의 이상수·박중보 경북도의원, 장영백 칠곡군의원, 장세호씨의 5파전이 될 전망이다.

◇…신영국 한나라당 예천·문경시지구당위원장은 김학문 문경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무공천방정으로 한나라당 문경시장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부

는데 나갈 결심을 했으면 굳이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역유지와 원로, 언론과 협의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마선언에 앞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표상으로 나타난 대구경제의 침체상을 열거하고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국토개발과 교통행정에 쏟은 실적을 홍보했다. 한편 지구당 당직자들은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는 박경호 현 군수가 합의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구시의원 후보는 경쟁자가 많아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류는 박근혜 의원의 탈당 이후 잇달아 열린 달성지구당의 읍·면 협의회장, 부위원장단 모임에서 확인됐다. 이들 당직자들은 후보신청자들에게 대한 심사와 경선여부를 결정할 지구당 운영위원으로, 이들이 박 군수를 한나라당 달성군수 후보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이번이 없는 한 달성군수 경선은 열리지 않게 됐다.

12일 신청자 접수를 마감하는 대구시의원은 1선거구(화원·다사·

<2002. 3. 11. 5면>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대구 시장후보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영탁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코리아나 예식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지구당 정기대회에서 지구당위원장에게 재선출된 뒤 인사말을 통해 출마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마하겠다"는 '공식선언'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는 대구·경북'을 '돌아오는 대구·경북'으로 만들기 위해 송두리째 몸을 던지겠다", "마지막으로 몸 던져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 말미에 "주변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하

하빈·가창)에는 정태일 현 시의원, 권세진 지구당 사무국장, 송태준 가창면 협의회장 표명찬 전 군의원, 전성배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 사무국장이 신청할 움직임이다. 또 논공·옥포·현풍·유가·구지의 2선거구에는 박성태 현 시의원에 서병호 군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

◇…불공정 시비로 시장후보경선투표가 중단됐던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위원장 임인배)이 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준현 전 경북

도사회복지과장(61)을 김천시장 후보로 전격 공천했다.

이날 후보로 확정된 조씨는 “당직자들에 의해 결정됐으므로 부담은 없다”면서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가 된 만큼 시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팔용 김천시장은 “객관적인 지지를 조사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회창 총재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

원은 9일 “불공정경선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칠곡군수 선거전은 한나라당 후보인 배상도씨와 무소속의 이상수·박종보 경북도의원, 장영백 칠곡군의원, 장세호씨 등의 5파전이 될 전망이다.

◇…신영국 한나라당 예천-문경시지구당위원장은 김학문 문경시장 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무공천 방침으로 한나라당 문경시장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0

언 론 사 : 주식회사 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6-32

대표이사 정 복 현

주 문 : (주)수도권일보사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2년 3월 8일자 2면 『경기광역의원 선거 풍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광역·기초의원(안성시) 선거관련, 선거구별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인의 독주(무혈입성)·우위(무투표전망, 확고한 위치 선점)를 점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경기 광역의원 선거 풍향

2명의 경기도의원과 15명의 안성

시·의원을 선출하는 광역·기초의원선거에서는 그동안 일부 현직의원들에 대한 자질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선거용 공약에

식상한 대다수 유권자들의 ‘물갈이 극약처방’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2명의 경기도의원을 선출하

경기 광역의원 선거 풍향

경기 광역의원 선거는 13종 제1선거구 무혈입성, 2선거구 피말리는 소모전으로 요약되는 극한 대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선거구와 달리 2선거구에서는 모두 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경합에 나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제1선거구-김학용씨 무혈입성·제2선거구-최대 격전지 기초의원-현직의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 팽배, 물갈이 예상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김학용 한나라당
원 경기도의원



한나라당
의원



김학용 한나라당
원 경기도의원



김학용 한나라당
원 경기도의원

안성 1동	김종필 (43) 왕남철 (53)	서문연	유형열 (54) 박노환 (51)	일죽면	이동복 (51) 노병영 (45)
안성 2동	김정기 (50) 박종민 (51)	미향연	홍성기 (52) 이세환 (45)	죽산면	정진국 (56) 문용규 (55)
안성 3동	조희훈 (59) 권홍기 (65)	대희연	김성복 (57) 전관영 (48)	삼죽면	황용수 (49) 장석배 (59)
보개면	김성학 (48) 이정환 (45)	양현연	이광선 (42) 이정환 (57)	고성면	김종현 (61) 오세환 (54)
금곡면	유문 (44) 이선자 (47)	원국면	정광순 (50) (후보표만)	공도읍	이현수 (55) 최승정 (59)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제1선거구에서는 현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학용(한나라당) 현 도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 의원과 대적할만한 상대자가 없다는 평이다. (중략)

기초의원 출마예상자

제4대 기초의원 선거는 내 고장

발전을 이끌 보다 역량 있고 참신한 새 일꾼을 찾아야 한다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팽배해 집에 따라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모두 15명의 안성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안성 1동과 3동, 대덕면과 일죽면 현직 의원들의 불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 선거구에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자칫 혼탁한 금전선거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략)

안성 3동에서는 오랜 정치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장한 민주당 조희훈(63)씨가 확고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견홍기(65)씨, 이수영(40)씨 등 몇몇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재 민주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조희훈씨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후략)

안 권 번 호 : 2002자심22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80-43
대표이사 최 용 선

주 문 :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2년 3월 12일자 3면 『서울시민 정당지지도 한나라31.8%, 민주 23.6% 홍사덕 의원 무소속 출마땀 2, 3위권에 머물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서울시민대상)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당시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율이 모두 표본오차를 한계(95%신뢰수준 ±4.2포인트, 이명박29%, 김민석26%, 홍사덕23%)내에 분

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예정자가 2, 3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순위매김 한 것은 특정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서울시민 정당지지도 **한나라 31.8%, 민주 23.6%**

홍사덕의원 무소속 출마편 2, 3위권에 머물듯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사덕 의원은 2위, 3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31.8%, 민주당 23.6%에 비해 8.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0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20.9%)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20.7%)이 비슷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0.2% 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의원과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민석 의원이 출마,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한나라당 후보 이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 김 의원보다 4.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맞대결을 벌일 경우, 이 전 의원이 38.2%가 김 의원(34%)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연령별로 김 의원은 20대에서 압도적 우세(43.1% 대 27.0%), 30대에서 우세(43.6% 대 33.9%)를 보였고, 이 전 의원은 40대(43.7% 대 27.3%)와 50세 이상(50.2% 대 20.4%)에서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다.

홍사덕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대결이 벌어지고, 민주당 후보로 김민석 의원이 나설 경우, 한나라당 이 전 의원 29%, 민주당 김 의원 26.1%, 무소속 홍 의원 23% 순으로 나타났다. (후략)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 31.8%, 민주 23.6%

홍사덕 의원 무소속 출마편 2, 3위권에 머물듯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사덕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2위, 3위권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31.8%)이 민주당(23.6%)에 비해 8.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0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20.9%)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20.7%)이 비슷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0.2% 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의원과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민

안 건 번 호 : 2002자심24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신문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8-7

대표이사 박 영 철

주 문 : (주)호남신문사가 발행한 호남신문 2002년 3월 11일자 3면 『허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년청장 12일 출반기념회』, 5면 『지역차별·지방분권 소신 밝혀』, 3월

이 유 : 호남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특정인의 책자 발간사실을 연이들에 걸쳐 3개면(가십, 인물동정, 스트레이트)에 부각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許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년청장 12일 출판기념회

지역정가

선거사무소 현판식도

○...허경만 전남도지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3층 상 황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등 3선고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예정.

2010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순회교섭활동차 유럽을 방문. 10일 귀국한 허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순회활동 결과와 함께 민선 3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각오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힐 예정.
허지사는 이어 동구 금남로 1가 삼우빌딩 4층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현판식을 갖진 뒤 도지사 경선을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

/김상훈 기자 <ksanghun@hankook.com>

시민 신뢰받는 시장은

○...오는 6월 실시되는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동년 광주남구청장은 오는 12일 오후 광주동구청 옆 한국통신(KT) 3층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정동년의 광주시장론」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

정 청장은 이 책에서 “그동안 지역감정의 벽을 뚫뚫 뚫쳐 돌파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앞으로는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장의

시민의 힘을 모아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선두에 서서 망국적 지역감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조.

정 청장은 또 “광주시장은 또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몸을 던져 일하는 헌신성,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정부예산에서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찾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시장론」을 펴려.

/조재호 기자 <johcho@hankook.com>

한나라도지부 경선관심

○...최근 한나라당 목포지구당 배종덕 위원장이 조만간 있을 도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도지부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민주당 도지부의 도지부장 경선에 이어 한나라당 도지부도 도지부장 경선을 치를 지 여부에 관심.

배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도민경선제 등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전석훈 지부장이 4년 넘게 도지부장을 맡은 도지부도 이번 정기대회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지부장 경선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도지부장 출마를 강력히 시사.

그는 “그러나 이같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 도지부내 반발세력도 만만치 않아 이 것의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반드시 도지부가 지부장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이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

정동년 남구청장 「광주시장론」 책자 발간

지역 차별·지방분권 소신 밝혀



「광주시장론」은 정 청장이 지난 11일 공식선언한 출마의지를 담은 책으로, 지역 차별·지방분권 소신을 밝히는 등, 그동안 정 청장이 추진해 오던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정 청장은 “광주시장은 또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몸을 던져 일하는 헌신성,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정부예산에서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찾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시장론」을 펴려.

정 청장은 또 “광주시장은 또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몸을 던져 일하는 헌신성,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정부예산에서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찾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시장론」을 펴려.

(소제목 7면)

<2002. 3. 11. 5면>

(주요 기사내용)

許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년 청장 12일 출판기념회

(전략)

시민 신뢰받는 시장은

○...오는 6월 실시되는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동년 광주남구청장은 오는 12일 오후 광주동구청 옆 한국통신(KT) 3층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정동년의 광주시장론」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

정 청장은 이 책에서 “그동안 지역감정의 벽을 뚫뚫 뚫쳐 돌파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앞으로는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장의 시민의 힘을 모아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선두에 서서 망국적 지역감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조.

정 청장은 또 “광주시장은 또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몸을 던져 일하는 헌신성,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정부예산에서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찾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시장론」을 펴려. (후략)

<2002. 3. 11. 3면>



정동년 남구청장 '광주시장론' 출판기념회

광주시장 출마 사실상 선언

정동년 남구청장은 12일 오후 광주 KT 3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정 청장은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술자가 아닌 성실하고 참신하며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 광주시장으로 적합하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세력이 앞으로는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장이 시민의 힘을 모아서 망국적 지역감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장이 시민의 힘을 모아서 망국적 지역감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장은 벽을 깨는 자기 희생과 온 힘을 모아 실현하는 헌신성,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노무현·김근태 상임고문과 정동채·김경천 의원을 비롯해 고재유 광주시장, 이정일 서구청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김두관 경남 남해군수, 이승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재호 기자

<2002. 3. 13. 3면>

정동년 남구청장 '광주시장론'

책자 발간

지역차별·지방분권 소신 밝혀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년 남구청장이 <광주시장론>(티엠씨 간)을 펴냈다.

이 책은 1부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2부 「광주와 더불어」로 구성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강한 시장만이 정부기관의 광주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동년 남구청장 '광주시장론' 출판기념회

으며 정 청장이 보는 광주시장론이 담겨있다.

특히 정 청장과 내놓을 수 없는 5·18 민주항쟁과 광주정신, 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일들도 수록돼 있다.

또 정 청장이 일상에서 느낀 점을 수필형식으로 엮은 글들도 들어 있다.

정 청장은 이 책에서 「광주시장론」과 관련,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됐지만 여전히 「지역차별」이 엄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력한 시장론을 외치고 있다.

또 예산과 관련,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의 80%를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도 강력한 시장만이 지방정부로 공정한 예산 배분을 가져올 수

광주시장 출마 사실상 선언

정동년 광주남구청장은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KT 3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정 청장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술자가 아닌 성실하고 참신하며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 광주시장으로 적합하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세력이 앞으로는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광주시장이 시민의 힘을 모아서 망국적 지역감정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장은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온 몸을 던져 일하는 헌신성,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노무현·김근태 상임고문과 정동채·김경천 의원을 비롯해 고재유 광주시장, 이정일 서구청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김두관 경남 남해군수, 이승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5

언 론 사 : 주식회사 남해뉴스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57-2

대표이사 류진규

주 문 : (주)남해뉴스사가 발행한 남해뉴스 2002년 3월 7일자 4, 5면 『운영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이 유 : 남해뉴스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남해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당내 경선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등의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준수요건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유영위원회는 군수 도의원 후보

94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된 한나라당 군수 후보 확정과 시
기적으로 맞물리며 서로 맞바람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재 분열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조직을 어떻게 추스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군수 선거에 임하
느냐에 따라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역풍도 만
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대표되는 정현태씨는
김두관 군수가 본격 도지사 선거에
뛰어드는 4월 중순부터 함께 바람
몰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이다.

특히 하영제씨 측근들은 이에 대
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영제씨는 읍 사
거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하영제씨 측근은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현장에서 군민들만 만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
조사 여부에 대해 "하영제 측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이 조사한

설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
식을 들었다"며 "1위를 선거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정현태씨는 얼마 전 상주 정월대
보름 축제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글귀를 태우기도 했다. 이번 군수
선거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정현태 후보
의 부담감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바람몰이와 역풍이 예
상되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
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6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대표이사 박 운 흠

주 문 : (주)대구일보사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년 3월 (14, 15, 16, 18, 19, 20일)자 3면 『6·13
지방선거 마당』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대구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
식을 전하면서 연일 특정당과 그 당소속 후보예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 것은 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
(형평성), 동 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
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도의원 봉화후보 강영서씨
●...한나라당 윤진·봉화지구당
(위원장 김광원)은 13일 춘양면사

무소에서 경북도의원 봉화군 제2선
거구 후보경선을 실시해 강영서씨
(57·지구당부위원장·건설업)를
선출했다.
(중략)

여원기씨 공천탈락 불만

○...대구 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여
원기 현 시의원은 공천 탈락되는데 대
해 13일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면

6.13 지방선거마당

도의원 봉화후보 강영서씨

●...한나라당 윤진·봉화 지구당(위원장 김광원)은 13일 춘암면 사무소에서 경북도 의원 봉화군 제2선거구 후보경선을 실시해 강영서씨(57·지구당부위원장·건설업)를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강씨는 93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권영만씨는 48표를 얻는데 그쳤다.

여원기씨 공천탈락 불만

○...대구 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여원기 현 시의원은 공천 탈락된데 대해 13일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솔직히 후보 공천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여 의원은 "북을 지구당이 이달 말에 하기로 했던 후보선정을 갑자기 초로 앞당기는 등 사전에 공천내락을 한 듯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다"면서 "무소속 출마여부는 현재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원기 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인 안택수 의원이 후보 결정 후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말해 안 의원에겐 실망한 감정이 있음을

비쳤다.

시의원 남구공천 오늘 마감

○...한나라당 대구 남구지구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시의원 후보 공천신청서를 받고 있다.

13일 현재 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이신학 의원의 1선거구엔 장택진 전 구의회 의장, 김선명 구의원, 양병화 전 구의원, 박일환 전 대동은행 지점장이 접수했다. 2선거구엔 조진해 전 시의원, 서상택 전 대구시 감사과장, 황두연 금은방 대표 등이 신청서를 냈다.

한편 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하중호 현 시의원과 윤언자 씨 등도 공천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지구당은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결정한다.

달성군수 후보 오늘 결정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은 박근혜 의원의 탈당으로 지구당위원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달성군수후보와 대구시의원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 군수에는 박경호 현군수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을 지낸 이원태 씨 둘이 후보공천 신청을 했다.

시의원 1선거구에는 정태일 현 시의원, 송태준 전상대씨 등 3명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2선거구는 박성태 시의원 혼자 후보공천을 신청한 상황이다.

달성군수 후보 박경호씨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은 14일 목포 농협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경호(53·사진) 현 군수를 달성군수 후보로 결정했다.

원영위는 이원태 전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이 공천신청을 했으나 '공천신청 2개월 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박 군수를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경주시장 후보 백상승씨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운)은 14일 오전 지구당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장 후보에 백상승씨(66·전 서울시 부시장·사진)를 합의추대했다.

경북도의회 의원 1·2선거구 후보는 경선을 실시, 이상효씨(52·도의원)와 이달씨(58·도의원)를 각각 선출했다. 제3선거구 후보는 단독 공천신청한 최원병씨(55·도의원)가 됐

6.13 지방선거마당

다. 김일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52명의 위원 가운데 49명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는 백 씨를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했다. 도의회의원 1선거구에는 김진목씨와 이상효씨가 경합했고, 제2선거구에서는 이 달 씨와 박병훈 경주미래포럼 대표가 맞붙었다.

수성읍 시의원 2명 선출

●...한나라당 수성읍지구당(위원장 윤영탁)은 14일 오후 운영위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구시 의원 제3선거구 후보로 김재우 현 구의원을, 4선거구 후보로 김창은 현 시의원을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탈락한 박상현 양문환 이재화씨 등 3명은 성명서를 내고 운영위의 후보선출은 특정후보로 편파적으로 밀기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특정후보 사전내락설'을 주장, 반발하는 바람에 지구당이 시끄러웠다.

이들은 "지구당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했으며 운영위 명단도

하루 전에 공개하는 등 특정후보를 편파적으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구당 관계자는 "운영위원들이 경선보다 추천 표결을 원했고 표결전 정견발표 등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지난 10일 공천신청 접수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던 만큼 불공정 선출은 말도 안되며 이들은 당공천도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했다.

18일 영주시장 후보경선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시균)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구당에 따르면 공천신청을 한 4명은 지구당사에서 기호추첨을 한 결과 1번 김창언(현 경북도의원) 2번 권영창(고려레미콘대표) 3번 최영섭(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4번 강은구씨(영광교육재단 이사장)로 각각 결정했다.

지구당은 당초 대의원 300여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예정이었으나 '핵심당직자만 운영위원회에서 경선하자'는 후보자 4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2002. 3. 15. 3면〉

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달성군수후보와 대구 시의원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후략)

원)와 이달씨(58·도의원)를 각각 선출했다. 제3선거구 후보는 단독 공천신청한 최원병씨(55·도의원)가 됐다.

(중략)

달성군수 후보 박경

호씨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은 14일 목포 농협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경호(53·사진) 현 군수를 달성군수 후보로 결정했다.

(중략)

경주시장 후보 백상승씨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운)은 14일 오전 지구당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장 후보에 백상승씨(66·전 서울시 부시장·사진)를 합의추대했다. 경북도의회의원 1·2선거구 후보는 경선을 실시, 이상효씨(52·도의

수성읍 시의원 2명 선출

●...한나라당 수성읍지구당(위원장 윤영탁)은 14일 오후 운영위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구시 의원 제3선거구 후보로 김재우 현 구의원을, 제4선거구 후보로 김창은 현 시의원을 각각 결정했다.

(중략)

18일 영주시장 후보경선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시균)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영주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략)

〈2002. 3. 14. 3면〉

서 "솔직히 후보 공천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중략)

시의원 남구공천 오늘 마감

○...한나라당 대구 남구지구당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시의원 후보 공천신청서를 받고 있다.

(중략)

달성군수 후보 오늘 결정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은 박근혜 의원의 탈당으로 지구당위원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

6.13 지방선거마당

현시·구의원 넷 공천 신청

○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한 지역에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두 명이 나란히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달서을 지역.

3선거구는 정만식 현 시의원 지역구이나 난데없이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곳에 공천신청접수를 하면서 혼전상임이 빚어지고 있고, 4선거구엔 최문찬 현 달서구 의회 부의장과 달서구의원인 김인호씨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달서을 지구당은 16일 오후 3시 지구당사에서 45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정 의원은 "3선거구에 적을 두고 있는 현 의원이 엄연히 있는데도 후보접수를 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이의원은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분으로서 겸연쩍지만 나름대로 운영위원들을 만나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 남구 오늘 시의원 선출

○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2시 지구당에서 32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2명의 시의원후보를 선출한다.

14일 후보접수 결과 1선거구엔 장택진 전 구의회 의장, 김선명 구의원, 양병화 전구의원, 박일환 전 대동은행지점장이 접수를 마치고 2선거구엔 하중호 현 시의원, 조진해 전 시의원, 서상택 전 대구시 감사과장, 황두연 금융방 대표 등이 접합을 벌이고 있다. 구청장 선거에서 낙마한 윤언자 차병원 강호차장은 공천신청을 포기했다.

경주시장후보 선출 집중

○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윤)이 지난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씨를 합의추대 했으나 일부 공천신청자들이 합의추대가 아닌 사전 밀약에 의한 일방적 후보지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선을 신청했던 김경오씨는 "공천 신청자들이 운영위원들에

게 의견개진은 물론,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조차 부여치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추대한 것은 사전 밀약에 따른 처사"라고 주장하며 공천신청자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조동훈씨도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은 경선이고, 이에따라 대구 포항 안동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지구당이 왜 경선을 회피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15일 김일윤 위원장에게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박현오씨와 정덕화씨 등도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합의추대함으로써 추대된 백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특히 김씨와 조씨는 김일윤 의원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않을 경우 탈당,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나서는 방안도 진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합의추대로 인한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예천군수 후보 공천 마찰

○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문경·예천 지구당 위원장인 신영국 의원과 당원들 간의 마찰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신청서를 내려던 권상국씨와 김주일씨, 그리고 이들을 돕는 당원 및 예천 주민 50여명은 1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를 방문, 신 의원이 자민련 소속이던 김수남 현 군수를 입당시켜 공천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신 의원이 두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김 군수까지 포함하데 대해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며 "이런 신 의원이 김 군수에게 공천을 주기위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 도지부의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전날 저녁 신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한 주민은 "신 의원에게 '당에서 두분이나 공천신청을 했는데 김수남 군수에 마음을 두고 있다나 이게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신 의원이 '아직 결정도 안되지 않았느냐'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14일 지역 기자들에게 "미디어리서치에 김 군수와 권상국 김주일씨등 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두사람 모두 김 군수에 비해 현저히 지지가 떨어졌다"면서 "이렇다면 김 군수가 입당하면 그에게 공천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주·고령군수 후보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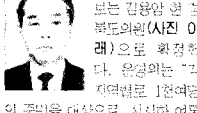
● 한나라당 성주·고령지구당(위원장 주진우)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주군수 후보로 이상우씨(65·사진 좌), 고령군수 후보로 이태근 현 군수(65·사진 우)를 확정했다.

지구당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네차례 걸쳐 성주와 고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수공천 희망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성주군수에는 도광철(66)씨, 이종진(48)씨, 이창우(66)씨가, 고령군수에는 이태근 현 군수와 이진환 전 군수 등(66)이 공천경합을 벌여 왔다.

한나라당이 지난 12월부터 3일간 실시한 4차 여론 조사에서 이상우씨가 37%, 이태근 고령군수가 38.7% 등 경쟁자들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기에 두사람을 후보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북도의회 후보도 결정했다. 성주군 1선거구는 이종진 당무위원장이, 2선거구에선 김기태 현 경북도의회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 또한 고령군은 1선거구 김철영 당 경북도 부위원장이, 2선거구 는 이종환 현 경북도의회가 후보로 결정했다.

청송 영덕 영안군수후보확정



● 한나라당 청송·영덕·영안군수후보로 박종갑 현 청송군수(사진 위)와 김우연 영덕군수(사진 중)를 각각 결정했다. 운영위는 "각 지역별로 1천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취합한 여론 등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경북도의회 후보와 관련, 청송의 1·2선거구 후보로 권

6.13 지방선거마당

영선씨(57·전 군의장)와 박승하씨(46·경소년수련원 원장)를 각각 선출했고, 영덕 1·2선거구 후보에는 최영우씨와 손춘찬씨를 뽑았다. 영안은 1선거구 후보로 이호근씨를 결정했고 2선거구는 권영호씨를 후보로 정했다.

이날 후보결정은 김찬우 의원이 각 지역 운영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지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한나라 남구시의원 선출

●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지구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회 1선거구에 양병화 전 남구의원, 2선거구에 조진해 전 시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구청장 경선에 도전했던 하중호 현 시의원이 탈락하는 파문이 일어났다.

총 위원 32명 중 22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양병화씨가 총 16표를 획득,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어 무난히 당선됐다.

2선거구에선 조진해씨가 17표를 획득, 9표를 얻은데 그친 하중호 의원을 예상외로 쉽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지구당 관계자는 한 의원의 탈락에 대해 "구청장 경선에서 떨어져도 또 시의원 공천신청을 한 것을 운영위원들이 공개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하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달서을 시의원 2명 선출

●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두 명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달서을 지구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현 달서구 의회 부의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의태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달서을 지구당은 16일 오후 45명의 운영위원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3선거구에서는 경산출신인 이상기씨가 28표를 얻어 이차에 출선하며 13표를 얻은데 그친 장광호 현 시의원을 더블스로써로 결정했다.

이제는 그동안 구수히 운영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 온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같은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동료의원과 맞붙어 마땅히 편지 않았다"면서 "선로 레퍼토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선거구에 최영호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다"고 밝혔다.

황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잘 애기는 말지만 마땅히 경쟁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4선거구에는 최표를 얻은 최문찬씨가 10표를 얻은 김인호 달서구의원을 1표차로 누르고 선출했다.

김천 도의원후보 확정

● 한나라당 김천지구당은 17일 경북도의원 선거 집결식 1·2선거구 후보로 김경자 전 김천시의회의장, 김유구 현 도의원을 각각 확정했다.

운영위원으로부터 도의원후보 공천을 위임받은 김천의 의원은 이날 오전 11선거구와 김천시에 있는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천시장 후보 공천 집결식 4명이 시장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 후보를 도의의 후보로 공천하기로 다수결에 따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유구 현 도의원이 시장 공천에 낙마한후 내심 도의원 공천을 기대하던 몸이어서 그의 무소속 출마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 2선거구 후보가 된 김유구씨는 당을 공천신청을 해 후보로 확정했다고 지구당측을 밝혔다.

북구청장 경선 공정성 논란

○ 이영규 북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실시될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경선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을 요구했다. 이영규는 이날 지구당 및 선거대책위 집행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지정을 요청하며 지정을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청장은 "북구지구당 선거역할단 구성에서 대변의 대구시의회가 주지한 청산동에 6명을 배정한 반면 자신이 거꾸로는 노원동은 6명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지구당 위원장은 18일까지 이를 신장하지 않으면 다른인을 찾을 것"이라고 강하게 정당한 이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북구 지구당은 17일 반박성명을 내고 "이청장이 거꾸로 하는 청산을 선거인수가 22명이면 반주자인 노원 127명 6명과 합하면 28명이나 되는데 자기만 그쪽에 6명이라 말은 맞다"면서 "청산동이 6명이나 되는 것은 청산동이 입당하여 2명에서 1명으로 한계점으로 세 정당공구의원 2명이 있고, 총의 총수도 2명에 비해 무제한 자격제한이 없다. 북구갑지역 13명도 부의위원장(구의원)들이 모이면 총합동원 2명의 구의원이나 있다"고 반박했다.

<2002. 3. 16. 3면>

현 시·구의원 넷 공천 신청

○ 두 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한 지역에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두 명이 나란히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달서을 지역.

구의원 두 명이 나란히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달서을 지역. (중략)

<2002. 3. 18. 3면>

한나라 남구 오늘 시의원 선출

○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2시 지구당에서 32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6·13 지방선거마당

영주시장후보 권영창씨



●...한나라당 영주시장 후보로 권영창씨(고려 레미콘 대표 사진)가 선출됐다.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시균)은 18일 오후 3시 영주군로복지회관에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을 신청한 4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며, 권씨가 가장 많은 20표를 획득해 후보로 당선됐다.

권씨에 이어 최영섭씨는(한나라당 중앙청년위부위원장) 19표, 강은구씨는(영광교육재단 이사장) 13표, 김창연씨(경북도의원)씨는 7표를 얻었다.

영주시장후보로 선출된 권영창씨는 영주청년회회장, 회장과 바른게살 회장, 초대 경북도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차점 낙선하는 등 폭넓은 사회 및 정치활동을 펼쳐 지역에 선 '마당발'로 통한다.

한편 1표 차이로 떨어진 최영섭씨는 행사장 밖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번 경선은 지구당 위원장의 마음이 작용하고 불·탈법선거의 증거가 있어 재선거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강은구씨와 김창연씨도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한울한 표정으로 공백으로 빠져 나갔다.

영주=김교윤기자
kimgy@idaegu.com

이원형씨 시장 공천 접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8일 오전 대구시지부에 대구시장 후보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17일 이성수 시의원의 접수에 이어 두번째로 됐다.

이 의원은 이어 기자들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경선은 한나라당에는 승리, 대구시민들에게는 영광을 안겨줄 희망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양군수후보 공천 잡음

○...영양군수 후보로 김용암 경북도위원을 결정한 한나라당 청송·영덕·영양지구당(위원장 김찬우)이 영양의 읍·면 협의회 회장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시키는 등 공천잡음을 겪고 있다.

영양군 한나라당을 읍·면 협의회 회장 7명은 18일 오전 군청기사에서 회견을 갖고 공천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 탈당을 선언

했다.

이들은 "중앙당 방침이 경선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고, 지구당에서도 지난 18일부터 3명의 후보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찬우 지구당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 당을 분열시키고 경선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지역의 운명이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영덕·영양 모두 위원장과 본이 같은 김남 김씨가 후보가 됐다"면서 "이로써 김종대표를 뽑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영양=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당공천 내정설 말도 안돼

○...신영국 의원이 무소속 김수남 예천군수를 지방선거 군수후보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후 불거진 한나라당 당원반발 등이론바 '예천사태'의 파장이 마침내 서울까지 퍼지게 됐다.

공천신청을 준비중인 권상국 전 군수와 당원 등 40여명은 전세 버스로 18일 상경, 중앙당사를 방문해 신 의원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경북도지부를 방문해 정창화 도지부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역시 한나라당 공천을 꿈꾸는 김주일 전 주일대사로 이날 군청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김 군수의 당 공천 내정설은 원서도 안낸 사람을 합격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이전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천신청서를 접수한 뒤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박세영 기자
parksm@idaegu.com

성주고령탈락자 집단탈당

○...한나라당 성주·고령군수와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18일 집단으로 탈당계를 제출키로 하는 등 성주와 고령도 공천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고령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환 전 고령군수(63)와 도의원 공천신청자 4명, 성주군수 공천신청을 냈다 떨어진 도길환(66)씨와 도의원후보 등 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구당의 공천자 확정정은 당헌·당규와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사전 각판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따라서 지구당위원장의 독선적 공천에 불복함과 함께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소속 출마 뜻도 함께 표명했다.

고령=이성규기자
laesg@idaegu.com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운)이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씨를 합의추대했으나 일부 공천신청자들이 합의추대가 아닌 사전 밀약에 의한 일방적 후보지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중략)

예천군수 후보 공천 마찰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문경·예천지구당 위원장인 신영국 의원과 당원들 간의 마찰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신청서를 내려던 권상국씨와 김주일씨, 그리고 이들을 돕는 당원 및 예천 주민 50여명은 1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를 방문, 신 의원이 자민련 소속이던 김수남 현 군수를 입당시켜 공천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후략)

성주·고령군수 후보 확정

●...한나라당 성주·고령지구당(위원장 주진우)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주군수 후보로 이창우씨(65·사진 좌)를, 고령군수 후보로 이태근 현 군수(55·사진 우)를 확정했다.

(중략)

청송 영덕 영양군수 후보확정

●...한나라당 청송·영양·영덕군지구당(위원장 김찬우)은 16일 오전 삼사마린부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송군수와 영덕군수후보로 박종갑 현 청송군수(사진 위)와 김우연 영덕군수(사진 중)를 각각 결정했다. 또 영양군수 후보는 김용암 현 경북도의원(사진 아래)으로 확정했다. 운영위는 "각 지역별로 1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취합한 여론 등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략)

한나라 남구시의원 선출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은 16일 오후 지구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원 1선거구에 양병화 전 남구의원, 2선거구에 조진해 전 시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구청장 경선에 도전했던 하종호 현 시의원이 탈락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후략)

달서을 시의원 2명 선출

●...현직 시의원 두 명과 구의원 두 명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달서을 지구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현 달서구 의회부의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회비가 엇갈렸다.

(중략)

김천 도의원후보 확정

●...한나라당 김천지구당은 17일 경북도의원 선거 김천 1·2선거구

<2002. 3. 19. 3면>

열고 2명의 시의원후보를 선출한다.

(중략)

경주시장후보 선출 잡음



6·13 지방선거마당

수성구청장 후보 김규택씨



●...한나라당 수성갑·을지구당은 19일 오전 엘리제웨딩홀에서 양 지구당 운영위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성구청장 후보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 김규택 현 구청장(사진)이 79표의 압도적 득표를 해 후보가 됐으며, 김형렬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은 12표를 얻었다.

한편 공천신청을 했던 정낙순 전 수성구청장은 18일 오후 신청을 철회했으며, 전병천씨는 이날 소견발표를 한 뒤 공백으로 기권했다. 양지구당 운영위원들은 이에 따라 김 구청장과 김 사무처장 둘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김 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수성갑 시의원 후보선출

○...한나라당 수성갑지구당(위원장 김만재)은 19일 오후 2시 황금동 엘리제 웨딩홀에서 운영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1선거구에 마화관 현 수성구의회의장, 2선거구에 손병윤 현 시의원을 선출했다. 1선거구에 마 의장은 단독 일표로 합의를 주도했고 2선거구에서는 손의원이 32표를 획득, 11표를 얻은 장시범후보를 쉽게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했다.

윤영택씨 대구시장공천접수

○...윤영택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이 19일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공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공천화망자는 이성수 시의원, 이원형 국회의원 등 3명이 됐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신청접수할 예정이며, 박승국 국회의원은 신청마감일인 21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지사 후보공천 신청은 권오을 의원(안동·4)과 이의근 지사가 각각 16일과 18일에 접수를 시켜놓고 '추대' 또는 '경선'을 결정할 오는 25일의 도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란 기다리고 있다. 김광원 의원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강 시의원 선출

○...한나라당 북강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9일 오후 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후보경선을 실시했다.

총 대의원 64명중 기권 115표, 무효표 6표를 제외한 총 524명의 유효투표수 가운데 233표 를 얻은 구본학 지구당 조직부장이 261표를 얻은 김석환 현 시의원을 2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1선거구 후보여는 장정호 현 구의원이 단독 과수해 무투표 당선됐다.

청도군수후보공천 마감

○...한나라당 경산·청도지구당(위원장 박재욱)은 19일 오후 5시

청도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청도군수 후보공천은 김상순 현 청도군수(63)를 비롯 박병길 한나라당 경북도연합회장(61), 박영욱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청도지회장(63), 정인수 한나라당 당원(44) 등 4명이 신청했다.

경북도의원 청도군 제1선거구에는 이철우 현 도의회부의장(63), 손종호 현 도의원(66) 등이, 제2선거구에는 김기동 한나라당 경산·청도지구당 부위원장(54), 황윤성 현 도의원(62), 양재경 경산·청도지구당 부위원장(66) 등이 신청했다.

청도=남동해기자 namdh@idaegu.com

경산 청도 합의회추대기로

○...한나라당 경산·청도지구당(위원장 박재욱)은 19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 실사를 거쳐 합의추대하기로 했다.

경산시장후보 공천신청자는 윤영조씨(58·도교육위원회 의원),

이철우씨(64·도의원), 김윤곤씨(55·영남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등 3명이다. 또 경산지역 광역의원 1선거구에 김성하씨(36·정당인)가 단독 신청했으며, 2선거구는 황상조씨(42·기아자동차 하양판대점 대표), 이용수씨(57·농업), 허규석씨(62·도의원) 등 3명이 신청을 마쳤다.

경산=채석규 기자 skchae@idaegu.com

예천군수 후보공천접수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공천은 무소속 김수남 현 군수가 19일 입당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을 비롯 권상국씨, 김주일씨 등 3명이 이날 연이어 신청했다. 또한 경상북도의원 1선거구에 이현준씨(47·타미널 운영)와 박재환씨(64·결혼상담사 운영)가, 2선거구에 정상진씨(47·농업)와 김만영씨(57·한나라당 소속 현도의원) 등 4명이 신청서를 냈다.

예천=박세영 기자 parksm@idaegu.com

<2002. 3. 20. 3면>

후보로 김정기 전 김천시의회장, 김응규 현 도의원을 각각 확정했다.

(중략)

북구청장 경선 공정성 논란

○...이명규 북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실시될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경선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청장은 이날 지구당의 선거인단이 경쟁자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후략)

영주시장 후보 권영창씨

●...한나라당 영주시장 후보로 권영창씨(고려 레미콘 대표 사진)가 선출됐다.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시균)은 18일 오후 3시 영주근로복지회관에서 60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을 신청한 4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

며, 권씨가 가장 많은 20표를 획득해 후보로 당선됐다.

(중략)

이원형씨 시장 공천 접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8일 오전 대구시지부에 대구시장 후보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17일 이성수 시의원의 접수에 이어 두번째로 냈다.

(중략)

영양군수 후보 공천 잡음

○...영양군수 후보로 김용암 경북도의회원을 결정한 한나라당 청송·영덕·영양지구당(위원장 김찬우)이 영양의 읍·면 협의회 회장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시키는 등 공천잡음에 휩싸였다.

(중략)

당공천 내정설 말도 안돼

○...신영국 의원이 무소속 김수남 예천군수를 지방선거 군수후보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후 불거진 한나라당 당원반발 등 이른바

'예천사태'의 파장이 마침내 서울까지 퍼지게 됐다.

(중략)

성주고령탈락자 집단탈당

○...한나라당 성주·고령군수 및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18일 집단으로 탈당계를 제출키로 하는 등 성주와 고령도 공천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후략)

수성구청장 후보 김규택씨

●...한나라당 수성갑·을지구당은 19일 오전 엘리제웨딩홀에서 양지구당 운영위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성구청장 후보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 김규택 현 구청장(사진)이 79표의 압도적인 득표를 해 후보가 됐으며, 김형렬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은 12표를 얻었다.

(중략)

수성갑 시의원 후보선출

○...한나라당 수성갑지구당(위원

장 김만제)은 19일 오후 2시 황금동 엘리제 웨딩에서 운영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1선거구에 마학관 현 수성구의회 의장, 2선거구에 손병운 현 시의원을 선출했다.

(중략)

윤영탁씨 대구시장 공천접수

0...윤영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이 19일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공천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공천희망자는 이성수 시의원, 이원형 국회의원 등 3명이

됐다.

(후략)

북갑 시의원 선출

0...한나라당 북갑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9일 오후 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 6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후보경선을 실시했다.

(중략)

청도군수 후보공천 마감

0...한나라당 경산·청도지구당(위원장 박재욱)은 19일 오후 5시 청도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중략)

경산 청도 합의추대키로

0...한나라당 경산·청도지구당(위원장 박재욱)은 19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공역의원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의추대하기로 했다.

(중략)

예천군수 후보공천접수

0...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공천은 무소속 김수남 현 군수가 19일 입당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을 비롯 권상국씨, 김주일씨 등 3명이 이날 연이어 신청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27

연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성 락 오

주 문 :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2년 3월 (13, 15, 16, 18, 19일)자 4면 『6·13 지방선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정가 소식을 전하면서 연일 특정당과 그 당소속 후보예정자들의 동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5조(정치적 중립)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시의원은 12일 오후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 경선대회에서 211표를 얻어, 하종호 대구시의원(115표)과 윤언자 여성차병원

野 대구 남구청장 후보에 이신학씨 칠곡군수 경선 패배자들 연대 모색

6·13 지방선거



◇...이신학 대구시의원(사진)이 한나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시의원은 12일 오후

대구 프린트호텔 별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남구청장 후보 경선대회에서 211표를 얻어, 허종호 대구시의원(115표)과 유인자 여성차별원간호차장(43표)을 따돌렸다.

투표결과 발표 후 경선참여자 3명은 서로 선전을 축하하면서 나란히 손을 잡고 대의원들에게 인사,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의 참모습을 보여줬다.

시의원 경쟁도 치열할 듯

한편 2명을 뽑는 남구지역 대구시의원 후보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구당위원장인 현승일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대구시의원 후보에 지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신학 시의원의 제1선거구에는 장택진 구의회 전 의장과 김선명 구의원, 양병호 전 구의원, 박원천 전 대동은행 지점장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구청장 경선에서는 패했으니 시의원 재출마가 예상되는 허종호와 시의원의 제2선거구에는 조진태 전 시의원과 서상락 전 대구시 감사과장 등 여러명이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구당은 12일부터 16일까지 당소속 시의원 후보신청을 받은 뒤,

16일 오후 운영위원회의 자체 심사 후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경호 현 군수 단독 신청

◇...12일 신청을 마감한 한나라당 달성군수후보에 박경호 현 군수가 단독 신청했다.

시의원 후보는 1선거구(화원·다사·하빈·가창)에 정태일 현 시의원, 송대준 가창면 협의회장, 전성배 자유총연맹 달성지부 사무국장이 신청했고, 2선거구에는 박성태 현 시의원이 단독 신청했다.

달성군지구당은 14일 오전 옥포농협에서 핵심당직자 4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신청한 박경호 군수와 박성태 시의원은 협의추대하고, 3명이 신청한 1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자체 심사로 공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달성)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원과 박수웅 전 칠곡부군수, 하진택 전 약목면장이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하진택씨는 12일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합당을 했다"면서 "3월말까지 3명 중 한명으로 후보를 단원회에 한나라당 후보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고 결속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약속을 한신짜처럼 배리는 사람들이 군수가 되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이수성 전 총리 등이 추진하는 신당이 가시화되면 이에 합류해 출마할 경우 선거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부·2사회부]

野 북구청장 경선 이명규·백명희씨 격돌 예천군수 공천내정 시사에 상대측 반발

6·13 지방선거

박경호 달성군수 협의추대

◇...한나라당의 대구달성군수 후보로 박경호 현 군수가 추대됐다.

한나라당 달성지구당 운영위원 42명은 14일 오전 화원의 옥포농협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후보신청한 박 군수와 박성태 시의원을 각각 한나라당 달성군수 후보와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로 협의추대했다. 3명이 후보신청한 제1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에는 정태일 현 시의원이 재신청했다.

김재우·김창은씨 후보선정

◇...한나라당 대구수성지구당(위원장 윤영택)도 이날 오후 지구당사에서 46명의 핵심당직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투표를 통해 김재우 구의원(제3선거구)과 김창은 현 시의원(제4선거구)을 각각 대구시의원 후보로 선정했다.

野 북구갑 2선거구 경선

◇...한나라당 대구북구갑 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신청한 장정훈 구의회 전 의장을 제1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로 확정했다. 백명희 현 시의원이 구청장 도전에 나선 이 선거구에서는 당초 서문수 구의원도 공천을 희망했으나 막판에 양보, 장 전 의장만 신청했다.

지구당은 김석환 현 시의원과 구분할 지구당 조직부장이 신청한 제2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구전시간변선선에서 대의원 645명의 결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북갑·을 지구당은 21일 오전에는 구청장 경선에 나선 이명규 현 구청장과 백명희 시의원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갑·을 지역 선거인단 640명(갑 지역 300명, 을 지역 340명)의 투

표로 북구청장 후보를 선출한다.

구청장후보 운영위서 결정

◇...한나라당 대구달서갑 지구당(위원장 박종근)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달서구청장 후보와 2명의 달서갑지역 시의원 후보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45명의 운영위원들은 달서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갑·을 지구당의 통합운영위원회를 오는 25일 오후 알리앙스 예식장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천신청 하지말라" 통보

◇...신원국 한나라당 예천·문경지구당위원장은 14일 예천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김수남 현 군수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권상국 전 예천군수와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에게 공천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예천군청 기자회견에 전화를 걸어 "최근 서훈의 '미디어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예비후보 3명중 김 군수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았다"고 말하면서 김 군수를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로 결정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 전 군수는 "한나라당 당원을 배제하고 당원이 아닌 현 군수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를 방문,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장 野후보 백상승씨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윤)은 14일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 전 서산시 부시장을 협의추대했다.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은 광역의원 후보로는 경선을 통해 이상호·이달 현 경북도의원을 1·2선거구 후보로 각각 선출하고, 3선거구는 단독 신청한 최원병 현 경북도의원을 협의추대했다.

[정치부·2사회부]

<2002. 3. 13. 4면>

<2002. 3. 15. 4면>

6·13 지방선거

'공천내정' 격렬 항의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경선에 나선 이명규 현 북구청장이 선거인단 선정, 농예 불공정선거 주장하여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정장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지역의 경우, 상대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칠성동은 선거인단을 6명이나 신청하면서 자신이 거주했던 노원 1·2동은 6명 밖에 선거자가 없는 등 불공정하고 1:1에 가깝다"며 "이는 인구 1개동당 1명 또는

보다도 불수로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불공정 선거를 무시하고 선거인단을 구성,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배씨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위원장 양안배)은 오는 17일경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후보로 1선거구에 김정배 시의원(56), 3선거구에 김용규 현 도의원(47)을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후보 발탁에 이어, 도의원 후보로도 발탁하게 되는 김용규 경북도의원(61)은 "한나라당 후보는 자파에도 맞지 않는데 당선된다는 것부터 의의를 느껴주었다"며 백명희 현 시장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한편 불공정선거라며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에 결선에서 불합격한 김창은 21세기 공천발전연구소소장(55)은 18일 김해 김씨정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출정식을 겸해 문경시향대회를 가졌다.

신원국씨 공천 내정

◇...한나라당 신안국 문경·예천지구당위원장은 15일 "한나라당 문경시향공천자로 신원국 전 대구지방법장(2000)을 내정하고,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에 재회한 현 도의원(61), 제2선거구 김창은 전 서지선문 대표(49)를 각각 내정, 오는 25일 지구당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부·2사회부]

간호차장(43표)을 따돌렸다.

(중략)

◇...12일 신청을 마감한 한나라당 달성군수후보에 박경호 현 군수가 단독 신청했다.

(중략)

◇...한나라당 칠곡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이상수 경북도의원과 박수웅 전 칠곡부군수, 하진택 전 약목면장이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후략)

박경호 달성군수 협의추대

◇...한나라당의 대구달성군수 후보로 박경호 현 군수가 추대됐다.

(중략)

<2002. 3. 16. 4면>

野 대구 북구청장 경선 '불공정' 공방

6·13 지방선거

운영락 의원 등 '접수 준비'

◇…17일 이성수 대구시의회 전 의장이 대구시장 후보 추천 신청서를 가장 먼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냈다. 이원형 국회의원(전국구)도 18일 오전 시장후보 추천 신청서를 직접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보건의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영락·박승국 의정측은 "서류를 준비중이다"고만 밝혔다. 박 의원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21일)에 남 생각을 하고 있다. 그전에 국회의원직 후보 단일화가 조율되면 다행이고…"라고 말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희갑 대구시장도 먼저 신청서를 낼 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문 시장은 보좌진은 "출마 여부"까지 아직 밝히지 않았음으로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대구시지부 운영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양병화·조진해씨 후보에

◇…한나라당 대구 달서지구당

(위원장 한승일)은 18일 오후 지구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양병화 전 구의원과 조진해 전 대구시 의원을 대구시의회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 28명은 이원형 현 시의원이 남구청장 도전으로 선출한 채 1선거구와 후보신청자 4명에 대한 투표에서 양병화 전 구의원과 과반수가 넘는 16표를 얻었다. 한승일 현 시의원 지역구인 제2선거구 표결에

잘못 알고 사비를 걸었다"며 반박했다.

지구당 운영위원회 명의의 반박 자료에서 "접수통 출신 대의원이 67명으로 다른 후보보다 많은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2개에서 1개로 압축했고, 지구당 부위원장인 칠성동출신 구의원 2명이 탈배(11년차 3만6천원)를 낸 대의원을 많이 확보한 때문"이라며 "이같은 대의원 선정기준 등 결선절차는 이미 지난 7월의

것"이라고 말했다.

도길환씨 "무소속 고려"

◇…한나라당 고령·성주 지구당(위원장 주진우)은 16일 성주 그린밸리지에서 지구당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성주군수후보로 이창우 전 경북도위원을, 고령군수후보로 이태근 현 군수를 각각 공천했다.

경북도의원 후보로는 성주에는 김기대 현 도위원과 이동진 성주군 교육위원장을, 고령은 나종백 현 도위원과 김장영씨를 각각 공천했다.

그러나 성주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도길환 함의원에 대해서는 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이며, 성주군농민연합회는 방대선 현 도위원이 공천에서 탈락함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을 집단 탈당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수 후보 5명 등록

◇…한나라당 울릉군수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회령기 전 울릉수협장과 정경호 전 울릉농협장, 오창근 전 울릉군농촌기술센터장, 정윤열 전 군의보단수, 이종국 전 국회입법조사관 등 5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결선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군수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으로 알려졌다.

지구당관계자는 17일 "울릉도는 지역이 좁아 경선이나 합의추대는 지역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상득 지구당위원장(포항남·울릉)이 특정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당내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러나 울릉은 군수후보가 확정되더라도 공천탈락자 대부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 더 자간 선거구도가 될 전망이다.

구미시장후보 2명 신청

◇…한나라당 구미지구당(위원장 김성조)은 16일 시장과 도의원후보 공천을 마감한 결과, 시장후보에는 김관용 현 시장과 이규진 전 감사원 서기관이 등록을 했으며, 공천신청을 할 예정이던 정경환 전 구미축협 조합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소속출마를 검토 중이다.

경북도의원 후보에는 1선거구에 이용석 현 도위원과 이재학·김광득·김기호씨가, 2선거구에는 정보호·백정봉 현 도의원, 3선거구에는 김석호·곽용기·이정택 등이 각각 신청했다.

이상기·최문찬씨 선출

◇…한나라당 대구 달서지구당(위원장 이해복)도 16일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구의원을 각각 당서를 지명 대구시의회 후보로 선출했다.

정처부 2사회부

<2002. 3. 18. 4면>

김재우·김창은씨 후보선정

◇…한나라당 대구수성을지구당(위원장 윤영탁)도 이날 오후 지구당사에서 46명의 핵심당직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 투표를 통해 김재우 구의원(제3선거구)과 김창은 현 시의원(제4선거구)을 각각 대구시의원 후보로 선정했다.

(중략)

野 북구갑 2선거구 경선

◇…한나라당 대구북구갑 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신청한 장경훈 구의회 전 의장을 제1선거구의 대구시의원 후보로 확정했다. 백명희 현 시의원이 구청장 도전에 나선 이 선거구에서는 당초 서돈수 구의원도 공천을 희망했으나 막판에 양보, 장 전 의장만 신청했다.

(중략)

구청장후보 운영위서 결정

◇…한나라당 대구달서갑 지구당(위원장 박종근)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달서구청장 후보와 2명의 달서갑지역 시의원 후보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45명의 운영위원들은 달서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갑·을 지구당의 통합운영 위원회를 오는 25일 오후 알리앙스 예식장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략)

"공천시장 하지말라" 통보

◇…신영국 한나라당 예천=문경 지구당위원장은 14일 예천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김수남 현 군수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공천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권상국 전 예천군수와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에게 공천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략)

경주시장 野후보 백상승씨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위원장 김일운)은 14일 한나라당 경주시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경주시장 후보로 백상승 전 서울시 부시장을 합의추대했다.

(후략)

'공천내정' 격렬 항의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경선에 나설 예정이던 권상국 전 예천군수와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30여 명은 15일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를 방문, "지구당위원장인 신영국 의원이 입당도 하지 않은 김수남 현 군수를 공천하려고 한다"면서 신의원을 비난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중략)

이명규 북구청장 반발



6.13 지방선거

북구청장 경선 무산 전망

◇…오는 21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대구 북구청장 후보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명규 현 북구청장이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북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내정했다”며 강력 반발, 경선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지칭, “18일 한나라당 중앙당 총재단 회의에서 대구 북구청장 후보를 여성으로 내정하고, 이같은 사실을 북구 2개 지구당 위원장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이는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선거인단의 자유의사 표시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추천시행 지침’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중앙당의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경쟁력있는 여성후보가 선정될 경우, 여성 단일후보를 추천한다’고 돼 있다”고 밝히고 “중앙당 추천 북구청장 후보로 백명희 현 대구시의원이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이는 나의 경선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결을 종합해 21일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 등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자체심사로 후보 결정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지구당과 달서을지구당도 25일 오후 3시 달서구의 해당알리영사에서 달서구 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양 지구당 통합운영위원회를 연다. 이날 운영위

원 90명은 광범한 입석구청장과 달서구의회의 의장을 역임한 류경현 구의원을 놓고 자체심사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철저조사’李 총재에 탄원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경선에 나설 예정이던 권상국 전 군수와

여계 제출했다. 한편 권 전 군수와 함께 김수남 현 군수의 공천 내정에 반발했던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이날 한나라당 예천연락소에 공천 신청서를 냈다.

통합운영위서 ‘방식’ 논의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을지구당의 통합 운영위원회가 19일 오전 수성구의 열리재택당에서 열렸다. 이날 통합 운영위원회에는 수성갑지구당(위원장 김만제)과 수성을지구당(위원장 윤영탁)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100명이 참석, 구청장 후보추천 신청자 2명을 놓고 선출방식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에는 김규택 현 구청장과 김형렬 한나

라당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이 신청을 했다.

권영창세 영주시장 후보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사균)은 18일 오후 영주시 하망동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한나라당 영주시장후보 선출대회를 열어, 권영창 고려패비콘대표(59)를 한나라당 영주시장후보로 확정했다.

이날 60명의 운영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운영위 경선에서 권씨가 20표, 최영섭 정력개발연구소장이 1표, 권씨보다 1표 적은 19표, 강은구 영광교육재단이사장 13표, 김창언 경북도의원 7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방유봉 의장 광역 후보로

◇…한나라당 봉화·울진지구당(위원장 김광희)은 18일 봉해읍 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진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방유봉 울진군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정치부·2사회부

이명규 북구청장 무소속 출마 시사 野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경선 2과전

지지자 30여명은 18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선영국 의원이 당원도 아닌 현 군수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공천을 내정한 것은 밑질공천의 전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권 전 군수 일행은 또 “중앙당은 후보공천자 내정과정에서의 불법과 부당성을 철저히 조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탄원서를 이회창 총재

에게 제출했다. 한편 권 전 군수와 함께 김수남 현 군수의 공천 내정에 반발했던 김주일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이날 한나라당 예천연락소에 공천 신청서를 냈다.

<2002. 3. 19. 4면>

◇…대구 북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이명규 현 북구청장이 선거인단 선정 등에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김정배씨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김천시지구당(위원장 임인배)은 오는 17일쯤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후보로 1선거구에 김정기 시의원(56), 2선거구에 김응규 현 도의원(47)을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신현국씨 공천 내정

◇…한나라당 신영국 문경-예천지구당 위원장은 15일 “한나라당 문경시장공천자로 신현국 전 대구 지방환경청장(50)을 내정하고,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에 채희영 현 도의원(61), 제2선거구에 김병진 전 새재신문 대표(48)를 각각 내정, 오는 23일 지구당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탁 의원 등 “접수 준비”

◇…17일 이성수 대구시의회 전 의장이 대구시장 후보 추천 신청서를 가장 먼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냈다. 이원형 국회의원(전국구)도 18일 오전 시장후보 추천 신청서를 직접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중략)

양병화·조진해씨 후보에

◇…한나라당 대구 남구지구당(위원장 현승일)은 16일 오후 지구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양병화 전 구의원과 조진해 전 대구시 의원을 대구시의원 후보로 선출했다.

(중략)

“규정 잘못 알고 시비” 반박

◇…한나라당 대구 북갑지구당(위원장 박승국)은 18일 북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규 현 청장이 지난 16일 지구당의 대의원 선정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구청장이 선정규정을 잘못 알고 시비를 걸었다”며 반박했다.

(중략)

도길환씨 “무소속 고려”

◇…한나라당 고령·성주 지구당(위원장 주진우)은 16일 성주 그린빌리지에서 지구당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성주군수후보로 이창우 전 경북도위원을, 고령군수후보로 이태근 현 군수를 각각 공천했다.

(중략)

울릉군수 후보 5명 등록

◇…한나라당 울릉군수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최영기 전 울릉수협장과 정경호 전 울릉농협장, 오창근 전 울릉군농촌기술센터장, 정윤열 전 군위부군수, 이종국 전 국회입법보좌관 등 5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경선이 아닌, 지명방식으로 군수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구미시장후보 2명 신청

◇…한나라당 구미지구당(위원장 김성조)은 16일 시장과 도의원 후보공천을 마감한 결과, 시장후보에는 김관용 현 시장과 이규건

전 감사원서기관이 등록을 했으며, 공천신청을 할 예정이던 장경환 전 구미축협조합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소속출마를 검토 중이다.

(중략)

이상기·최문찬씨 선출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지구당(위원장 이해봉)도 16일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상기 한나라당 비례대표 시의원과 최문찬 구의원을 각각 달서를 지역, 대구시의원 후보로 선출했다.

북구청장 경선 무산 전망

◇…오는 21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대구 북구청장 후보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명규 현 북구청장이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북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내정했다”며 강력 반발, 경선이 무산될 전망이다.

(중략)

자체심사로 후보 결정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지구당과 달서을지구당도 25일 오후 3시 달서구의 웨딩알리앙스에서 달서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양 지구당 통합운영위원회를 연다.

(중략)

‘철저조사李총재에 탄원’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경선에 나설 예정이던 권상국 전 군수와 지지자 30여 명은 18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신영국 의원이 당원도 아닌 현 군수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공천을 내정한 것은 밀실공천의 전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중략)

통합운영에서 ‘방식’ 논의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을지구당의 통합 운영위원회가 19일 오전 수성구의 엘리제웨딩에서 열렸다. 이날 통합운영

위원회에는 수성갑지구당(위원장 김만제)과 수성을지구당(위원장 윤영탁)에서 선임된 운영위원 100명이 참석, 구청장 후보추천 신청자 2명을 놓고 선출방식 등을 논의했다.

(중략)

권영창씨 영주시장 후보

◇…한나라당 영주시지구당(위원장 박시균)은 18일 오후 영주시 하망동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한나라당 영주시장후보 선출대회를 열어, 권영창 고려레미콘대표(59)를 한나라당 영주시장후보로 확정했다.

(중략)

방유봉 의장 광역 후보로

◇…한나라당 봉화·울진지구당(위원장 김광원)은 18일 평해읍 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진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방유봉 울진군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9

언 론 사 : 주식회사 국제신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대표이사 이 중 덕

주 문 : (주)국제신문사가 발행한 국제신문 2002년 3월 22일자 5면 『부산 첫 여성구청장 나올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국제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남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당이 공천자 선출시 여성 30% 할당원칙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공천자를

중앙당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여성 입후보예정자인 특징인이 공천대상 0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막연한 지역정가 소식을 그의 얼굴사진과 함께 박스기사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출마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부산 첫 여성구청장 나올까

부산에서도 첫 여성구청장이 탄생할까.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상수(여·64·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사진)씨가 한나라당 부산 남구청장 후보 공천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전씨는 후보공천을 신청한 이기광 시의원, 허만동 부경대 교수, 탁환용 전 민자당사무국장 등 3명과 함께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복수 공천후보자로 올려져 당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위원장 김무성·金武星)이 지난 16일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공천자의 선출 방법을 논의한 끝에 중앙당의

여성 30%할당원칙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지구당에서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고 중앙당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당은 공직후보 공천 여성 30% 할당이란 당 공약을 부산지역에서 적용해 결실이 맺어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 여성구청장이 탄생할 경우 오는 12월 대선에서 여성계와 젊은층을 상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앙당의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정가에서는 4명의 후보신청자 중 전씨를 공천대상 '0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남구지구당은 구청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가 시의원 후보만 경선에 부치고 구청장 후보 공천을 중앙당에 넘긴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상수씨 野 남구청장 후보 공천 도전

중앙당 30%할당공약...“우선순위” 관측

오는 4월초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씨가 남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된다면 여성계의 전폭적 지지속에 남녀대결 구도의 구청장 선거전이 예상돼 공천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여성 구청장 1호는 울산 동구 이영순(40) 구청장으로 이 구청장은 지난 99년 10월 남편 김창현 구청장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궐선거에 뛰어들어 남편을 이어 당선됐다.

/남차우기자 nam@kookje.co.kr

(주요 기사내용)

부산 첫 여성구청장 나올까

부산에서도 첫 여성구청장이 탄생할까.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상수(여·64·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사진)씨가 한나라당 부산 남구청장 후보 공천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전씨는 후보공천을 신청한 이기광 시의원, 허만동 부경대 교수, 탁환용 전 민자당사무국장 등 3명과 함께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복수 공천후보자로 올려져 당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남구지구당(위원장 김무성·金武星)이 지난 16일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공천자의 선출방법을 논의한 끝에 중앙당의 여성 30% 할당원칙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지구당에서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고 중앙당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당은 공직후보 공천 여성 30% 할당이란 당 공약을 부산지역에서 적용해 결실이 맺어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 여성구청장이 탄생할 경우 오는 12월 대선에서 여성계와 젊은층을 상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앙당의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정가에서는 4명의 후보신청자 중 전씨를 공천대상 '0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남구지구당은 구청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기로 했다가 시의원 후보만 경선에 부치고 구청장 후보공천을 중앙당에 넘긴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초 중앙당공천심사위에서 전씨가 남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된다면 여성계의 전폭적 지지 속에 남녀대결 구도의 구청장 선거전이 예상돼 공천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0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남일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4-4

대표이사 송 주 형

주 문 : (주)충남일보사가 발행한 충남일보 2002년 3월 27일자 3면 『아산시장 후보 2파전 압축』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충남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아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가 5~6명 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 제시없이 '특정인들의 2파전으로 압축된 양상'이라는 관측성 판세분석을 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이들의 전략을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아산시장 후보 2파전 압축

(아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당공천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본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초반 기세싸움이 서서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는 후보자로는 자민련의 박진서(57) 전 아산시행정국장과 한나라

당의 강희복(61) 전 아산군수를 비롯 민주당의 박문호(55) 시의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중앙관료 출신과 기업가 출신의 군수후보 2·3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대세에는 역부족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측에 따르면 이길영 시장의 '낙마'로 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후보로는 이시장과 두차례에 걸쳐 '진검승부'를 벌인 강희복씨를 꼽고 있다.

지명도는 물론 그동안 두차례 선거를 치르며 개인 사조직은 물론

아슬아슬한 표차로 고배를 마셔 동정표까지 감안한다면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전 군수 역시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가며 읍, 면단위는 물론 각종단체 및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며 지지기반확산에 주력해오며 와신상담해 오고 있다.

게다가 '숙명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이시장이 뜻밖의 악재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최대 강적이 사라지게돼 출발라인에서 한 발짝 앞서게 되는 유리한

아산시장 후보 2파전 압축

박진서-강희복씨 대결구도에 박문호씨 추격전 양상



강희복씨



박진서씨

‘아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당공천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본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초반 가세싸움이 시작될 열기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는 후보자로는 자민련의 박진서(57)

이밖에 중앙관료 출신과 기업가출신의 군수후보 2~3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대체에는 역부족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측에 따르면 이길영 시장의 ‘남파’로 현재 가장 유력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후보로는 이시장과 두차례에 걸쳐 ‘전검승부’를 벌인 강희복씨를 꼽고 있다.

지명도는 물론 그동안 두차례 선거를 치르며 개인 사조직은 물론 어울아날한 표지로 교배를 하며 중정표까지 얻었다면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선두권을 탈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전군수 역시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며 음.면단위는 물론 각종단체 및 보임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며 지지기반 확장에 주력해오며 외산상향해 오고 있다.

게다가 ‘숙명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이시장이 뜻밖의 약세로 몰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연스레 최대 강적이 사라지게돼 출범리에서 한 발짝 앞서게 되

는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유를 부리기에는 또 다른 ‘다크호스’가 등장하면서 강 전군수 진영에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게하고 있다.

다름 아닌 박진서 전 행정국장의 자민련 공천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 지명도와 경력 등에 있어서는 강 전군수 측에 외형상 불리하다는 분석이나 어찌됐든 지명면이라는 거대합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 원철희 의원의 지역 여론이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게다가 박 전국장 역시 35년이라는 기간을 아산지역에서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지지기반과 후원세력이 튼튼하다는 평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경력에 있어서나 사조직에 있어서도 강 전군수에 결코 밀릴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직면에 있어서도 자민련 고정조직 이외에도 원의원의 ‘영원한’ 지지기반인 농협조직까지 가세할 경우 오히려

강 전군수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밖에 박문호의원도 깨끗함과 정직성을 내세우며 다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본격적인 선거대열에 합류한다는 입장으로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는 거문대 장작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가며 민심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아직까지는 초반에 불과하지만 어찌든 지금까지의 판세로 보아서는 박 전국장과 강 전군수의 2강체제에 박의원의 추격전 양상으로 선거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있어 최대변수가 윤대 한파라 할 수 있는 윤창고 동문세력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즉, 동문출신 후보가 없었다면 지역내 최대동문세력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사분오열’된 입장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심정민기자 b.smar@chilnaksr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유를 부리기에는 또 다른 ‘다크호스’가 등장하면서 강 전군수 진영에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닌 박진서 전 행정국장의 자민련 공천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 지명도와 경력 등에 있어서는 강 전군수측에 외형상 불리하다는 분석이나 어찌됐든 자민련이라는 거대합선의 지원을 받

고 있는 데다 원철희 의원의 지역 여론이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게다가 박 전국장 역시 35년이라는 기간을 아산지역에서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지지기반과 후원세력이 튼튼하다는 평으로 행정전문가로서의 경력에 있어서나 사조직에 있어서도 강 전군수에 결코 밀릴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직면에 있어서도 자민련 고정조직 이외에도 원의원의 ‘영원한’ 지지기반인 농협조직까지 가세할 경우 오히려 강 전군수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중략)

아직까지는 초반에 불과하지만 어찌든 지금까지의 판세로 보아서는 박 전국장과 강 전군수의 2강체제에 박의원의 추격전 양상으로 선거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1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사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62-8

대표이사 김 현 재

주 문 : (주)호남매일사가 발행한 호남매일 2002년 3월 27일자 7면 『신안군 민주공천=당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호남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신안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당 공천은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진다고 제목과 내용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혹은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신안군 출마후보자들 ㉔

신안군 민주공천 = 당선



강성길 (44)
언론인



고길호 (57)
전남도의원



김상진 (64)
前 지구당 사무국장



김이철 (66)
제2전국위 위원장



김청수 (50)
동아연지 대표



박세준 (37)
중앙당 홍보위원장



양희명 (45)
북해조합장



윤상욱 (53)
前 군의회 의장



최공인 (72)
現 소안면장

민주당 물밑 공천경쟁 7명 치열 지역 특성상 위원장 영향력 막강

신안군의 새로운 해양관광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안군의 민선 3기 군수입직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9명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신안 지역은 민주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나오는 곳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도 한 차갑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그 만큼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명의 입지자들은 민주당의 공천에 모든 사활을 걸고 공천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는 고길호(57) 전남도의원, 김이철(66) 제2전국위 위원장, 김상진(64) 전 지구당 사무국장, 김청수(50) 동아연지 대표, 박세준(37) 중앙당 홍보위원, 윤상욱(53) 전 군의회 의장, 최공인(72) 전 신안군수 등이다.

반면 경쟁열인 언론인과 양희명(45) 축협조합장은 무소속 출마를 우선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경쟁열인 언론인보 기자는 지난 4월 4일부터 군수출마를 명목해 두

고 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등 토심 접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또 조만간 현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공천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등 배편 일정을 보내면서 지지율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등 열을 알리기에 분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 기사는 민주당 공천보다는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말바라 민선출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길호 전 전남도 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인 현화갑 상임고문의 막과 메시지를 억압해 두려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 공천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외에도 또 지난 87년 만에 입문, 조지부장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 지역에 영향력이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으며, 뛰어난 불굴력으로 지역 당원들에게 돋보인 정통 강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민주당 공천보다는 불굴정통에 치러질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권 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로 보인다.

제2전국위 김이철 위원장은 전 전남도의원, 대한농업조합 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경력과 일단과 대안과제 등을 펼쳤으며 부가직하면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80년대 도보 전학장 시절 당시 300만명의 자원을 들여올 정도로 경제마인드를 갖춰 CEO 군수를 꿈꾸면서 재정자립도가 일약한 신안군을 선택하는 군으로 남도내에 회관을 다녔다는 과으로 출마표를 던지 않았다.

김상진 전 지구당 사무국장은 불마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신안군 해파를 과장 등 4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조과 해충인 소년·소녀 가마동가에 열광하는 등 보육원 장에서 등 불우계층 시설을 주축한 보육원사 이듬해부터는 또다른 자질을 받고 있는 등 힘이 강하다.

한 문대중·고 문동환의상을 받고 있어 지지율이 확고한 김청수 후보가 재 당선은 이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지지를 내세우고 있다.

김 대장은 지난 70~80년대 일대주 대통령의 조직 중에 나타난 민주혁명 연구원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운동에 헌신해 왔다는 점이 주요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박세준 중앙당 홍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87년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고배를 마신 경력이 있으나 그동안 철저 부실해온 만큼 이번 공천에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37세로 군수 입지자 가운데 젊은층 부자로 한 박 부위원장은 군과 해양관광을 연계해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치하면서 35세대의 젊은 감각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상욱 전 군의회 의장은 신안군 3 전 군의회으로 조직력을 내세우며

전에 불을 댕기고 있다.

윤 전 의장은 11년간의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앞으로 이뤄질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 군의 살림을 가장 잘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양희명 축협조합장은 지난 4년부터 지금까지 축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공천을 희망했으나 무소속 출마 쪽으로 회관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조합장은 또 37세대 전국 화원소 조합장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할 것으로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지역내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므로 부가직하면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지난 선거 때 무형입성에 성공한 현 회장인 신안군수는 재임 기간동안 열악한 군 살림을 무난하게 이끌어 온 점을 강조하면서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최 군수는 그 동안 삶을 다리로 잇는 세계다리박물관 조성사업과 원자반에 대한 100%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4억달러의 민간자본을 유치, 자외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공천을 무난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직 회장인 양 전남도 의원은 민주당 공천 경선에 참여를 검토했으나 군수출마를 잡고 도의원 경선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청수·신안= 임철호 기자
ysk21@hanmail.co.kr
(다음은 진도·영광읍이다.)

계재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주요 기사내용)

신안군 민주공천 = 당선

서해안의 새로운 해양관광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안군의 민선 3기 군수입성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9명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신안지역은 민주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증이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나오는 곳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다 한화갑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그 만큼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명의 입지자들은 민주당의 공천에 모든 사활을 걸고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는 고길호(57) 전남도의원, 김이

철(66) 제2건국위 위원장, 김상진(64) 전 지구당 사무국장, 김청수(60) 동아건설 대표, 박세준(37) 중앙당 홍보위 부위원장, 윤상욱(63) 전 군의회 의장, 최공인(72) 현 신안군수 등이다.

반면 강성길(44) 언론인과 양회영(45) 축협조합장은 무소속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3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원 호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2년 4월 2일자 1, 3면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등』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당 후보가 확정되었다며 사실을 통해 그의 본선승리를 위한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면서 후보당선배경과 포부 등을 2개면에 걸쳐 집중(4단·3단 스트레이트, 인터뷰 박스, 사설, 현장사진 두 컷, 인물사진)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

한나라당이 1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실시한 울산시장후보 경선에서 박맹우씨(52·전 울산

시 건설교통국장)가 승리, 사실상 오는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박씨는 이날 종합체육관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총 선거인단 1천153명 중 1천121명이 투표(투표율 97.2%)에 참가한 가운데 53.7%인 602표를 획득, 500표(44.6%)를 얻

은 강길부씨(60·전 건설교통부 차관)를 102표 차이로 눌렀다. 박정근씨(60·변호사)는 19표(1.7%)에 그쳤다.

박씨는 당선인사를 통해 “경선 승리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

한나라 경선 53.7% 지지 승리 “젊은 비전으로 양대선거 승리 혼신”

강길부·박정근씨

“결과승복·본선 협조”

남구3선거구 광역의원

최형문씨 후보경선 승리

한나라당이 1월 18일 전국 18개 시도에서 열린 2002년 제121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는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 이래 6년 만에 나타난 결과로, 한나라당이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18개 시도에서 열린 2002년 제121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는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 이래 6년 만에 나타난 결과로, 한나라당이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18개 시도에서 열린 2002년 제121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는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 이래 6년 만에 나타난 결과로, 한나라당이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18개 시도에서 열린 2002년 제121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는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 이래 6년 만에 나타난 결과로, 한나라당이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18개 시도에서 열린 2002년 제121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는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 이래 6년 만에 나타난 결과로, 한나라당이 1997년 제115회 전국시도지사선거에서 53.7%의 지지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후보 선출대회가 1월 18일 중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시장후보로 당선된 박맹우 후보가 대의원들의 환호에 소용돌여 들어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근, 박맹우, 강길부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후보 선출대회가 1월 18일 중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시장후보로 당선된 박맹우 후보가 대의원들의 환호에 소용돌여 들어 답하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후보 선출대회가 1월 18일 중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시장후보로 당선된 박맹우 후보가 대의원들의 환호에 소용돌여 들어 답하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후보 선출대회가 1월 18일 중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시장후보로 당선된 박맹우 후보가 대의원들의 환호에 소용돌여 들어 답하고 있다.

〈2002. 4. 2. 1면〉

“당원들의 고귀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오는 6·13지방선거 압승과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의 새롭고 젊은 비전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며 “경선의 아픔을 딛고 우리 모두 하나되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필승하자”고 호소했다. (후략)

‘젊은 비전’에 조직력 우위 낙승

1일 실시된 한나라당의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맹우 후보(52)가 강길부 후보(60)를 다소 여유있는 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것은 ‘젊

은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운 개인역량 외에 조직적인 세대결에서 앞선 결과로 풀이된다.

박후보는 7년전 함안군수를 지냈고, 지난 98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울산동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경력에다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 이어 경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지만 경선전까지 경륜이 다소 부족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있었다. (중략)

강후보측의 세확산에 대응해 박후보측의 수성전략도 강화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졌으나 경선결과는 강후보측의 역부족으로

귀결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강후보가 청와대와 정당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친 경륜과 도시계획·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강조한 반면 박후보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방단체장 경험이 있는 자신이 오히려 지방종합행정 경륜에선 앞선다는 반론과 함께 본선경쟁력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같은 후보간 시장후보 적임자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각종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득표전이 병행됐고, 대부분 지구당측의 정서도 지역구 선거인단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으나 박후보측의 수성전력이 성공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략)

박맹우 후보 일문일답

한나라당 울산시장후보로 선출된 박맹우 후보(사진)는 경선직후 인터뷰에서 “지방종합행정에서는 충분한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선의 승인을 꼽는다면.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난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는 선거인단의 지지에다 많은 원군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여기고 감사드린다. 그러나 경선승리를 기뻐하기에 앞서 이제 본선에 나서는 선수자격을 얻은 것뿐이라는 점에서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 앞으로의 계획은.

“경선캠프를 본선체제로 일대 정비하면서 체계화하겠다. 또 울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적임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본

할 것이다. 투표에서 보면 박 후보는 차점자인 강길부 후보 보다 100표 정도 앞서 압승으로 보기 힘들다.

이것은 그 만큼 박 후보가 고전을 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박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 당원들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경선에서 요즘 부산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전하자 앞으

로 울산시장 선거 역시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본선에서 박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강길부 후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후보가 이번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먼저 고배를 마신 강 후보를 위로하고 강 후보가 본선에서 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울산 발전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경선을 지켜 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후보들이 울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들은 울산발전과 관련 오랫동안 시정에 참여했던 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경선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선에서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울산시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박 후보가 깨닫기를 바란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34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원 호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2년 4월 23일자 1,3면 『한나라-민노당 시장선거 대접전』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지역) 선거와 관련, 정당별·후보별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특정후보가 다른 특정후보에 비해 3.0% 앞섰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 공표시 준수요건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민노당시장선거 '대접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울산시장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주체와 시점별로 지지도 1위 후보가 뒤바뀌는 등 혼전양상을 보이며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 - 민노당 시장선거 '대접전'

후보지지도 여론조사 따라 달라

기초단체장도 불꽃대결 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권영기** 2·3면

특히 울산시장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주체와 시점별로 지지도 1위 후보가 바뀌는 등 혼전양상을 보이며 박병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울산MBC가 민노당·민노총의 지방선거후보 선출직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시장후보간 지지도에서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박병우 후보에 19.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와 ube울산방송이 이달초순 울산리서치연구소에 공동의뢰한 여론조사때 지지도에서 박병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여론조사 모두 당선가능성에선 정당지지도에서 앞선 한나라당 박후보가 각각 3.0%포인트와 9.1%포인트씩 민노당 송후보에 앞서며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산출신인 노무현 고문이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울산과 경남을 포함한 소위 PK지역 지방선거에 전략적인 집중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 그 수위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지역내 5개 기초단체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1·2위 구도가 한나라당 대 민노당 2곳, 한나라당 대 무소속 2곳, 민노당 대 무소속 1곳 등으로 나타나 일부 무소속 경쟁지역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정당간 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때 한나라당과 노동계 지지후보가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선례와 비슷해 이같은 현상이 6·13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도 오는 지방선거때 가급적 많은 후보를 내는 등 정치세력화에 적극 나서기로 해 민주노총과의 관계정립 방향이 주목된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양자대결구도 98년 선거 닮은 꼴”

조사시점·설문순서등 지지도 변화 영향 준듯

민주당 ‘노풍’ 상륙맨 선거구도 최대 변수로

울산 지방선거 여론조사 분석과 전망

6·13지방선거때 울산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 각축전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98년 6·4선거때 선례에다 이달들어 실시된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울산시장선거전의 경우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동안 지역내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에선 민주노동당의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박병우 후보에 19.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병우 후보는 당선가능성에서 송철호 후보에 3.0%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앞섰다. 민주당의 예비후보인 김성득 후보는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 크게 뒤처졌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노당 시장후보간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정당지지도와 의지도의 차이에서다. 조사시점과 방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와 ube울산방송이 민노당 시장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5~8일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박병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지지도(2.3%포인트)와 당선가능성(9.1%포인트)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사가 의뢰한 두 여론조사 결과 박후보와 송후보의 지지도가 엇갈리게 나타난 것은 이달초순의 경우 4월1일 한나라당의 울산시장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후보에 대한 홍보가 많았고, 지난 20~21일의 경우 송후보가 민노당·민노총 시장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라는 시점상의 문제가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지지도를 평가 볼 때, 당선가능성을 먼저 검토

하느냐 선후의 순서 등도 다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내 기초단체장 선거전의 경우 두 여론조사 모두 1위와 2위 지지도를 보인 후보

의 소속 정당에서 출구는 한나라당과 무소속, 남구는 한나라당과 민노당, 동구는 민노당과 무소속, 북구는 민노당과 한나라당 등을 나열했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고문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울산을 포함해 부산, 경남지역 지방선거전에 중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집중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

돼 한나라당과 민노당간 양자

대결 구도에 변화를 줄 최대변

수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창당전인 6·4선거와 울산시장선거에선 한나라당 심한구 후보가 득표율 42.7%(18만4011표)를 39.4%

(14만8천123표)를 얻은 노동

계 지기의 송철호 후보에 3.3%

포인트차이로 선승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선거

에서는 한나라당이 지지기반이

무엇을 중·남구와 울주군에서

승리한 반면 노동계 지지후보

들은 동·북구에서 승리하면서

양분했고, 지방의원 선거에서

도 엇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2002. 4. 23. 3면>

<2002. 4. 23. 1면>

울산MBC가 민노당·민노총의 지방선거후보 선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시장후보간 지지도에서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박병우 후보에 19.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와 ube울산방송이 이달초순 울산리서치연구소에 공동의뢰한 여론조사때 지지도에서 박병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여론조사 모두 당선가능성에선 정당지지도에서 앞선 한나

라당 박후보가 각각 3.0%포인트와 9.1%씩 민노당 송후보에 앞서며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산출신인 노무현 고문이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울산과 경남을 포함한 소위 PK지역 지방선거에 전략적인 집중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 그 수위도 변수로 지목된다.

(후략)

“양자대결구도 98년 선거 닮은 꼴”

6·13지방선거때 울산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간 각축전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98년 6·4선거때 선례에다 이달들어 실시된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울산시장선거전의 경우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지역내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에선 민주노동당의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박병우 후보에 19.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맹우 후보는 당선가능성에서 송철호 후보에 3.0%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앞섰다. 민주당의 예비후보인 김성득 후보는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 크게 뒤쳐졌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노당 시장 후보간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이 서

로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정당지지도와 인지도의 차이에도 조사시점과 방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와 usb울산방송이 민노당 시장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5~8일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

론조사에서는 박맹우 후보가 송철호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지지도(2.3%포인트)와 당선가능성(9.1%포인트)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5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제주시 삼도1동 568-1
대표이사 강 영 석

주 문 : (주)한라일보사가 발행한 한라일보 2002년 4월 22일자 25면 『마지막 승부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한라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그들의 2파전 구도(현지사의 수성 혹은 전지사의 탈환)를 부각시킨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마지막 승부수'

■우근민 現 지사

양측 모두 국제자유도시와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우지사측은 민주적·도덕적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신 전 지사측은 관광산업 침체와 섬문화축제 비리 등 현 도정의 실

정(失政)을 차별화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도민 상당수가 찬성했으며 어떤 후보도 이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결국 실천방향 및 도민수혜 여부에 대한 각론적 공방이 필연적이라는 전망이다.

(중략)

■신구범 전(前) 지사

판세분석

△우= '우' 45% '신' 30% 정도의 고정표를 갖고 있다 25%대의 부동표 흡수가 승부의 관건이다. '신'은 오현동문 조직 정도가 동원 가능한 조직이지만 민선 2기 지방선거 이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는 특별한 지연이나 학연과 상관없는 다양한 인적 구성 폭과 깊이에서 '신'의 조직이 '우'의 조직을 따라올 수 없

수성 '마지막 승부수' 탈환

■ 우군인 現지사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 신구법 前지사



■ 신구법 前지사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자유도시 창업·성공적임자 評 확산
다양한 인적 조직동 바탕 승리 확산”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선거전략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慎

“21세기 제주경영시대 기틀 다진다
농어촌지역 지지율 상승 승리 장담”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판세분석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간혹 '우'의 공약이 실현되고, '신'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의 공약은 '신'의 공약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신'의 공약은 '우'의 공약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다. 결전에서의 다국적군(우)과 이라크군(신) 수준의 격차다. 예를들면 지난 95년 6·27선거시 '신'의 지지가 39%였으며 98년 6·4선거때 '우'의 지지는 53%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음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우'의 우위는 변한 적이 없다. 특히 '신'의 측근개입과 '신' 씨 부부에 대한 검찰소환으로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음모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 25%에 달하는 부동산 중 60% 이상이 잠재적 '우' 지지군으로 여론조사 결과분석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의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최소 15% 내외의 지지율 격차로 승리를 확신한다.

△신= '신'은 전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약간의 열세를 보였으나 최근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다.

반면 '우'의 지지는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

세는 결정됐으며 선거때까지는 어느정도 차이를 벌리느냐가 관망사가 될 것이다.

감귤농가를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등 도시서민층의 '신'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1기때 보여준 비전제시와 정책대안 능력을 도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의 무능과 무책임, 부정과 비리는 더욱 많이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격차가 더 벌어져 2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36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주 문 :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한 매일경제 2002년 4월 25일자 51~53면 『도전 6·13 지방 선거-인천시장, 제주지사,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부산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매일경제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 각 지역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판세를 분석·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우위(독무대, 독주, 당선확률 거의 100%, 2파전 등)를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그들의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시키고, 여타 후보예정자들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등 소홀히 다룬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충북지사 관련)하면서도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를 등을 함께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 의무), 동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CEO출신 두 후보 한판 승부

박상은 후보는 인천의 향토기업인 대한전선에 85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0년 같은 그룹인 대한제당의 사장까지 오른 정통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주로 해외통상 분야에서 일했다.

박 후보가 기획조정실장 시절 대한제당의 연간 매출액은 1,500억원에 불과했지만 15년 이후 사장이 될 때는 12개 회사, 종업원 3,000명, 연간 매출액 1조원대로 성장했다.

1949년 강화군 삼산면에서 태어났다. 5대째 인천에 살고 있는 인

천 토박이다. 해명초등, 송도중, 경동고를 나왔고 연세대 법학과와 같은 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총 학회 부회장으로 3선 개헌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졸업 후 해군 장교로 입대, 대위로 예편했다.

2000년 총선 때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역 재계 요청으로 같은 해 인천시 정부부시장에 취임했다. 올 2월에는 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진출한다.

정부부시장 시절 송도 신도시에 유전공학회사인 벡스젠사에서 1억 5,000만달러, 미국의 G&W에서 1단계 투자액 6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부시장은 그만두고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경제 활성화 포럼'을 창립, 인천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의원인 이운성 민봉기 의원을 이겼다. 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6월 본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선거공약은 'CEO(최고경영자) 시장'과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다.

지난 2년 동안 인천시정계획을 준비해온 안 후보는 '준비된 인천시장'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인천은 미완의 도시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국제공항을 계기로 인천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경제통 진념 정치입문 시험대

CEO출신 두후보 한판 승부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손학규 와신상담
임창열 경기지사
무소속 출마 '관심'

[illegible]

제 주 지 사

1승1패 우군민·신구범 세번째대결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市政에 경영 접목
인천경제 활성화”
한목소리

[illegible]

만들기 위해 항만 증·개축과 여객·화물 등 배후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꿈꾸는 미래인천은 동북아의 '물류 관광 레저 금융의 중심지'다. 그래서 선거 슬로건도 '국제자유 비즈니스 도시, 업그레йд 인천'이다.

그는 “인천을 세일즈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0년의 비즈니스맨 경험을 가진 설득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 CEO 출신이자 국제금융전문가인 자신이 적

임자라고 주장한다.

안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 시장 후보와 함께 진정한 CEO 시장이라고 자부한다.

충남 태안 출신인 그는 일찍이 인천으로 유학온 시골수재로 서울 대와 미국 트로이대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제세산업과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업무를 익혔다.

이어 동양선물 대표, 동양선물 미국 시카고 현지대표, 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했으며 미 국제금융선물거래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국제금

용 선물거래의 이해>도 출간했다.

안 후보는 "이제 민주투사들의 리더십시대는 끝났다"면서 "인천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CEO시장론을 강조했다.

1승 1패 우근민·신구범 세번째 대결

제주도는 우근민 현 지사(60·민
주당)와 신구범 전 지사(60·한나
라당)간의 재대결이 벌어질 예정이
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이미 지난
95년과 98년 두 번 있었고 전적은

부산시장

안상영 3選도전... '노풍' 변수



안상영
(한나라·現 시장)

부산은 안상영 현 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노무현 바람'에 힘입어 한이현 씨 등 거물급 인사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김석준 부산대 교수, 노창동 사단법인 굿모닝부산 이사장, 이영근 부산 남구청장 등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해운항만청장 등 실무형정 경험과 부산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인물.

안 후보는 최근 치러진 한나라당 부산 시장 후보경선에서 권철현 의원과 지열한

경합 끝에 12표의 근소한 차로 이겼다.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것은 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랜 관료생활로 이미지가 비교적 딱딱하다는 평가와 업무스타일에서도 포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본선경쟁력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거의 100%라는 전제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다.

대구시장

조해녕 전 시장 한나라 후보확정



조해녕
(한나라·前 대구시장)

대구에는 한나라당 조해녕 전 시장과 무소속 이재용 전 대구경장이 출마를 공식화한 후선거조치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이외의 전 시장도 무소속 또는 박근혜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 후보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시민운동가 출신 등 참신한 인사를 불색중이며 자민련은 김상연 시장부처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조해녕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58)는 71년 행정고시(10회)에 합격해 경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내부

부에서 전배가 끊은 정통 내부관료 출신.

6공화국 시절 청와대 내부행정비서관을 지냈고 내부부 지방자치 기획단장으로 지자체 실무작업을 지휘하기도 했다. 행정관료생활 '업무에 밝고 신랄이 두터웠지만 상사에게 직인을 서슴지 않는 일면도 있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에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4표로 낙선했지만 이듬해인 96년 1월 총무처 장관으로, 또 97년 8월에는 내부부 장관에 발탁된 바 있다.

경북지사

이의근 현 지사에 박준홍씨 도전



이의근
(한나라·現 도지사)

경북은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된 이의근 현 지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 조카인 박준홍 대구지법 2판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의근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64)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지난 61년 청도군청 9급 판단으로 출발해 청와대 행정수석(84년)과 민선 경북지사를 두 번 역임했다.

이 후보는 특유한 성실성과 행정기획력을 인정받아 78년 박정희 대통령 지

사로 청와대 차출 근무(비서실 행정관)를 하면서 본격적인 승진의 기회를 잡았다.

이 후보는 당시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부 지방기획과장,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관선 경북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순한 인상에서 풍기는 진화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처리에서는 불도저로 통해 '영감 만족시키기 정말 힘들다'는 게 직원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경남지사

김혁규 지사 '독무대' 예상



김혁규
(한나라·現 도지사)

경남은 김혁규 현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았고 김두관 남해 군수가 자치연대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달 초 한나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김혁규 지사는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비즈니스 감각'을 두루 익혔다.

김 후보는 39년 경남 함천에서 태어나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졸업 후 경상남도 총무과, 내부부 지방재정과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훗날 바 있어 공직을 그만두고 단독 10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71년 '힐 트레이딩사'를 설립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에 성공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뉴욕한인회 이사장, 한태평양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기로 국내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서기비서관(83년)을 거쳐 제27대 경상남도 지사로 부임하였으며 그후 민선 제1·2기 경상남도 도지사로 연속 당선돼 이번엔 3선 고지에 도전장을 냈다.

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원년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민주당은 우 지사가 그 동안 제 주도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온 데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책임자라는 점에서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우 지사는 여기에 재임기간 중 다져놓은 조직과 현직 도지사로서 제 주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신 전 지사는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건하면서 '밀바닥' 다지기에 전념해왔다.

홍선거·염홍철 박빙승부

민주당 이인제 고문의 대선후보 경선포기로 충청권 선거구도가 복잡해졌다.

한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이인제 고문의 중도포기 후 반민주당 정서가 강해졌다"면서 "충청권 민심이 자민련을 택할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충청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은 커녕 출마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련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도 변화와 이인제 고문, 자민련의 선택에 따라 6월 지방선거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이 대전시장 선거다.

자민련의 홍선거 현 시장이 3선 고지 점령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염홍철 전 시장간의 경쟁이 한치

〈2002. 4. 23. 1면〉

신 전 지사의 탈환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신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한나라당에 입당해 일찌감치 포발을 다졌고 우 지사는 최근

불거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민선 3기 도지사를 선출하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특히 올해가 제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뜨겁기 때문이다.

홍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제2 행정수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국방의 중핵도시, 세계적인 첨단과학·벤처도시로 지평을 넓혔다”면서 “최근 공약이행률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상위권에 속하는 이행률 50%를 웃돌았다”고 성과를 제시했다.

그는 “여러 정치 세력들의 이합집산 속에서도 자민련은 의연하게 우리 지역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면서 자민련 바람을 기대했다.

이에 대해 염 전 시장은 “한 사람, 한 정당에게 10년 이상 대전을 맡길 수 없다”면서 홍 시장의 3선 도전을 집중 공략한다.

특히 염 전 시장은 “대전시민이 구당 200만원씩 1조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껍데기만 남은 대전시를 정상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힘든 경쟁만큼 비방전도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자민련 대전시지부는 지난 12일 ‘전과자는 150만시민의 봉사자가 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염 전 시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염 전 시장은 “김대중 정부의 한나라당 죽이기 작전 때 ‘표적수사 1호’가 됐다”고 해명했다.

심대평 現 지사 독주 예상

충남도지사는 자민련 심대평 現 지사(61)이외는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박태권 전 지사,

김용래 전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들이 고사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심 지사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충청을 기반으로 자민련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투박한 손길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도민과 함께 다시 한 번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3기 지방선거는 우리 자민련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충청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충남도정 구축 △5년 연속 전국 쌀생산성 1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공주 출신인 그는 대전고와 충남대를 나와 총리 행정조정실장과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 간 고위직을 두루 역임한 행정의 달인.

지난 95년 민선 초대 충남도지사와 98년 2기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하는 등 안정적인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충청권에서 자민련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한나라당 표몰림 현상이나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경우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원종 黨이적 불구 강세

한나라당은 충북도지사 후보로 자민련에서 영입한 이원종 지사를 후보로 정했다.

당적 변경 시비에도 불구하고 최

근 지방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전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은 정우택 의원을, 민주당은 홍재형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성과로 △도민소득 전국 3위 △농가소득 전국 2위로 끌어올리고 △분야·권역별 지역발전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매년 1조3,000억~1조4,000억원 정부예산 확보를 들었다.

차기 공약으로 이 지사측은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집중 육성 △종합휴양레저타운 등 대형외자유치 프로젝트 가시화 △오창단지 분양 마무리 2002년 오송국제마오엑스포 성공적 개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63년 체신부를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와 행시에 합격한 그는 30여 년 만에 충북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올랐다.

민선 2기인 98년 자민련 소속으로 충북도지사 도전에 성공한 뒤 현재는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 후보로 제3기 민선시장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비록 지역 내 지지도는 높지만 ‘자민련-한나라당 이적파동’이 단점으로 꼽힌다. (중략)

강현욱·정세균 각축전

전북지사는 민주당 강현욱 의원과 정세균 의원의 2파전이다. 여기에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손주환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냈다.

강현욱 의원은 서울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합격(3회). 재무부 이재국장,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기획원과 동력자원부 차관, 농림수산부 장관 등을 거친 정통경제관료 출신이다. 88년 관선 전북 도지사를 역임했고 95년 첫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 간판으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유종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96년 15대에 민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이후 환경부 장관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군산에서 재선됐다.

정세균 의원은 1950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출생했다. 안성고, 전주공업고에서 인문고를 가고 싶어 전주신흥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면담해 장학금을 받아 졸업했다. 고려대 법대에 입학해 공부보다는 고대신문사 일에 열중했고 총학생회장을 맡아 유신헌법에 항거했다. 쌍용그룹 계열사인 종합상사에 입사해 18년간 기업생활을 마치고 95년 정계에 뛰어들었다.

96년 15대 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했다. 국민회의 원내수석부총무, 민주당 정세분석위원장, 제2정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안상영 3選 도전... '노풍' 변수

부산은 안상영 현 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노무현 바람'에 힘입어 한이현 씨 등 거물급 인사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김석준 부산대 교수, 노창동 사단법인 굿모닝부산 이사장, 이영근 부산 남구청장 등도 무소속

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해운항만청장 등 실무행정경험과 부산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인물.

안 후보는 최근 치러진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권철현 의원과 치열한 경합 끝에 12표의 근소한 차로 이겼다. 표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것은 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랜 관료생활로 이미지가 비교적 딱딱하다는 평가와 업무스타일에서도 포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본선경쟁력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거의 100%라는 전제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다. (중략)

이의근 현 지사에 박준홍씨 도전

경북은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된 이의근 현 지사와 전 대통령 조카인 박준홍 자민련 도지부장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의근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64)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지난 61년 청도군청 9급 말단으로 출발해 청와대 행정수석(94년)과 민선 경북지사를 두 번 역임했다.

이 후보는 특유한 성실성과 행정기획력을 인정받아 78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차출 근무(비서실 행정관)를 하면서 본격적인 승진의 기회를 잡았다.

이 후보는 당시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던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지방기획과장,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관선 경북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순한 인상에서 풍기는 친화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처리에서는 불도저로 통해 '영감 만족시키기 정말 힘들다'는 게 직원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김혁규 지사 '독무대' 예상

경남은 김혁규 현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았고 김두관 남해 군수가 자치연대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달 초 한나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된 김혁규 지사는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비즈니스 감각'을 두루 익혔다.

김 후보는 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졸업 후 경상남도 총무과, 내무부 지방재정과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공직을 그만두고 단돈 1,0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71년 '핵 트레이딩사'를 설립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에 성공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뉴욕한인회 이사장, 환태평양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기로 국내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 사정비서관(93년)을 거쳐 제27대 경상남도지사로 부임하였으며 그후 민선 제1·2기 경상남도지사로 연속 당선돼 이번엔 3선 고지에 도전장을 냈다.

대표이사 장명국

22

2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

자 치

주요 연구논문: 2002. 4. 18(426호)

현역 아성 도전할 새인물 없다

기초단체장(민주당)



2186-7



이주연



오 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십의백서 · 123

북구청장 후보는 김재균 청장을 비롯해 이춘범 시의원(전 시의회 의장)과 오주 시의회 의장 등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청장은 그동안 큰 무리없이 구정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재선 고지 점령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북갑·북을 지구당 위원장들과 당원들과의 깊은 인연이 없어 재공천을 쉽사리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박광태 의원과 오랜 친분관계를 자랑하는 이 의원(전 시의회 의장)과 오 의장의 공천권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경우 김 청장이 승리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김 청장이 각종 문화축제

등 전시성 이벤트 행정이 많았다는 지적이나 박광태 위원장의 거부감 등도 부담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25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광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 자미축제 등 북구만의 문화 자치 시책을 진행시켰다는 성과를 기반으로 '자치와 문화, 복지복구 건립' 등을 내세우면서 재선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복구 건설 가치를 내걸고 출마 입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내심 고민 중이다. 2년 후 총선 전망과 무관치 않다. 의리와 성실성을 토대로 오랜 정당생활을 하면서 쌓은 끈끈한 인맥이 가장 큰 강점이다. 때문에 자신이 나서야만 당내 가장 경쟁력 있는 강력 후보

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북구 살림을 지방과 중앙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획기적인 재정 지원 확충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당내 후보조차 이후 진로 결정 못해

오 의장은 2번에 걸쳐 시의장 역임 등에서 알 수 있듯 리더십과 돌파력 등은 돋보이나 강연균 화백과의 토지문제 소송으로 야기된 잡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때 구청장 출마의지를 접었던 것도 이같은 여론추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선 의지를 다지면서 갑·을 지구당 위원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8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주타임스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주 문 : (주)광주타임스사가 발행한 광주타임스 2002년 5월 2일자 1면『광주시장 이정일·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광주타임스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와 관련, 특정 당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표본오차를 한계(광주시장 : 95%신뢰수준 ±4.2%, 이정일33.4%, 고재유28.2%. 전남지사 : 95%신뢰수준 ±4.16%, 박태영20.6%, 허경만19.8%, 김영진19.44%)내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가 선두라고 제목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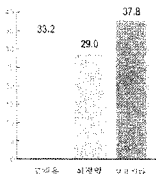
광주시장 이정일·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

광주타임스·CBS광주방송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2차 여론조사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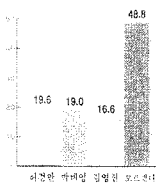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승재 후보 사퇴로 이재우 후보와 이정일 후보의 2강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정일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지사 경선에서는 경선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허경만·박태영·김영진 후보 간의 살얼음판 대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차 투표(결선 투표)가 실시될 경우 허 후보가 절대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장 당선 가능성



전남지사 당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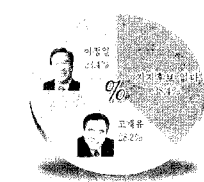
이정일과 고재유는 '도지사 경선에서는 민주당 위원들의 압력으로 살포 및 비리 폭로 등 막판 변수가 당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광주타임스와 CBS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도지사 경선 2차 투표에 대한 2차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광주시장 후보별 지지도



전남도지사 후보별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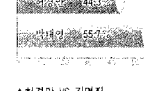


후보가 15.6%를 기록했으며, '도사 경선'에 대해서는 1%의 지지도를 얻지 못했다. '도지사 경선'에 대해서는 1%의 지지도를 얻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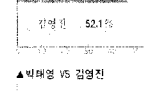
이날의 여론 조사는 광주타임스와 CBS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도지사 경선 2차 투표에 대한 2차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지사 가심 결선투표

▲허경만 VS 박태영



▲허경만 VS 김영진



▲박태영 VS 김영진



이정일 33.4, 고재유 28.2% 이승채씨 사퇴 반영된 듯 박태영 20.6, 허경만 19.8, 김영진 19.4% 막판 대혼전

전남 결선엔 김영진씨 앞서... 실제 부동층 20%대 1차보다 절반 줄어

특정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할 경우 허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는 '이정일'이 33.4%, '고재유'가 28.2%, '이승채'가 28.2%로 나타났다.

(주요 기사내용)

광주시장 이정일·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

이정일 33.4, 고재유 28.2% 이승채씨 사퇴 반영된 듯 박태영 20.6, 허경만 19.8, 김영진 19.4% 막판 대혼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승재 후보 사퇴로 고재유 후보와 이정일 후보의 2강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정일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지사 경선에서는 경선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허경만·박태영·김영진 후보 간의 살얼음판 대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차 투표(결선 투표)가 실시될 경우 허 후보가 절대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치러지는 시

도지사 경선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과 품목 살포 및 비리 폭로 등 막판 변수가 당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주타임스와 CBS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된 시·도지사 경선 선거인단에 대한 2차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33.4%로 고 후보의 28.2%보다 5.2%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힌 선거인단은 38.4%로 나타났는데 이 중 23.4%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12.8%는 '지지후보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응답. 실제 부동층은 23.4%로 집계됐다.

전남도지사 경선 지지도의 경우

박 후보 20.6%, 허 후보 19.8%, 김 후보 19.4% 등으로 1.2% 범위내에서 대혼전을 벌여 3명의 후보 모두 1차 투표때 낙승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특정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할 경우 허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후보간의 2차 투표에서의 득표율은 ▲허 후보가 박 후보와의 대결시 44.3%대 55.7%로 ▲허 후보가 김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에는 49.7%대 52.1%로 다소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 후보가 김 후보와 결선투표를 할 경우 김 후보가 박 후보를 55.9%대 44.1%로 11.8% 앞설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각 후보 진영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명부를 모 집단으로 체계적 우선표집(최초

의 표본단위만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표집간격을 두고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광주·

전남지역 선거인단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대 허용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광주는 $\pm 4.20\%$, 전남은 $\pm 4.16\%$ 이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39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2년 5월 8일자 1~3면 『강현욱후보 35표차 ‘극적 승리’』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예정자가 당선되었다며 도정에 대한 그의 포부, 정치역정, 향후 과제 등을 1면 톱(스트레이트)을 비롯 2면(사설, 해설, 인터뷰), 3면(해설, 만평)등 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강현욱 후보 34표차 ‘극적 승리’

민주당 도지사후보에 강현욱 의원(64·군산)이 선출됐다.

민주당 도지부는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선거인단 3천3백42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지사후보 선출대회를 실시한 결과, 1천6백83표(50.36%)를 얻은 강현욱 후보가 1천6백48표(49.31%)를 획득한 정세균후보를 35표차(1%)로 누르고 도지사후보로 당선됐다.

이로써 6·13 도지사 선거전은 민주당 강현욱 후보의 독주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군의 약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현욱 후보는 이날 당선소감과 후보연설을 통해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준 2백만 도민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전북발전과 꺼져가는 전북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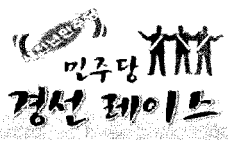
강 후보는 이어 “나를 도지사후보로 당선시켜 준 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와 12월 대선

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통한 정권재창출과, 전북경제를 밝게 만들라는 세가지 명령”이라며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세가지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박빙의 표차로 낙선한 정세균 후보는 이날 “더 많은 표를 얻은 강현욱 후보에 축하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도록 당원 모두 힘을 합치자”고 제언했다.

정 후보는 그러나 “이번 경선과

풍부한 경륜 '안정속 변화' 선택



결과 의미와 분석

7일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결국 당원과 도민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을 갖춘 강현욱후보를 선택했다.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 장관을 두차례 역임하고 88년 전북도지사를 지낸 강후보가 젊음과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정후보의 맹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린 것이다.

이날 두 후보의 승부는 후보진영뿐만 아니라 선거인단과 취재진까지도 손에 땅을 쥐게 한 일대 접전이었다. 3천3백

姜 후보 도지사 경험 '검증된 인물' 강점 새만금등 현안사업 추진 탄력 받을 듯

42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날 경선에서 개표결과 35표차, 전체 투표자의 1%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자 장래는 일순간 정좌에 이어 강후보측의 환호성이 터졌다.

당초 당내 기반이 탄탄한 정세균후보와 도민 지지에서 앞선 강현욱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면서 누가 도민의 표심을 잡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초반부터 서로 경선고지 선전을 향해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4차례에 걸쳐 한치 양보없는 살바싸움과 선거인단의 표심잡기에 사활을 건 접전을 펼쳐왔지만 결국 승리의 여신은 강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후보의 승인(勝因)은 안정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를 거친 경험과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 강후보의 큰 강점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지사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용담댐 축조와 새만금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전북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도민과 당원이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만금'이라는 별명처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사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참여한데다 환경문제로 새만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농수산위 국정감사를 전북도로 유치해가면서 의원들을

설득, 공사재개를 일궈낸 것도 도민에게 크게 각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경선에 정당사상 최초로 도민참여 경선제가 도입되면서 도민 공모당원 모집을 둘러싸고 양후보 진영이 치열한 동원경쟁에 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도입 취지는 좋지만 도정부 선관위에서 이예대한 보완책이 마흡, 양측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적잖은 부작용과 후유증도 양산한 것이 사실이다.

양측이 막대한 인력과 조직들을 투입, 도민 공모당원 모집 경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물품 항응제 공설도 난무, 향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완주와 김제지역에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순택기자
kwon@jeonbukilbo.co.kr

〈2002. 5. 8. 2면〉

이제 경선이 끝난 마당에 민주당 전북도지부와 강 후보의 과제는 막중하다. 그동안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띠다보니 각계의 특정후보 편들기와 지지선언등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반대 비방이 이어지면서 도내 사회 전반이 대립구도 형성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연학연 등의 계속된 반목을 좁은 지역사회에서 갈등 구도를 확산시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 후보측도 본사 주최 등의 토론회에서 약속했던대로 결과에 승복하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강 후보측은 승리의 만족에 앞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선거인단도 강 후보의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보고 한표를 던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공약한대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21세기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도약시키

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강 후보에게 주어져 있다.

민주당 도지부는 도민들이 지사 후보 경선 이후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신창이 모습으로 본선에 임할 때 본선에서 도민들의 표심(票心)은 냉엄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풍부한 경륜 '안정속 변화' 선택

7일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결국 당원과 도민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을 갖춘 강현욱 후보를 선택했다.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하고 88년 전북도지사를 지낸 강 후보가 젊음과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정 후보의 맹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린 것이다. (중략)

강 후보의 승인은 안정속에 변화

를 추구하는 지역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를 거친 경험과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 강 후보의 큰 강점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지사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용담댐 축조와 새만금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전북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도민과 당원이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만금'이라는 별명처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사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참여한데다 환경문제로 새만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농수산위 국정감사를 전북도로 유치해가면서 의원들을 설득, 공사재개를 일궈낸 것도 도민에게 크게 각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丁 후보와 긴밀협조 全北발전 함께 노력"

(전략)

“丁후보와 긴밀협조 全北발전 함께 노력”

강현욱 당선자 인터뷰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된 강현욱 당선자는 도민과 당원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꺼져가는 전북을 기필코 살리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또 경선에 참여한 정세균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능력을 평가받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면서 정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전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원 대의원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그분들을 만나 나의 강점을 확인시킨 것이 주효했다.

-강점은 무엇인가.
△행정경험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터득했다. 중앙에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도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을 예상했는가.
△지은 이기든 박방의 집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원 동지들이 있는데 (승리를) 1백% 예상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선과정에서 과열 흔적은 있었는가.
△획기적인 도민참여 경선방식이 도입됐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정치인과 국민들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경선 준비기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출세우기가 성행한 선거였다. 경선에 관계가 없는 단체나 사람들이 (상대후보의)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쪽이 섭섭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정세균후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여론을 남겼는데.

△당을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 경선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선거와 관련해) 양쪽에 재보된 것이 있으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재보를 일체 문제삼지 않

겠다.
-상대후보를 평가한다면.

△짧고 애환심이 있고 집착력도 강하다. 목표를 세우면 달성하고 포용력도 있다. 전북의 정치거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계속 협조해 상부상조 하겠다.

-도지사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무엇인가.

△도민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도민 각계각층과 정책

“

**투자유치·예산확보 등 주력
내륙·산간 균형발전 힘쓸터
각계각층과 협의 道政 수행**

”

을 협의해 도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겠다.

-경선 때 불거진 지역간 갈등을 통합하는 것도 시급한데.

△내륙과 산간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 정책을 세울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쪽에 하나하면 저쪽에 하나 하겠다.

-본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가능하면 각계 대표를 만나 도정방향을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 하겠다.

-덧붙일 얘기는.

△정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사랑받고 능력을 평가 받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

/강현기기자

khke@jeonbukilbo.co.kr

프로필

○학력

- △ 1945 ~ 1950=군산중앙초등학교
- △ 1950 ~ 1953=군산중학교
- △ 1953 ~ 1956=군산고등학교
- △ 1957 ~ 1961=서울대 외교학과
- △ 1997. 10=전북대 명예경제학박사

○경력

- △ 1961 ~ 1964=공공장교복무
- △ 1965=제3회 행정고시 합격
- △ 1977 ~ 1980=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 △ 1980 ~ 1982=주 사우디대사관 경제협력관
- △ 1982 ~ 1985=재무부 이재국장
- △ 1985 ~ 1987=청와대 경제비서관
- △ 1987 ~ 1988=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 1988 ~ 1990=전북도지사
- △ 1990 ~ 1991=동자부차관
- △ 1991 ~ 1992=경제기획원차관 및 남북고위급회담 경제대표
- △ 1992 ~ 1993=농림수산부장관
- △ 1996. 5=15대 국회의원
- △ 1996 ~ 1997=환경부장관
- △ 1999. 9=AIPO (아시아의원연맹) 한국대표단장
- △ 1999. 10=군산중·고 총동창회장
- △ 2000. 4=16대국회의원·민주당 당무위원
- △ 2000. 11=민생경제특별위원회장
- △ 2001. 1=재정관련 법안심사소위 간사
- △ 2001. 6=만경강 수질개선특위 위원장
- △ 2001. 9=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2. 5. 8. 2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원 대의원들을 많이 접촉하

려고 노력했다. 그분들을 만나 나의 강점을 확인시킨 것이 주효했다.

-강점은 무엇인가.

△행정경험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터득했다. 중앙에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도정 추진과 정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도지사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무엇인가.

△도민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도민 각계각층과 정책을 협의해 도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겠다.

-경선 때 불거진 지역간 갈등을 통합하는 것도 시급한데.

△내륙과 산간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 정책을 세울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쪽에 하나 하면 저쪽에도 하나 하겠다.

-본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가 능하면 각계 대표를 만나 도정방향을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덧붙일 얘기는.

△정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사랑 받고 능력을 평가받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

청렴성·포용력 겸비한 德將

관선 도지사와 장관을 두차례 역임한 강현욱 민주당 도지사후보 당선자.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그가 다시 낙후된 전북발전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역정은 장미빛 탄탄대로만을 걸

청렴성·포용력 겸비한 德將

강현욱은 누구인가

관선 도지사와 장관을 두차례 역임한 강현욱 민주당 도지사후보 당선자.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그가 다시 전북발전의 해답사를 지임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역정은 장밋빛 만만대로 만들 줄 아는 것만은 아니었다.

행정관료로서 잘 나가던 그는 92년 14대 총선에 이어 95년 신한국당 후보로 민선 도지사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가 정치인생에서 두 번씩 낙선의 고배를 맛보았다. 당시 도지사 선거전에서 강후보는 부인 박선순 여사 및 세 딸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어깨 띠를 두르고 눈물로 읊소하며 한 표를 호소했지만 지역정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강 당선자는 이제 다시 집권여당의 도지사후보에 당선됨에 따라 민선 도지사선거에 두번째 도전하면서 95년의 '한풀이'에 나선 것이다.



◇성장기

부친이 초등학교 교장직을 지낸 강현욱(당선자는 아홉 자를 따라 8살까지)은 초안 일라이비(당선)에서 보냈다. 강 후보는 그곳에서 만났던 대우와 소나무 숲에서 뛰노닐며 순수함과 정직함, 그리고 끈기와 비전을 주었다.

강 후보는 이후 부친이 교육청 장학사로 교장직으로 경진임명된 후인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후 군산 중·고에 진학했다. 중·고교 시절 평균 90점 이상을 올렸던 강후보는 1971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합격, 거친의 꿈을 버릴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문과전공생을 원하는 부친의 사정상과 함께 육필로 '동아일보'에 '여러나라의 세상'을 쓰다 지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5년1개월 동안의 강 후보는 가정으로선 가족의 생계와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때문에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과 가정교사를 해 번 돈을 통장통로로 부쳐왔던 것이다.

대학졸업후 강후보는 가족을 생계유지와 병역의무를 하기위해 원천공군공고 시험에 응시, 원공로 복무하면서 그스근바를 했다.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부에 타에서 전동보통을 빌려 자택에서 수험준비에 몰두한 결과, 마침내 69년 제2회 행정고시에 합격, 엘리트집단인 행정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관료시절

고시출신 가운데도 엘리트집단인 행정기획원에서 방위예산과장

과 내부팀장 예산과장에 이어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한 강 후보는 경제발전과 발전 기획인 예산실장과 재무부 이관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비서관과 기획의 차관으로 요직을 거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경제관료로서 입지를 다졌다.

88년부터 90년까지 전북지사로



역대 전북지사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강현욱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후보로 당선된 관선에 이어 민선도지사직에도 도전하게 됐다. (안봉주기자)

이론·실무 두루 섭렵한 정통 경제관료 관선 지사·장관 등 역임 '화려한 경력' 15대 총선때 호남유일 '황색바람' 극복

재임한 강현욱은 청렴성과 포용력을 갖춘 역량으로서 입지를 넓혔다.

당시 정치사 리서실장을 역임한 강현욱은 전 전북도 문화관광과장은 '한번은 도청 도공장이 술자리를 시비문제로 억압이 보도되는 등 파문을 빚자 국장을 초빙한 불려 금일봉을 전해주며 정권 대신 "다음부터는 술을 잘 먹고 다녀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일화를 전했다.

강 현 국장은 또 "일부 지인들이 도청수령에 방해하려다 조공적 전말에 온 문과 도지사직을 건너뛰어 간대적으로 받은 건별금을 모아 모두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며 강 후보의 청렴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현욱은 95년 15대 총선에서 도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6명의 역대 지사에 대한 평가에서 강후보는 최고의 고려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치역정

경제기획원 차관에 이어 농림수산부 장관직을 그만 두고 여당인 신한국당의 권유로 14대 총선때 군산에서 출마한 강 후보는 황색바람이라는 돌풍에 밀려 정치 인생에서

첫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96년 15대총선때 호남에서 유일하게 황색바람을 극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99년 문민정부에서 환경부장관에 발탁됐고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다.

전남·강현규기자



장을 역임한 강 후보는 경제관료의 꽃인 기획원 예산실장과 재무부 이재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비서관, 기획원 차관 등 요직을 거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경제관료로서 입지를 다졌다.

88년부터 90년까지 전북지사로 재임한 강 의원은 청렴성과 포용력을 갖춘 덕장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중략)

당시 월간조선에서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6명의 역대 지사에 대한 평가에서 강후보는 최고의 도백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정치역정

경제기획원 차관에 이어 농림수산부 장관직을 그만 두고 여당인 신한국당의 권유로 14대 총선때 군산에서 출마한 강 후보는 황색바람이라는 돌풍에 밀려 정치 인생에서 첫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96년 15대 총선때 호남에서 유일하게 황색바람을 극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96년 문민정부에서 환경부장관에 발탁됐고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다.

초선임에도 경륜과 역량을 인정받아 당 정책을 총괄하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맡기도했다.

2000년 2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강후보는 16대 총선에서 당선, 재선의원 반열에 올랐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7일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로 당선된 강후보는 6·13일 민선도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 7년전의 실패를 설욕하는 한편 전북의 희망을 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2002. 5. 8. 3면>

어 온 것만은 아니었다.

행정관료로서 잘 나가던 그는 92년 14대 총선에 이어 95년 신한국당 후보로 민선 도지사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가 정치인생에서 두 번씩 낙선의 고배를 맛보았다. 당시 도지사 선거전에서 강후보는 부인 박선순 여사 및 세 딸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어깨 띠를 두르고 눈물로 읊소하며 한 표를 호소했지만 지역정서의 벽을 넘지 못하

고 말았다. 그러나 강 당선자는 이제 다시 집권여당의 도지사후보에 당선됨에 따라 민선 도지사선거에 두번째 도전하면서 95년의 '한풀이'에 나선 것이다. (중략)

◇관료시절

고시출신 가운데도 엘리트집단인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예산과장과 내부법사예산과장에 이어 예산총괄과

안 건 번 호 : 2002자심40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림동 441
대표이사 최 준 명

주 문 : (주)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한 한국경제신문 2002년 5월 14일자 8면 『6·13지방선거 D-30 민주, 영남 진출 관심집중』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함.

이 유 : 한국경제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시장) 후보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를 등을 함께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민주, 영남진출 관심집중

6·13 지방선거 역시 기존 지역 선부의 편향된 발을 확충이 남아 있다. 그러나 6개월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각 정당과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영남권에선 민주당이, 충청권에선 한나라당이 각각 한나라당의 지방파와 '박정희'를 상대로 한투가 치열한 경쟁이다.

◆영남권=부산과 울산이 최대 경쟁지역이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한나라당 박맹우 전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지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한나라당 울산 결의대회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왼쪽)와 박맹우 전 울산시 건설교통국장(가운데)이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부산시장 한이현에 '盧風' 실릴지 주목 울산시장 민주당 송철호 선전 돋보여

가.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전해오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가 대통령선거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요시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내정된 한이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직은 보수적인 부산민심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지역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는 15.0%의 지지를 확보, 한, 박을 얻은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부산을 넘어 지방선거에 출마 후보로 삼고 진두지휘를 할 예정이어서 승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혁규 현 지사가 3선에 도전하고 있다. 13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두관 전 남해군수에게는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후략)

◆충청권=충북지사 선거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회창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지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충청권=충북지사 선거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회창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지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의지를 축하하고 있다.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영남권=부산과 울산이 최대 경쟁지역이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인 박맹우 전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지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3일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울산시장선거 결과에 정권교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며 울산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내정된 한이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직은 보수적인 부산민심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지역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는 15.0%의 지지를 획득, 49.4%를 얻은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부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삼고 진두지휘를 할 예정이어서 승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혁규 현 지사가 3선에 도전하고 있다. 13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두관 전 남해군수에게는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후략)

김혁규·울산=김혁규 기자
ksh@hankook.com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대표이사 최 준 명

주 문 : (주)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한 한국경제신문 2002년 5월 22일자 8면 『6·13지방선거 D-22 부산시장』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한국경제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장) 후보예정

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은 물론 조사한 언론사의 명칭과 공표일자조차도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안상영 질주 ... 한이현 추격

부산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민주당 한이현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무소속 노창동 후보는 한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 후보측은 현직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반DJ정서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당선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후보측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표가 몰릴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현지 민심=현지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안 후보 49.4%, 민주당 한 후보 15.0%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길거리 민심도 이와 비슷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한나라당 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들이 있었다.

자영업자 황운권씨(28)는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를 찍었지만 시장에선 안 후보를 지지한다"며 "시장 시절 대과가 없는데다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안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김운수씨(56)는 "한 후보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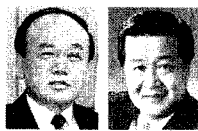
반면 택시기사 이현석씨(45)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면서 "노후보와 한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안상영 질주 ... 한이현 추격

부산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민주당 한이현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무소속 노창동 후보는 한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 후보측은 현직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반DJ정서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당선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후보측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표가 몰릴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현지 민심=현지언론의 여론



안상영 후보 한이현 후보

◆특보전락=안 후보측은 시장 시절 입지를 강조하는 한편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거론한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가 지난 97년 대선때 신한국당을 탈당,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따라갔던 사실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당당한 부산, 안정 속의 도약'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청채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할 방침이다. △극대경제개발

부산시장후보 주요공약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	민주당 한이현 후보
국제경협 추진단 구성	3천만평 규모 경제특구 건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신항만 조기 건설
제2중권거점소 설립	신규제조업 건설 추진
R&D예산 확대	시장경제권 90% 위임
1천억규모 지역경제육성기금 조성	

안상영 무난한 市政 ... 업적 집중홍보

한이현 "경제회생 적임자" 부각나서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안 후보 49.4%, 민주당 한 후보 15.0%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길거리 민심도 이와 비슷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한나라당 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들이 있었다.

자영업자 황운권씨(28)는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를 찍었지만 시장에선 안 후보를 지지한다"며 "시장 시절 대과가 없는데다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안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김운수씨(56)는 "한 후보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시기사 이현석씨(45)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면서 "노후보와 한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여 추진단 구성 △제2중권거점소 설립 △1천억원 규모의 지역경제육성기금 조성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한 후보는 경제수석을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현 시장인 안 후보의 장기집권으로 부산 경제가 침체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1천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건설 △신항만 조기건설 △신규제조업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장운재 부산 시장지원단 의장은 "한 후보의 도전 지지율 40%에 한 후보 개인지지율 15%를 더하면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독표전략=안 후보측은 시장시절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현 정부의 시정을 집중 거론한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가 지난 97년 대선때 신한국당을 탈당,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따라갔던 사실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당당한 부산, 안정속의 도약'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침체된 부산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제경제협력 추진단 구성 △제2증권거래소 설립 △1천억원 규모의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한 후보는 경제수석을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현 시장인 안 후보의 장기집권으로 부산 경제가 침체됐다

고 비판하는 한편 △1천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건설 △신항만 조기건설 △신국제공항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전력이다. 정운재 부산 사상지구당 위원장은 "노 후보의 고정 지지율 40%에 한 후보 개인지지율 15%를 더하면 필승"이라고 강조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3

언 론 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2년 5월 25일자 8면 『6·13지방선거 판세 전국 기초단체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조선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전국기초단체장(강원 춘천, 충북 청주) 선거와 관련, 판세분석을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은 물론 조사한 언론사의 명칭과 공표일자조차도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민주 "90여 곳" 한나라 "100곳 우세"
자민련 "충청에 주력"

각 市道 대표도시 시장선거전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각 시·도의 대표적 도시들의 시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강원 춘천 3선에 도전 중인 민주당 배계섭(裴桂燮·65) 현 시장과 한나라당 류종수(柳鍾洙·60) 전 국회의원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 최근 지역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류 후보가 지지도에서

24.4%로 배 후보(21.7%)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초·중·고·대학을 모두 춘천에서 나온 이들이지만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한나라당 류 후보는 자영업자와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반면, 민주당 배 후보는 20·30대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태섭(鄭泰燮·59) 현 시의회의장이 무소속

민주 “90여곳” 한나라 “100곳 우세” 자민련 “충청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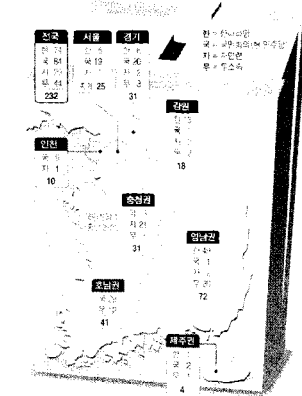
각 市道 대표도시 시장선거전

■ 1998년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수도 지방선거는 6월 13일로 각 시·도의 대표적 도시들과 시장 선거 전선도 뜨거워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경원권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도를 아우르는 4대 시·도별 대표도시 시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1998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1998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1998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장 윤곽



◆개표장서 점검
부산시장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장서 점검을 하고 있다.

충원 3선 도전 현시장·전의원 접전
전주·여수 무소속 후보 거센 도전
제주 현시장 단독출마 이번 가능성

부산시장선거는 6월 13일로 각 시·도의 대표적 도시들과 시장 선거 전선도 뜨거워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경원권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도를 아우르는 4대 시·도별 대표도시 시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1998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1998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
경북 포항은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여수
전남 여수는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 6곳·한나라 6곳·자민련 2곳 장악할듯

광역시·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도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민선 1기부터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100곳 이상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으로 나설 예정이다.

충북 청주 충북의 정치1번지답게 전직 국회의원과 행정부지사 등이 출마,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나기정(羅基正·65) 현 시장에 대해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한나라당 한대수(韓大洙·57) 후보와 초대 민선시장장을 지낸 무소속 김현수(金顯秀·65) 후보가 도전하는 3파전이다.

최근의 지역신문 여론조사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나 시장이 일단 앞서고 있으나 다른 두 후보 모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고 추격세 또한 만만치 않다. 자민련은 민주당 지원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중략)

기초단체장 윤곽 (전략)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영남권에서 절대 강세, 수도권·충청권에서 강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민주·한나라 당간 접전양상이다.

◆민주당
민주당측은 서울·인천·경기의 총 66개시·군·구 중 40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강북·도봉·노원·중랑구 등 강북지역을 중심

으로 10여 개구를 우세로 보는 등 지난 1998년(국민회의 19곳 승리)과 비슷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98년(41곳 중 29곳 승리)보다 목표를 다소 하향 조정했다. 호남권에서는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 때문에 의외의 고전 지역으로 떠오른 지역이 광주·동·북구, 전북 익산·정읍 등 5곳, 전남 여수·광양 등 5곳에 이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옥천·서산 등 3~4곳, 강원에서는 18곳 중 10곳이 우세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는 90여 곳을 우세 또는 박빙 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98년 84곳에서 승리했었다.

◆한나라당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강남·강동·서초 등 강남지역과 은평·양천구 등 9곳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8년 서울에서 5개 구청장을 낸 데 그쳤다. 인천·경기에서는 17곳을 우세로 분류해놓고 있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 전체적으로 98년의 11곳 승리보다 훨씬 더 많은 22곳 이상을 승리할 수 있

고, 10곳 이상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의 14곳, 충북 충주 등 6곳, 충남 보령 등 4~5 곳도 우세 또는 박빙 우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남권에선 민주노동당이 우세를 주장하는 울산 동·북구,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대구·경남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의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까지를 포함, 모두 100곳에서 우세 또는 박빙 우

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74곳에서 승리한 98년에 비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자민련

자민련은 다른 지역은 사실상 포기한 채 충청권 석권이 목표지만 곳곳에서 민주·한나라당 후보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98년 충청권 31곳 중 21곳을 차지했던 자민련은 이번에도 25곳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4

언 론 사 : 주식회사 울산매일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11-3

대표이사 정 길 남

주 문 : (주)울산매일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2002년 5월 25일자 1, 2면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위』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선거와 관련, ▲ 특정 당 후보자에 대한 그 당 관계자의 우호적 평가 발언(‘상품가치를 따져보면 월등’, ‘행정경험 우위’, ‘제1당 예산확보 유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폄하성 발언(‘행정경험이 전무’, ‘재판을 한다면 특정 후보가 앞설지 모르나 행정은 재판이 아님’ 등)을 주·부제목과 본문 여섯 꼭지를 통해 여과없이 인용보도하고, 그 당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부각시킨 데 반해 ▲ 위 발언에 대한 경쟁 후보예정자의 견해는 부제목과 본문 한 꼭지에서만 다룬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위”

한나라당 권기술 시지부장이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의 ‘1등 상품론’을 재차 거론하면서 울산시장

인물론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행정경험 박맹우후보 우위"

5.13 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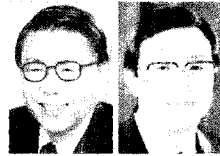
권기술 시지부장 '제1당 예산확보 유리'
송후보 "예산 정치홍정물 아니다" 지적

한나라당 권기술 시지부장이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의 '1등 상품'을 재차 거론하면서 울산시장 인물론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시지부 선대위 발대식에 이어 두 번째로 권 시지부장은 연말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게 될 '제1당'의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인지도에 비록 민노당 송철호 후보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꼼꼼하게 '상품'

가치'를 따져보면 한나라당 박 후보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권 시지부장은 21일 울주군 지구당 선대위원회 발대식에서 "박 후보가 상품가치가 훨씬 좋은데 포장과 디자인이 잘못돼 울산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지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포장을 다시 바꾸면 된다"고 역설했다.

권 시지부장이 박 후보 인물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점은 4가지로 요약. 우선 최종화력을 비슷하고 박 후보는 행정고시, 민노당 송 후보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행자부 공무원과 경남도에서 중앙·지방행정을 경험하



◇박맹우 후보 ◇송철호 후보

고 함안군수로 기초단체장 업무도 수행했으나 송 후보는 행정경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시지부장은 "재판을 한다면 송 후보가 앞설지 모르나 행정은

재판이 아니다"며 행정경험에서 상대적 우위를 내세웠다. 또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면에서 한나라당의 확실한 강세를 손꼽았다.

권 시지부장은 "박 후보는 133석이 넘는 제1당인 한나라당 후보인 반면 민노당은 단 한석도 없지 않는다"며 "중앙 정치권 무대에서 누구와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당 대 당의 대결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노당 송철호 후보측은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며 "제1당이기에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운임을 편곡해서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요구나 의사에 따라 편향하게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적한다. 김홍두 기자

〈2002. 5. 25. 1면〉



◇24일 중하체육관에서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가 '울산의 힘' 출판기념회를 열어 부인 신현주 씨와 손을 들어 참석자들에 답례하고 있다. 이상익 기자

"울산 비전 제시하고자"

박맹우 후보 '울산의 힘' 출판기념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의 '울산의 힘' 출판기념회가 24일 오후 6시 남구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윤두환 의원(북구)과 최수만 등구지구당 위원장, 시의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 2,000여명이 참석 박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 식전행사와 이어 MBC 성우 오숙희씨가 '산전하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공무를 수행하고 위대하다는 아랫사람에게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보이며 주위 공무원으로부터부터는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고 '저자를 소개

했다.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울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울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울산의 유래와 역사를 알게되면서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윤두환 의원, 최수만 위원장, 김부열 의원, 시지부 강철호 수석 부대변인의 축사가 진행되고 박관을 총재관한 대행과 석천원 대표 최고위원의 축전이 소개됐다. 김홍두 기자

시지부 선대위 발대식에 이어 두 번째로 권 시지부장은 연말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게 될 '제1당'의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인지도에서 비록 민노당 송철호 후보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꼼꼼하게 '상품가치'를 따져보면 한나라당 박 후보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권 시지부장은 24일 울주군 지구당 선대위원회 발대식에서 "박 후보가 상품가치가 훨씬 좋은데 포장과 디자인이 잘못돼 울산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지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포장을 다시 바꾸면 된다"고 역설했다.

권 시지부장이 박

후보 인물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점은 4가지로 요약. 우선 최종화력은 비슷하고 박후보는 행정고시, 민노당 송 후보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행자부 공무원과 경남도에서 중앙·지방행정을 경험하고 함안군수로 기초단체장 업무도 수행했으나 송 후보는 행정경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시지부장은 "재판을 한다면 송 후보가 앞설지 모르나 행정은 재판이 아니다"며 행정경험에서 상대적 우위를 내세웠다. 또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면에서 한나라당의 확실한 강세를 손꼽았다.

권 시지부장은 "박 후보는 133석이 넘는 제1당인 한나라당 후보인 반면 민노당은 단 한석도 없지 않는다"며 "중앙 정치권 무대에서 누구와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당 대 당의 대결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노당 송철호 후보측은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며 "제1당이기에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운

〈2002. 5. 25. 2면〉

영을 편향되게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요구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적했다.

“울산 비전 제시하고자”

박맹우 후보 ‘울산의 힘’ 출판기념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의 ‘울산의 힘’ 출판기념회가 24일 오후 6시 남구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윤두환 의원(북구)과 최수만 동구지구당 위원장,

시의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 2,000여 명이 참석 박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 식전행사에 이어 MBC 성우 오숙희 씨가 “신선하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공무를 수행하고 위보다는 아랫사람에게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보이며 주위 공무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고 저자를 소개했다.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울산에서 오

랫동안 근무하면서 울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울산의 유래와 역사를 알게되면서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윤두환 의원, 최수만 위원장, 김무열 의장, 시지부 강정호 수석 부대변인의 축사가 진행되고 박 관용 총재권한 대행과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의 축전이 소개됐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9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81-2
대표이사 박 운 품

주 문 : (주)대구일보사가 발행한 대구일보 2002년 5월 29일자 4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첫 날』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대구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정을 알리면서 특정 후보자는 얼굴사진과 후보자등록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다른 후보자는 이를 누락함으로 인해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7년간의 도정 평가 대선승리 기반구축

한나라당 이의근

한나라당 이의근 경북도지사 후보는 28일 오전 노병용 선대위원장, 박종덕 선대본부장 등 캠프관계자 등과 경북도선관위에서 후보등록 절차를 밟고, 선관위 직원들을 격려했다.

선관위에서 캠프로 돌아온 이 후보는 사무소 현판식에서 “우리의 목표인 전국 최고득표를 꼭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포항의 자신의 선거연락사무소 현판식에 참석,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해선 “유럽도 통합하는 시대가 아니냐”고 되묻고 “이런 마당인데다 통합

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러면서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50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2년 5월 31일자 3면 『전북 살리려면 제대로 인물 뽑아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정을 알리면서 특정 후보자의 정당연설회 사진만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5조(사진게재)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강현욱후보 첫 정당연설회 30일 민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가 남원역 광장에서 당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당연설회를 갖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북 살리려면 제대로 인물 뽑아야”



표발언장

“地選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

◇ 민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의 첫 정당 연설회가 30일 오전 10시 당원과 지지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역 광장에서 열렸다.

강현욱후보에 연설회원으로 나선 이광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욱 도지사후보는 전설을 통해 “공정선거의 제13대 국회에 큰 공적”을 올렸음을 소개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권을 잡을 아젠다로 “도지사후보가 당선되면 이광래 국회의원이 할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명박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뽑아야 균형발전”

◇ 한나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의 첫 정당 연설회가 30일 오전 10시 당원과 지지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역 광장에서 열렸다.

강현욱후보에 연설회원으로 나선 이광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욱 도지사후보는 전설을 통해 “공정선거의 제13대 국회에 큰 공적”을 올렸음을 소개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권을 잡을 아젠다로 “도지사후보가 당선되면 이광래 국회의원이 할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명박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를 그리며 함께 살자”

◇ 민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의 첫 정당 연설회가 30일 오전 10시 당원과 지지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역 광장에서 열렸다.

강현욱후보에 연설회원으로 나선 이광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욱 도지사후보는 전설을 통해 “공정선거의 제13대 국회에 큰 공적”을 올렸음을 소개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요 기사내용)

“地選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

◇ 민주당 강현욱 도지사후보의 첫 정당 연설회가 30일 오전 10시 당원과 지지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역 광장에서 열렸다.

정당연설회에 연설회원으로 나선 이광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2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기약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현욱 도지사후보는 연설을 통해 이형배 의원과

의 지난 15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친분을 소개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과 3선 국회의원의 경륜을 갖춘 이형배 시장후보가 같이 당선되어 이강래 국회의원·강현욱 지사·이형배 남원시장이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형배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뽑아야 균형발전”

◇…한나라당 라경균 도지사후보는 30일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에서 개인연설회를 가진데 이

어 무주 안성과 장수를 진안정천 주천지역 10일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한 표를 부탁.

라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었지만 전북도가 오히려 부채만 늘고 각종 국가기관도 광주 전남에 빼앗겼다”며 “견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줘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

릴레이 거리유세 ‘동분서주’

◇…무소속 손주향 도지사후보는 30일 전주 객사와 남전주전화국사거리, 한국은행 전주지점, 금암분수대, 덕진공원, 전주 이마트 앞 등 전주에서 릴레이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세 확산에 총력.

손 후보는 이날 개인 연설회를 통해 “그동안 도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 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서 왔지만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며 “전북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



안 건 번 호 : 2002자심52

언 론 사 :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시 연동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주 문 : (주)제주일보사가 발행한 제주일보 2002년 5월 30일자 21면 『후보마다 ‘내가 적임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함.

이 유 : 제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3회 전국기초단체장(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의 동정을 알리면서(사진 및 스트레이트) 특정 후보자에 한해서만 인터뷰형식으로 그의 치적과 포부등을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29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귀포시장 후보 2명을 비롯해 광역의회 후보 8명, 기초의회 후보 16명 등 모두 26명이 출사표

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판식 갖고 선거전 돌입

○…서귀포시장 후보로 나선 무소속 강상주 후보(48)는 이날 오후 1시 옛 중앙파출소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는 이제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서귀포를 젊어지고, 능력과 정열을 남김없이 쏟아내며 무한경




무소속 강상주 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1시 옛 중앙파출소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있다.

서천년민주당 이영두 시장 후보가 29일 봉동읍 주공5단지 오일시장 통치록 방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목차저부

후보마다 “내가 책임자...”

선택2002

표 명 형 6 13년 5월 14

이영두 시장선거 후보가 봉동이 다량인 결과 서귀포시장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귀포시장 후보 2명을 비롯해 관여의회 후보 8명, 기호의회 후보 16명 등 모두 24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판식 갖고 선거전 돌입

서귀포시장 후보로 나선 무소속 강상주 후보(48)는 이날 오후 1시 옛 중앙파출소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는 이제 미래를 위한 원천 도약의 시대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서귀포시를 찾아와 그 영광과 영광을 감당해야 할 시대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초반부터 이 시대를 위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앞장서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 후보는 또 오후 4시 30분에는 서귀포오일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오일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선관위에 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勢 과시로 교통혼잡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지난 28일과 29일 잇따라 선거사무소 현판식 및 출정식을 가지면서 선거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옛 중앙파출소 주변이 교통혼잡으로 몸살

무소속 강상주 후보

지난 4년간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굼직굼직한 성과도 많았다.

국비 등 중앙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3년 연속 2,200억원대의 예산시대를 열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발전사업에 5,819억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과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망 확장사업 등 지역개발 투자환경을 조성했다.

서귀포시장 후보 출사표

“시민 행복 극대화할 터”

이영두 새천년민주당 서귀포시장 후보(53) 진영은 지난 28일 저녁 선거사무소 현판식 및 출정식을 놓고 많은 지지자들이 참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무척 고무된 분위기.

이 후보는 29일 동홍동 주공5단

쟁시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줄 것”을 호소.

강 후보는 또 오후 4시 30분에는 서귀포오일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오일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활동을 전개.

한편 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선관위에 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勢 과시로 교통혼잡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지난 28일과 29일 잇따라 선거사무소 현판식 및 출정식을 가지면서 선거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옛 중앙파출소 주변이 교통혼잡으로 몸살

두 후보들의 현판식에는 수많은 이들이 참석하면서 일부 도로가 마비돼 이 일대 교통체증이 벌어지는 가 하면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발생.

이를 두고 시민들은 “초반부터 세 과시를 위한 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도 아니고 각 진영이 멋대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

오일시장 등 거리유세 전개

이영두 새천년민주당 서귀포시장 후보(53) 진영은 지난 28일 저녁 선거사무소 현판식 및 출정식을 놓고 많은 지지자들이 참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무척 고무된 분위기.

이 후보는 29일 동홍동 주공5단

지와 오일시장 등지를 방문. ‘도시개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오형선 후보(기초의회 동홍동 선거구)와 오충남 후보(광역의회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의 선거사무소 현판식에도 참석.

이 후보는 또 이날 언론사 시장 후보 토론회에 대비해 선거공약, 시장 현안 등을 꼼꼼히 챙기는 데도 열성. (후략)

서귀포시장 후보 출사표 “시민 행복 극대화할 터”

무소속 강상주 후보

지난 4년간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굼직굼직한 성과도 많았다.

국비 등 중앙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3년 연속 2,200억원대의 예산시대를 열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발전사업에 5,819억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과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망 확장사업 등 지역개발 투자환경을 조성했다.

또 ‘도로혁명’을 비롯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감귤·관광·교육·복지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민선 2기의 성과를 제대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그리고 국비 절충능력 등을 갖춘 지도자만이 서귀포시민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꿈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행복이 되고자 서귀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서귀포시의 10년 발전을 앞당겼던 경험을 살려 100년을 내다보는 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2. 경 고

안 건 번 호 : 2002자심7

언 론 사 :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대표이사 설 용 수

주 문 : (주)세계일보사가 발행한 세계일보 2002년 2월 22일자 28면 『시장님 시장님 ‘철새’ 시장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세계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최기선 현 시장의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철새정치인’, ‘철새시장’ 등의 표현을 적시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유권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 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최 시장이 자민련을 탈당한 다니 철새정치인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자민련 탈당을 선언하자 인천시민들은 그의 변신에 대해 “최 시장에게 명분을 중요시하는 도덕성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련으로 옮겨 “인천시의 자민련을 위한 활동이고 중요 사안들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의 시장은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여당이 왜냐하면 더 이상 자민련에 남았 있을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밝히며 “추진했으니 이는 ‘철새정치인’의 변신

파발마



에 불과한 뿐이다.

그는 또 “왕도권의 성공적 개척, 인천공항 제2터미널건설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현안을

약할 수 없어서 탈당했다고 말했더라도 솔직하다는 평을 받았을 것이다. 최 시장은 일단 다른 당으로의 입당이나 출당 여부 등 향후 정치입장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언급을 회피했으나 주변에 있는 민주당에 입당한 뒤 시장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 그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을 타당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첫번째 변신으로 ‘해성애’ 성공당사마를 세 시장이라고 칭한 최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해 성공당의 재출마를 할지 /인천=여승철기자

시장님 시장님 ‘철새’ 시장님

(주요 기사내용)

시장님 시장님 ‘철새’ 시장님...

“최 시장이 자민련을 탈당한다니 철새정치인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자민련 탈당을 선언하자 인천시민들은 그의 변신에 대해 “최 시장에게 명분을 중요시하는 도덕성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련으로 옮겨

“인천시와 시민들을 위한 탈당이고 중요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최 시장은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여당이 와해돼 더 이상 자민련에 남아 있을 의미가 없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철새 정치인’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는 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인천공항 제2연륙교건설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당적을 버린다”고 덧붙였으나, 이런 논

리라면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은 모두 야당 당적을 버려야 하고 ‘야당 지자체장’은 존재가치가 없는 셈이다.

차라리 자민련으로는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기약할 수 없어서 탈당한다고 말했더라면 솔직하다는 평은 받았을 것이다. 최 시장은 일단 다른 당으로의 입당이나 출마여부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언급을 피했으나 주변에서는 민주당에 입

당한 뒤 시장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시장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인 그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첫번째 변신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철새 시장’이라고 각인된 최시장이 이번 선거에서도 ‘3선’에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14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상일보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원 호

주 문 : (주)경상일보사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2년 2월 27일자 3면 『1천여명 성향...선거출정식 방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출마예정자인 특정인의 저술동기가 불투명한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출정식방불’, ‘후보경선 필승·압승’ 등 선거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1천여명 성향 ... 선거출정식 방불

한나라당 울산시장후보 경선주자인 강길부 전 건설교통부차관(60)이 26일 개최한 저서 ‘땅이름 울산사랑’ 출판기념회에 1천여명(주최측

1천500명 추산)이 몰려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5시 남구 삼산동 근로자총합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출판

출판기념



일시 : 2002년 2월 26일(화) 오후

강남부 전건설교통부차관의 '땅이름 울산사랑' 출판기념회가 26일 근로자종합복지회에서 열려 김광무기자 woori@sibo.co.kr의 취재를 하고 있다.

1천여명 성황...선거 출정식 방불

강남부 전차관 '땅이름 울산사랑' 출판기념회
정·관계등 축하 인사 행사장 매워
"큰 격려에 용기 시장경선 압승 자신"

한나라당 울산시장추진위원장 조해영 전 행정고시 동기)과 심완구 울산시장 등이 축하를 했고, 김무열 시의장을 비롯한 당소속 시·구의원, 고향인 울주군 상북과 언양 주민 등 강전차관과 인연이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행사장 북도까지 가득 메웠다.

또 한나라당 최병국 국회의원(울

산남)을 비롯해 하순봉·강재섭·박희태·박근혜 부총재 등 많은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특히 최의원은 장문의 축전을 통해 "공직생활동안 강차관의 청렴과 강직, 그리고 울산사랑을 보았고,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진정한 울산인

만이 "큰 용기를 얻은 만큼 시장후보 경선에서 필승, 압승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땅이름 울산사랑'의 저술동기를 △향토울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울산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향토울산에 대한 자부심 고취 △지명명을 통한 향토울산의 문화창달 염원 △땅이름 연구의 학문적 체계 확립 등 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lsankang.pe.kr)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의 기개와 감성을 이 책의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1시간 30분가량 다양한 식순에 의해 진행됐는데, 행사장을 지킨 울산시선관위측은 "사전안내대로 선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등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 전 차관은 출판기념회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내 곳곳에서 열린 대보름행사와 겹치는 데도 성황을 이루도록 참석 및 격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큰 용기를 얻은 만큼 시장후보 경선에서 필승, 압승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땅이름 울산사랑'의 저술동기를 △향토울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울산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향토울산에 대한 자부심 고취 △지명명을 통한 향토울산의 문화창달 염원 △땅이름 연구의 학문적 체계 확립 등 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lsankang.pe.kr)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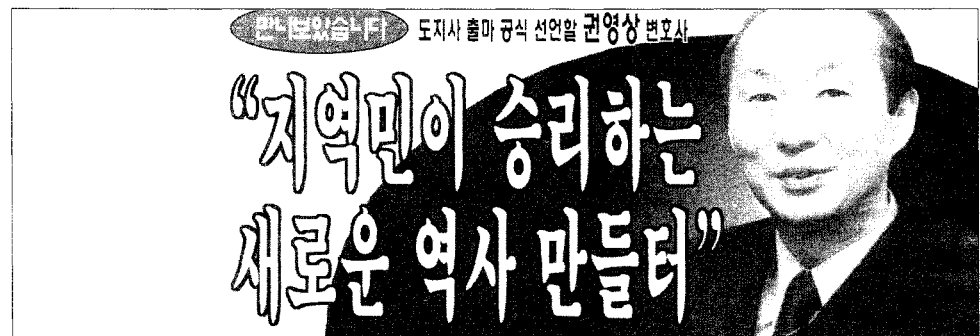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시사신문사
경남 창원시 중앙동 96-2
대표이사 정 길 용

주 문 : (주)경남시사신문사가 발행한 경남시사신문 2002년 2월 6일~19일자 1면, 14~15면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경남시사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이력과 도정에 대한 포부를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1면〉 기사



(주요 기사내용)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혹시 비아그라 사용하시는지...”

“비아그라요? 제 머리를 보세요. 필요하겠는지...하하하”(사진의 적은 머리술이 남성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를 암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혁규 지사와 더불어 강력한 도지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권영상 변호사.

‘서울법대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두뇌이자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라 딱딱한 분위기의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던진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권 변호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치있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질문을 한 기자가 오히려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셈이다.

이렇게 그와의 장장 4시간에 걸친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

권 변호사는 54년 경남 의령 신반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친 역시 서울대 출신으로 초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58년경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이후 자유당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갖은 탄압이 이어졌고, 경영해온 도정공장을 권모, 남모(현 도의원 부친)씨에게 물려주고 초야에 물렸다.

기운 가세 때문에 친척의 도움을 받은 그는, 대구 계성중·고를 무사히 졸업하고 선친의 뒤를 이어 서울대 진학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삼수 끝에 합격해 법대 수석합격(1학년 교양과목 성적순으로 2학년부턴 전공학 선택)과 수석졸업이란 영광을 차지했다.

정의 사회 건설 위해 변호사 개업 졸업 후 모교에서 10년간 후학을

양성하던 중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민법담당 전임교수 내정과 당시 한림대 현승종 총장의 교수 초빙 제의를 물리치고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간접역할에서 직접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94년 창원에 둥지를 튼 이후 경남장애인복지연구소장, 창원 YMCA 이사장, 경남포럼 회장 등 25개가 넘는 사회단체를 창립하고 관여해오면서 ‘살기 좋은 경남 건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이회창 총재 개인 법률 보좌관 역할

그는 지난 97년,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와 우연이면서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그후부터 이 총재의 개인 법률 보좌관 역할을 맡아 전국을 누비면서 민원을 해결해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김혁규 지사의 재출마결과 이강두 한나라당 도지부장의 지사 경선설이 계속 있는데도 권 변호사의 도지사 출마

이들을 제치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받을 가능성은 몇 %나 가능한지요.

- 글쎄요. 그분들의 행보에 가타부타 말씀드릴 입장은 안됩니다. 확실한 것은 저 역시 그들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면에선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16명의 지구당 위원장 중에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강두 지부장과는 조만간 만나서 조율할 작정입니다.

■김 지사의 경영도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법원앞 엿장수의 장사가 안된다고 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직접 나서서 도와주면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엄청난 것이 자명합니다. 비근한 예로 도가 설립한 모 IT업체의 관급 수주 독식으로 민간 IT업체의 참여기회가 축소되어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특히 택시를 노란색으로 획일적으로 도색한 것은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구성원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사회의 처우문제라든지 강제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이에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가장 잘 하는 도지사보다는 도민과 동료 직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명퇴를 겪어야 하는 이들과 가족들의 뼈저린 아픔과 절박함을 헤아리고 남는 자와 떠나는 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1인과 일일이 만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 한을 풀고 떠나가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또한 퇴직자들을 정례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고 효율적인 도정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지사의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요.

- 시사신문에 따르면 도지사 부

부 단둘만의 공간에 지나지 않던데, 사실인지... (관사기사를 쓴 기자에게 반문해와 '거의 그렇다'고 답함) 그렇다면 당연히 공익시설 용도로 전환해 도민들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산업화 시대입니다. IT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나요?

-KAIST 창원분원 유치를 위해 대전 KAIST 본원 '테크노 경영학원'에서 수학해 개인 홈페이지 정도는 직접 제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략)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혹시 제가 경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이회창 총재 대통령 만들기에 전념할 것이며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 동고동락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인터뷰를 마친 후, 사진촬영 도중 카메라 뷰파인더에는 권위있던 권 변호사는 오간데 없고 어느새 첫 선을 보러온 듯한 어느 촌각시의 밟그스레한 볼과 수줍은 미소만이 한아름 들어왔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28

언 론 사 : 주식회사 안산포커스사
경기도 안산시 이동 594-5
대표이사 여 성 권

주 문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안산포커스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인 특정인이 또 다른 후보예정자(현 안산시장)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면서 자신이 소속 정당의 후보가 되어 본선에 나서야만 소속정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9조(인용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4 2002년 3월 7일 제262호

안산포커스

김장훈 도의원 기자 회견

젊은 안산시장 역설

“비개혁적이고 정체성없는 박시장은 본선에서 승리 못해”

김장훈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시장후보가 돼야 하고 안산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김장훈 의원은 젊고 깨끗한 자신이 안산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후보를 승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개혁이미지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박성규 시장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장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나이라도 많고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후보를 내세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자신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에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하며 “지금 나의 인지도가 낮지만 4년전 박성규 후보는 지금 나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았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박시장은 정체성도 없고 개혁적이지도 못하다”며 “박시장이 아닌 깨끗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선출해야 본선에서 민주당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고 주장했다.

김장훈 의원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것은 2년후 국회의원선거나 4년후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이후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여러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선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자신보다 박시장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박시장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조카를 시장 비서로 앉히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시장으로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박시장이 당선된 후 오는 12월 선거에서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시장이 한나라당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박시장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나라당에 충성해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 정치입신을 위해 99년 시장 선거를 비롯해 여러차례 단체장과 총선후보가 되고자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출마해야만 상생작업을 일으켜 민주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번역환기자

pen@asfocus.co.kr

이 안산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후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개혁이미지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박성규 시장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장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나이라도 많고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후보를 내세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자신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에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하며 “지금 나의 인지도가 낮지만 4년전 박성규 후보는 지금 나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았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박시장은 정체성도 없고 개혁적이지도 못하다”며 “박시장이 아닌 깨끗하고 개혁적인 후보를 선출해야 본선에서 민주당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훈 의원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것은 2년후 국회의원선거나 4년후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이후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여러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선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

(주요 기사내용)

젊은 안산시장 역설

김장훈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시장후보가 돼야 하고 안산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김장훈 의원은 젊고 깨끗한 자신

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자신보다 박시장의 지도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박시장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조카를 시장비서로 앉히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시장으로서는

승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박시장이 당선된 후 오는 12월 선거에서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시장이 한나라당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박시장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나라당에 충성해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 정치입

신을 위해 95년 시장선거를 비롯해 여러차례 단체장과 총선후보가 되고자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출마해야만 상승작용을 일으켜 민주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1

언 론 사 : 주식회사 강원리뷰사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1
대표이사 석 영 준

주 문 : (주)강원리뷰사가 발행한 강원리뷰 2002년 5월 20일~26일자 14~15면 『김지사 재선 '영동권 단결 한 목소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강원리뷰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강원도지사) 선거가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양자대결로 압축되었다며 그들 중 특정 지역 출신인의 당선을 위해 그 지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여과없이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김지사 재선 '영동권 단결 한 목소리'

오는 6·13 도지사선거는 김진선 現 지사와 남동우 前 부지사의 양자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김지사의 재선 여부에 영동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민선 2기 도지사선거는 지난 도교육감 선거와 같은 영동지역 인사와 영서지역인사의 양자대결이 이어져 영동지역 주민들의 김 지사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높아지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원주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따라 선거전의 향배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지사는 지난

4년동안 별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어왔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를 가시화시키는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지사는 소신과 원칙주의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야 할 것”이라며 “김지사의 재선은 동해시뿐 아니라 영동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영동지역민이 응집력을 보여 영동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희진(44 남)씨는 “영동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자부심과 애郷심을 키워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된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영동지역민의 단결을 요구했다.

삼척시 정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희숙(26 여)씨는 “지난 도교육감 선거에서 장총장의 아쉬운 패배는 영동지역민의 단결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민이 합심할 때 교육뿐만 아니라 시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삼척주민들은 영동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키워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된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 이번 도지사선거에 단결된 표심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도교육감선거는 장태연 삼척대총장과 한장수 前 양구교육장의 양자대결로, 영동과 영서의 선거전이 됐으나 영동지역 투표인단의 응집력 부족으로 김병두 교육감에 이어 영서지역인사에게 또다시 교육감 자리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도교육감선거에서의 득표현황을 보면 한 도교육감이 춘천에서 85.13%, 홍천 78.13%, 횡성 60.08%, 철원 80.33%, 화천 84.46%, 양구 96.03%, 인제 77.35% 등 영서지역에서는 단연 우세를 보였으며 여기에 춘천교대출신들의 조직력이 가세하면서 강릉에서 28.75%, 속초 38.92%, 태백 32.74%, 고성 36.75%, 양양

36.2% 등 영동지역에서도 30%안팎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한교육감은 장총장의 출신지역인 동해에서 27.95%, 삼척 20.47%를 획득 영동지역 유권자들마저 장총장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동, 영서 대결이 될 경우 대부분 영동쪽으로 표심이 기울어지는 원주지역에서도 53.34%의 득표율을 기록, 원주권의 정서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번 지사선거도 영동과 영서의 인사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만큼 영동권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김 지사를 몰아주느냐와 원주권의 표심향배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였듯이 영동지역민의 결집력 부족은 영동지역의 소외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역민의 결속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영동지역민의 결집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5

언 론 사 : 주식회사 통영시민신문사
경남 통영시 문화동 104-1
대표이사 김 중 규

주 문 : (주)통영시민신문사가 발행한 통영시민신문 2002년 4월 26일자 12면 『통영 도의원 출마자에게 듣는다 ①』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통영시민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광역의원(경남도의원) 출마예정자인 특정인의 정치철학,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전면을 할애해 부각 보도한 것

은 바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어민으로서 수산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며 통영수산 진흥을 위해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각종 경기단체에도 가입하여 통영체육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도 해왔으며 사회 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십 수년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어민의 어려움을 경남도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배정시키며 각종 역점시책을 개발하여 진정한 통영의 대변자, 일꾼, 머슴이라는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과 시의원과도 수시로 접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통영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 발로 뛰는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정당생활은 오래했으나 행정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직은 어떻게 원만하게 할 것인가

제 견해로는 도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방위는 군인이,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듯이 행정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에는 말썽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통영시청에는 800여 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저희 통영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는 이들 공무원들과 함께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는 시장과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행정은 이들 공무원과 시장, 시의원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경남도의회에서 통영시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통영지역에 투자 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펼치는 시장과 시의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통영시민 등 각계각층의 답답한 곳을 수렴하여 경남도청과 관계부처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랜 정치경험과 수산업을 해 본 전문가로서 그리고 풍부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의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한마디로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정당생활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는 정권도 내주어야 하는 엄청난 수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 김운근은 큰 시련이 있을 때에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일개 당원으로 출발한지 12년여 만에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당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수산업에 종사한지 5년여 만에 경남어민후계자 사무처장과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많은 곳에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발디딘 곳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난관이 부딪혀와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시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수산거점도시인 통영에는 기선권 현망수협을 비롯하여 굴수협, 근해통발수협, 우렁챙이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전국 수산업의 중심도시로서 통영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IMF 이후 소비위축 등 외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수년 전부터 통영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침체된 통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과제보다는 복합적인 과제에 두루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난개발식으로 추진되는 단편적인 개발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짜여진 대로 추진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산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바다환경을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적조나, 청수대, 독수대에 대해서는 대학교 및 민간연구소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대책마련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어장정화사업도 확대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어민들의 생산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항개발과 도서지역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서지역 기반시설, 차별화된 관광상품 등을 통영시 전역에 두루 연계시키는 관광벨트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의 통영경제는 한마디로 개
구리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 한번
움츠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교하
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민들은 자연으
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누려왔
습니다. 그러나 한중, 한일 어업협
정으로 많은 조업지를 상실하여 통
발업계의 연쇄도산 등 어민들의 소
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까지 산양읍 일대에 총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
여 연차적으로 조성 중인 바다목장
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장시
설이 완료 되는대로 바다목장의 관
광지화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는 1
일 생활권에 들어가 수도권의 엄청
난 관광객이 사시사철 한려수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평인산업도로, 미륵도관
광특구 개발계획 등 많은 대형사업

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미래
통영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통영바다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영경제는 전국의 수산거
점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을 향
해 활기차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김운근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6

언 론 사 : 주식회사 울산종합신문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08-18

대표이사 홍 성 조

주 문 : (주)울산종합신문사가 발행한 울산종합신문 2002년 5월 1일자 4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와 2002년 5월 17일자 3면 『엄청섭후보 지지도 꾸준히 상승 각 당 후보 골고루 출마, 접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울산종합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주군수) 출마예정자인 특정인의 이력과 정치포부 등을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출마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

이제 행정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말 그대로 성숙된 ‘지

방자치’는 경영자(자치단체장)가 자치단체를 얼마나 잘 ‘경영’해 나가느냐가 관건. 올 6.13 지방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책임자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이 요구되고 있다. 울주군수 한나라당 후보로 나

선 엄청난 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62). 엄 전 부시장은 “주식회사 울주군의 영업부장 겸 시장이 되어 실천, 실적 경영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

4

만남 · 시각

충청남도 · 임영섭 군 울산공역, 정무부시장(한나라당 울주군수 후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임영섭 군수 후보는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울주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울주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임영섭 군수 후보는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울주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정무부시장 역임한 통상전문가 외국기업 유치, 울산 특산품 판로 개척

울산시 정무부시장 역임한 통상전문가 임영섭 군수 후보는 “울주군수직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울주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군정수행은 물론 앞으로 울주군 주식회사의 상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경영 마인드는 기본입니다.”

“기본 군정수행은 물론 앞으로 울주군 주식회사의 상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경영 마인드는 기본입니다.”



울주군 주식회사 영업부장 역할 다짐 더불어 함께 하는 살기좋은 울주 건설

“기본 군정수행은 물론 앞으로 울주군 주식회사의 상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경영 마인드는 기본입니다.”

“기본 군정수행은 물론 앞으로 울주군 주식회사의 상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경영 마인드는 기본입니다.”

임한 통상전문가로서 고향인 울주군을 위한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의 각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울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한나라당에서 저를 울주군수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펼쳐질 행정수요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울주의 새 일꾼을 자처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수는 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울주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울주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일꾼’을 자처했는데 기존 행정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울주군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겸 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주인 울주군민에게는 보다 많은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일즈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통상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십분 발휘해 외국과의 통상 외교에도 앞장서 든든한 행정을 펼쳐 살기 좋고,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군을 만들어 울주군민들로부터 ‘역시 행정전문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실천, 실적 경영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는 식의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군민이 집착하도록 군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직을 맡으면서 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한 3여 년 동안 울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외국기업의 울산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고용안전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여겨 수 차례 해외를 오가며 외국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트라이게트사와 울산지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프랑스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 유치 또한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입니다. 세계 각국의 본선진출팀의 준비캠프 유치를 두고 월드컵 개최도시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울산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준비캠프 설치에 따른 최적의 조건을 내세워 울산을 적극 홍보한 결과 스페인, 터키, 브라질 등 우승 후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월드

컵 특수를 2개월 이상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25일 첫 취항한 울산~일본여객선 울산돌핀호가 탄생하게 된 것도 제가 재임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특히 외자유치 등 통상활동이 초등4학년 교과서에 실려있기도 하는데 울주군정과는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입니까?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울산의 산업, 문화, 관광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대외통상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앞으로 울주군의 문화, 관광, 대외수출 등 울주 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베를린 농업박람회에서 울산배를 출품해 유럽시장 판로를 최초로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당시 독일과 폴란드 수출상담에서 10만달러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수출유망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울산 호접난도 2001년 4월 대미수출 컨테이너에 첫 선적을 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군정수행은 물론 앞으로 울주군 주식회사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곧 자질론과 직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후보인 제가 군수자질론을 얘기한다는게 우습지만 자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진취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행정을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 잘못 결정한 정책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수 후보로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울주군은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향으로 울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맡아온 어느 군수보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통상 감각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 국제통상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했고,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울주군수가 되면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을 이끌어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 안주하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지요. 저도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울주군민과 함께 동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울주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과 국내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무부시장 재직시 우리 고장의 배를 비롯해 호접난 등 지역 특산품을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보다 확대해 과수와 화훼,

어산물 등 울주의 각종 특산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울주 이미지를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바다와 산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 관광자원을 개발해 찾고 싶은 울주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학을 유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푸른 농촌지역을 최대한 활용한 주말농장을 개설해 도시민들이 흙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갖추고 있는 울주군은 반드시 살기 좋고,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요 약력

온산초등, 동래중, 서울사대부고, 서울법대, 미 텍사스주립대학원 졸업(국제경영학 석사), 상공부장관 비서, 오슬로 무역관장, 런던 무역관장,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통상정보본부장, 송실대 국제통상대학원 교수, 울산광역시 외자통상본부장,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역)

엄창섭 후보 지지도 꾸준히 상승 각 당 후보 골고루 출마, 접전

울주군은 엄창섭(62) 한나라당 후보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박진구 울주군수(68)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낮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인지도는

물론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엄후보는 대외 통상전문가로서의 행정능력과 깨끗한 이미지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엄후보는 특히 '울주군 주식회사의 사장 겸 영업부장 역할

을 다해 주주인 울주군민들에게 많은 수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이 울주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비해 현 자치단체장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박진구 울주군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나라당 울주군지구당과의 마찰,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 출마 등 독자 노선을 밟으면서 지지도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것이다.

이 외에 울주군수에 도전하는 인물로 한재화 민주당 울주군지구당 위원장(57), 김종길 민주노동당 전 농협노조위원장(41) 등이 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48

언 론 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주)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2년 5월 29일자 5면 『6·13지방선거/격전 현장-① 울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조선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상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 28일 이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일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에 대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기사내용)

곳곳 노조집회...민노당 宋哲鎬 지지

한나라당 朴孟雨 "결국은 역전될 것"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40% 압도적

여론조사선 宋후보 5~10%P 앞서

"판 데는 몰라도 울산만큼은 노동자 후보가 시장을 해야지예."
(40대 민노총 관계자)

"두고 보소, 그래도 울산은 한나라당밖에 없습니다." (50대 식당 주인)

28일 막이 오른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노동당 출신 시장을 내려는 노동계와 영남지역 패배를 용납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



6.13 지방선거

/격전 현장-① 울산

곳곳 노조집회… 민노당 宋哲鎬 지지 한나라당 朴孟雨 “결국은 역전될 것”

“무엇이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 노조 지지 후보가 시장을 향해 “노조 지지 후보가 시장을 향해”

“무엇이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 노조 지지 후보가 시장을 향해 “노조 지지 후보가 시장을 향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40% 압도적
여론조사선 宋후보 5~10%p 앞서
“아들 민노당… 부모는 한나라” 지지 엇갈리기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민노당 “울산 4개 구청장, 창원·평택시장 자신”

사심최다 212명 출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박맹우 후보가 한 시청에서 A.A.를 부탁하고 있다(왼쪽). 민노당 송철호 후보가 한노조지지를 만난 모습(오른쪽)이다. (사진: 울산경제지)

다. 이곳의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40.9%(민주당 12.3%, 민주노동당 7.4%)로 압도적인 데도, 선거운동 시작 전 여론조사에선 민노당 송철호(宋哲鎬·53) 후보가 한나라당 박맹우(朴孟雨·52) 후보를 5~10% 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사회당 안승천(安承千·42) 후보도 출마했으나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울산 인구는 106만여 명(선거인

수 72만여 명)으로 영남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 민노총 소속 근로자가 6만5,000여 명(한노총 1만5,000여 명)이 살고있다. 가족을 포함하면 민노총 유권자가 20만명에 달한다고 민노당은 주장한다.

28일 오전 울산시청 정문 앞. ‘투쟁’이라고 쓴 붉은 머리띠를 한 울산 택시노조원 200여 명이 정부의 택시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집회를 가진 뒤 송 후보

지지를 결의했다. 상당수는 오후 3시 송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런 노조 집회가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출퇴근 때는 노조의 오토바이 부대가 때를 지어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합법적 선거운동”이란 주장에 대해 “무법천지”(37·안경점 직원)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송 후보는 98년 울산시장 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했지만 당선권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다. 지난 시장선거는 1만2,300여 표, 15대 총선은 2,800표 차였다. 여기서 얻은 인지도와 동정표에 노동계 표가 합쳐지면서 초반 우세를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측은 “송 후보가 잦은 출마로 인지도가 높아 초반 여론지지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미 5% 차로 좁혀졌고, 결국 한나라당 정당 지지도만큼 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역전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는 지역정서와 선거 막판의 한나라당 바람 여부. 송 후보가 외지인 출신이란 점, TV토론 등이 꼽힌다. 이모(33·중소기업 경영)씨는 “특정 정당에 불표를 던지는 선거문화는 고쳐져야 한다”며 “외지인이지만 지역을 위해 오래 일해온 송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모(35·병원직원)씨는 “민주노동당이 울산시를 좌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선거를 봐서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2자심51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인매일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037-7
대표이사 신 영 모

주 문 : (주)경인매일사가 발행한 경인매일 2002년 5월 31일자 5면 『6·13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경기지역 제3회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성남지역의 경우, 특정 후보자만을 다룬 것은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경기 기초단체장 “나요 나”

성 남
김병량 후보 경전철, 주택 5만호 건립 등 공약

고 양
시의원선거 평균 2.71, 최고 51지역도 한곳

안 산
공단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신전, 후보자간 치열

용 인
무소속 후보자 없어 興野 격돌 ‘후진’

의정부
모두의 공약, 의정부시민들의 숙원 ‘교통문제’ 해결

(주요 기사내용)

성 남

김병량 후보 경전철, 주택 5만호 건립 등 공약

김병량 새천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29일과 30일 모란민속시장과 고등동, 태평 3동을 순방 개인 유세를 갖고 순환경전철, 주택 5만호 건설 등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세에서 김 후보는 “민선 2기 시장에 당선된 후 2,500여 억 원에 달하던 시 부채 가운데 1,722억 원을 갚고 이제 770억원 남았으며 이것도 백현유원지 부지를 팔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제 성남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자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고도제한 완화와 구 시가지 재개발 판교개발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면서 “그

입환으로 18.7km에 달하는 내부순환 경전철을 만들고 풍생고 앞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건설, 수진동 성남소방서 앞과 신흥동 성남극장 앞 도로를 확장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후보는 "집 없는 시민을 위해 임대아파트 6,000세대와 근로자아파트 등 5만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양

고양시장 후보군은 현임 시장인 황교선 후보(64·한국미래연합)를 포함 4명이 출마해 한나라당 강현석(50) 후보와 민주당 김성수(57), 무소속 이치범 후보(47)가 출사표를 던져 정당별 1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후략)

안 산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떠오르는 인구 63만명의 공단배후도시인 안산시장 선거는 벌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단경제의 활성화, 시화담수호 오염, 고잔2단계 신도시개발, 종합운동장건설 등 커다란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어 후보자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정지역 출신주민이 50%에 육박하고 전, 현직 민선시장의 한판 싸움에 젊은도시란 잇점을 내세워 40대의 젊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선불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52)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과거 재야 민주

화 운동과 시민 사회운동을 거쳐 닦아온 재물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앞세워 시민과 함께 행복한 안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후보는 지난 97년 시장재임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으나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다시 한번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박성규 후보(65)는 민선 2기 현 시장으로 4년간 재임하면서 경제성장과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으로 시민경제를 안정시켰다며 젊고 개혁적으로 안산의 미래는 검증된 경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후보는 최근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으나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민련 이명호 후보(47)는 낡고 부패한 전·현직 시장들이 무능무지로 인한 비효율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해박한 법논리 및 문화마인드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젊고 깨끗한 시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한다.

무소속 박명훈 후보(40)는 안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민선 1,2기 시장에 대한 무능이 시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하며 시민의 자존심을 위해 젊고 깨끗한 시만들기에 자신이 책임자라며 이번 선거에 시민의 깨끗한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박후보는 한나라당 안산시장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고 단식투쟁을 해 왔다.

용 인

6.13 동시지방선거전이 본격화

된 가운데 용인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후보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시장 및 도의원 모두 무소속 후보자가 단 한명도 없어 여야 후보자들의 격돌이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대와 4대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정문 후보(55)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현 시장인 예강환 후보(61)를 내세운 가운데 여야 모두는 각 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모든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그간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착실히 다져 오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 예 후보는 현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다는 이점과 그간 공직생활을 토대로 행정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

(후략)

의정부

의정부 시장에 출마한 5명의 후보 모두가 교통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들고나와 의정부 시민들의 숙원이 교통체증해소에 있음을 반영했다.

민주당 박창규 후보와 미래연합 김기형 후보, 무소속 홍남용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제시했고 한나라당 김문원 후보가 5번째로 각각 해결을 약속했다.

이어서 미군기지 이전을 박창규, 김기형, 목영대, 홍남용 등 4명의 후보가 각각 2번째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문원, 박창규, 목영

대, 홍남용 후보가 대학 설립 등 교육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이밖에 김기형 후보가 98년 수

해 악몽을 되살리며 재해없는 도시 건설을 약속했고 김문원, 박

창규 후보가 인근시·군을 통폐

합,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53

언 론 사 :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설 용 수

주 문 : (주)세계일보사가 발행한 세계일보 2002년 6월 3일자 9면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6·13 선거 중반판세 점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세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상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되는 5월 28일 이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일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6·13선거 중반판세 점검



별첨한 유세장

경기지사 손학규, 진남에 근소한 리드
대전시장 한나라-자민련 오차내 경합
울산·호남 무소속 단체장후보들 강세

【서울 3일 전】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별로 선출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기사내용)

서울, 이명박-김민석 접전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 대별로 선호하는 지지정당과 후보가 뚜렷한 편차를 드러내 각 정당이 취약세대공략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당의 자체 판세분석 등에 따르면 20~30대 젊은층은 대체로 민주당, 50~60대 장·노년층은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등 세대간 지지성향이 갈리고 있다. 40대는 '흔들리는 부동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대별 지지성향의 차별화는 서울시장 등 수도권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시장 판세는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지지 연령

층이 20~30대(김민석)와 50대 이상(이명박)으로 갈려 있다. 40대 표심과 부동산층의 향방, 젊은층의 투표율제고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기초단체장에선 민주당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자체점검한 조사 결과 민주당 우세 지역이 3곳에 불과, 25개 구청장 중 19개를 휩쓸었던 1998년과는 판이한 상태다.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민주당 진념 후보가 뒤쫓고 있다. 진 후보는 출마선언 전후해서는 손 후보를 앞섰으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한풀 꺾였다. 향후 추세에 대해서 “진 후보의 거품이 빠지면서 승기를 잡았다”(손학규) “지지율이 바다를 친 만큼 앞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다”(진념)로 엇갈린다. 인천시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민주당 박상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민주-자민련 연합군의 막판 대치여부가 관심사다.

대전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홍선기 후보가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거듭하고있어 예측불허 양상이다. 염 후보는 ‘이제는 바뀌보자’는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공략중이며, 홍 후보는 자민련 조직포에다 5개 기초단체장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다. 30~40%에 달하는 부동산층의 향배,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에 대한 여론반응이 변수다.

울산은 한나라당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지역이다. 광역단체장은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송철호 후보의 양강 구도이지만 송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5개 기초단체장도 민노당-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며 한나라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는 노동계 세력이 강한 이 지역 특성상 송 후보가 고정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한나라당의 바람몰이와 노동계의 결집도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는 ‘무소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현직 기초단체장 중 상당수가 민주당을 탈당,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현역 단체장’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소속의 현역 기초단체장 8명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섰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54

언 론 사 : 주식회사 울산매일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11-3
대표이사 정 길 남

주 문 : (주)울산매일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2002년 6월 6일자 1, 2면 『울산서 정권교체 시작하자』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함.

이 유 :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시장)선거와 관련, 특정 당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당 대표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연설회를 2개 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지지세력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부각 보도하면서 지지세력 중 반대세력의 인터뷰만을 다룬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동 기준 제10조(인터뷰 기사)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고향에 뿌리를 둔 자만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반드시 사수 교두보 삼겠다”

5일 울산을 방문한 한나라당 서정원 대표는 소속 후보들에 대한 자원연설을 통해 영남권 석권의 요충지인 울산을 반드시 사수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들의 울산방문에 한껏 고무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날 서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지지후보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다.

서 대표는 이날 중구 태화시장을 방문하고 “도둑질만 해온 현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은 4년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음했다”며 “이런 고통의 해소는 분명한 대안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제철의 전신이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인 민주당을 근본색출하는 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세가 끝난 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엔 “울산지역이 최고 난항지역임은 알고 있지만 최근 내·외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선거기간 전에 반드시 뒤집어진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기술 의원(울산시지부장)도 시장선거와 관련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에 뼈를 묻을 신토불이 박맹우 후보는 행정전문의 시장 최적임자”라며 “내무행정에 대표급 선수가 있어야 중앙정치권과의 연계로 울산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지지후보 갈라진 한노총

〈속보〉 5일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송철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유보되면서 일부 연맹이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지지로 선회하는 등 산별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

울산지역본부는 5일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민노당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한국노총의 정치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처사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울산본부 3층 강당에서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울산노총 택시본부 정책국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시장 후보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전무한데 분개한다’고 전제하고 지역본부 조합원과 가족 등 5,000여 명은 그 동안 울산 택시행정을 함께 고민해온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그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지지후보로 나선 일부 후보도 한국노총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등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구 제2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차용업 후보(조비 노조위원장)는 “한국노총 지지후보라는 점이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노총과 관계없이 진정한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건 번 호 : 2002자심56

언 론 사 : 주식회사 월요신문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0

대표이사 박 중 선

주 문 : (주)월요신문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2년 6월 16일자 54, 55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이루겠다”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를 이루겠다”

지방자치단체 “인민”에
반대 “인민”을 만들
지방자치단체 “인민”에
반대 “인민”을 만들

지방자치단체 “인민”에
반대 “인민”을 만들
지방자치단체 “인민”에
반대 “인민”을 만들

▲안 후보의 정책들 보면
부자감소와 시 차질권으로
성립할 리 없을 듯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시 재도정에 있어
한 번 비록 두 번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
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 재도정에 있어
한 번 비록 두 번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
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연속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공약을 할 것
과 관련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민”과
“인민”을 만들

주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을 해주셨는데, “인민”과
“인민”을 만들

▲부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든 부를 얻
을 일도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청조성과 모험성 중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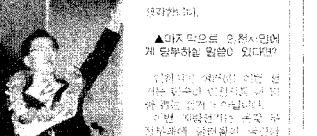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선언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
▲이것이 두 번째 출마
이다. 따라서 다음에 출마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한정장역시장 후보 추대 및 월출공의 대표

대 초 도미. 당시만 해도 생소한
선물(先物)분야 국제거래사 자격증
을 획득한 뒤 동양선물(주) 대표이
사가 됐다. 또 당시 매출 규모 5조
원으로 재계 서열 16위이던 동양그
룹 종합 조정실 사장, 동양그룹 이
동통신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제조분야에서 증권과 선물, 정
보기술(IT) 등 21세기형 선진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한
'경제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6년 총선 때 신한국당의 전
문경영인 영입 케이스로 인천 계
양·강화갑 지구구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안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인천 토박이
며 방송 앵커 출신인 이운성 의원
을 여유있게 눌러 지역 정가를 놀
라게 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
다. 기독교신자인 그는 현재 인천
생활체육축구협회장과 한나라당 중
소기업특위 위원, 한·중 교류협회의
회 고문을 맡고 있다. 충남 태안에
서 태어나 인천 서림초교, 인천중,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 트로이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를 받았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
주당 박상은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선거당일
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제
가 적게는 20%, 많게는 3배 정도까
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결과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
지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부패하
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인
천시민들의 분노의 표출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온갖 부정부패로 얼
룩졌던 민주당이 선거때만 되면 여
러 가지 장미빛 공약과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온갖 흑색선전, 비방, 인신공격, 불법선거운동이 현재의 국민적인 여론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쉽게 사그라 들 수 있는 민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당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민주당 박상은 후보와 안 후보가 'CEO 우위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우위점은 무엇입니까?

CEO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쓰지 않던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않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CEO라는 말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선 최고 경영자의 자질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자본이 갖추어지면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고 회사의 사장은 공장이 잘 돌아가게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등장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예측하여 발전을 도모하는가 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CEO가 되기 위해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창조성과 모험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공장형 리더십과는 달리 수평적 사고와 의사결정으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리더십을 모두 끌어내 네트워크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필요한 CEO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평적 사고와 설득, 조정능력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시킬 수 있는 CEO여야 합니다. 또한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지금까지 금융과 정보통신의 국제 전문경영인으로서, 수많은 기업을 네트워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대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의 경험과 지난 7년간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통해 민심의 무서움을 배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의 인천이 요구하는 CEO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천 부흥을 이루겠다

▲인천시민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들 속에는 경제·문화·사회 등등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활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은 인천의 위상과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했던 것에 비해 서울의 변두리 도시정도로 생각되어 많

은 부분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나 문화공간의 절대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이 12억 중국의 성장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다시 한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천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2의 인천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냐는 앞으로의 4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단순한 경제적 부흥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의 확충, 교육, 교통문제의 해결 등으로 이어져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판결 '내가 아닌 선거브로커 김모씨 것'

▲민주당 박상은 후보측이 모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견해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은 후보측에서 이번에 모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면 어디 한구석 자신의 정책이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일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에 사칭한 비방광고입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박상은 후보는 악의적으로 일정한 부분만 발췌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먼저 그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 폭력 및 사기전과자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2 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선거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또 대법원은 법리해석이나 법 적용의 타당성을 판결하는 곳이지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은 하급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어디 한 구절도 병역기피라든지, 룬살롱 경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장한 것처럼 룬살롱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박상은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99년 재선거당시에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검찰 및 병무청에서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제가 당시 민주당의 정동영 대변인과 김현미 부대변인을 무고죄로 고발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보내와 합의를 해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니까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산물입니다. 만약 박상은 후보와 민주당의 말이 맞다면 저를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밝혀지는데, 저렇게 흑색 비방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를 처

음 시작한다는 사람이 선거브로커와 중앙당의 잘못된 전략만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후보검증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박상은 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이면서도 주민세를 서울에 내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80평형 초호화 빌라를 1억7천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액수로 신고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과 세배돈으로 7천7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절 샀다는 땅이 1~2년 사이 10배나 뛰어 오른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주가조작으로 서민들을 울렸던 주식을 부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후보 검증이지, 과거에 다 밝혀진 사실들을 새로운 것인 양 떠들고 있는 것이 후보검증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인신공격이자 흑색선전입니다. 전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천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온갖 부정부패에 둘러쌓여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의약분업 등 각종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입니다.

또한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현 정권은 썩을 때로 썩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개혁되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 도시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4년이 인천의 4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CEO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륜과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세금은 서울에 내고 서울의 80평형 초호화 빌라에 살면서 서민이다, 인천을 사랑한다, 인천시민들과 함께한다, 고통을 분담한다고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에게 우리 인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인천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시오.

제2장 시 정 요 구

1. 정정 및 사과문보도청구



시정요구인에 대해 공직 파면자, 전과3범으로 몰아 비방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1
시 정 요 구 인 : 홍 영 옥
피시정요구인 : 함양신문
접 수 일 : 2002. 4. 3.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함양신문 : (1)『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 제
하의 기사 (2002년 3월 4일자 9면)

내 용 : 우리함양은 옛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리
는 송유의 고장이며 전국적으로 서원과 향교가 많은
지역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우리들의 정신적 내면을 가
꾸면서 선비정신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
럽게 살고있는 군민입니다.

우리 함양인의 자존심을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는 우리스스로가 자존의 노력을 성실하게하여 올바른
시민정신을 구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우리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예민한 이해관계
가 수반되고 있는 한해입니다.

특히나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의 색
깔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며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지난번 재경향우회 주최 신년인사회시 “새로운 함양
건설을 위한 특별제언”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될 사
람이 갖춰야할 5대 덕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보

제426호 4면 참조)

각후보자별로 장단점을 군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집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번
영회와 사회단체 그리고 뜻이 있는 군민들이 앞장서야
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될려고하면은 겸손하고 자기분수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쓸
데없는 욕심과 생각을 접어야할 것이며 스스로 자중하
여야 할 것입니다.

돈이면 무슨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변칙적인 사고방
식에 젖어있는 사람은 돈으로 인한 화를 자초하게 마
련이고, 또한 이권에 휘말려서 패가망신하게 마련입니
다.

자기 자신의 행적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군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도덕불감증에 무감각한 사람은 자
기 자신도 불행하게될 뿐 아니라 우리지역사회와 군민
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인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전과기록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2. 수뢰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이 되었거나 퇴출당
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이며,
3. 현재 하고있는 일들이 위법, 탈법, 위장을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단체장 군수는 함양인의 얼굴이며 거울
이고 우리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상 3가지 결격요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



강대웅 회장
함양군 민원회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함양을 애타게 사랑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을 건설하여 우리
의 후손들에게 떳떳
하고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자존의 터
전을 기필코 이루어
나가야 하였습니다.

(2)『함양군수 선거
를 앞두고...』 제하의
기사 (2002년 3월 4일
자 13면)

함양군민 여러분!

동 자 제언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민 여러분! 새해
대박이 받으십시오.
본인을 함양군민으로서
6월의 함양군수 선거에
조금하여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안코저 합니다.
저는 출
마후보자들에는 전과가 5
번이상이되는 사람이 출
마하는 귀동냥에 아연실색
하였습니다.

저는 고치고 도려낸다는
것은 그만쯤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지불
항간에 선거의 행적이
사람은 아
예 군민이 자처하여 정
리하여 선거전에 나
갔다가는 애길 듣고
진정 수준높은 군
민이라고 판단하
였습니다.

전에 해당되면
절대로 수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함입니다.
우리들은 현
재 우리지역에
서 일어나고 있
는 선거현실을
대오각성하여
공직선거인 군
수선거만큼은
금품에 휘말려
서 우리의 양심

〈2002. 3. 4. 9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본인은 함양군민으로서 6월의 함양군수 선거에 즈음
하여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안코저 합니다. 저는 출마
후보자중에는 전과가 3번이상이 되는 사람이 출마한다
는 귀동냥에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이제는 긴 안목으로 바르고 참된 자를 우리의 깨
끗한 한표로 군수를 선출하여야하나 조그마한 지연,
금품, 정 등으로 한표의 판단착오가 내일을 또 부패
하게하는 것은 뻔하지않겠습니까? 전과범은 본전 생
각이 낯것이고요. 제일 낙후된 이 함양군을 누가 발
전 시키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군민은
똑똑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잘못 선출된 후에는
고치고 도려낸다는 것은 그만큼 늦은 것이 아니겠습
니까. 타 지방군에서는 전역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군민이 자체에서 정리하여 선거전에 낙
방 홍보한다는 애길 듣고 진정 수준높은 군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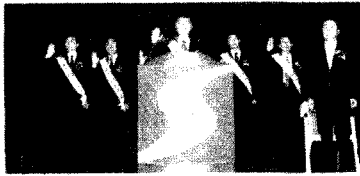
군민여러분!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삼삼오
오 모여서 판단의 기회를 가져 올바른 함양군수가 누
구인지를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왕산의
새로운 정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한 함양군
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표가 되길 바
랍니다.

함양군에 내일을 위한 여명을 여는 후보를 선출합시
다. 부자되세요. / 유권자 한사람 씀

(3)『한나라당 경선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일자 1. 2면)

한나라당 경선과문 확산

공천경선불복 후보 무소속출마 밝혀 출마지늘어날듯...



후보경선 경선발표에 앞서 투표결과에 따른 승복선서를 하고있는 후보자들...

한나라당 공천 후보경선이 경선탈락 후보자들의 경선불복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밝히고 있어 향후 6·13 지방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함양실내체육관에서 507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투표로 공천된 홍영욱 군수후보자와 임창호, 송기원 도의원 후보자가 확정되자 상대후보자들이 공천결과에 따른 불복을 가지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경선당일 후보전원이 당헌·당규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선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탈당 등 일

당군민들에게 한나라당이라는 상표를 붙여 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하며 “따라서 이 상품은 소비자인 군민들이 선호하는 품질이 좋고 훌륭한 상품 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후보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하고 청렴해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후보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 실권한 한나라당 후보는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함양군민들의 정서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하였다. 경선불복후보자들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견제하였으나 도덕적인 결함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고 하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예를 몇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운영위원 선정의 편파성인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운영위원이 특정인을 지지하고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선정되었고, 둘째, 선거인단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520명) 청년층(30%) 여성층(30%)을 제외한 200여명이 기준당원속에서 선정되고 부족한 310여명은 신규 입당자로 급조하여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2면으로 이어짐
wooinsep@hanmail.net

/ 1면에 이어

▲ 본인이 당원이 되고 선거인단에 선정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례.

▲ 부부간에 두 사람 다 선정된 사례.

▲ 친목계원처럼 특정인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사례.

▲ 현직을 겸임하는 부의자로 선정된 사례(69~71년).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과 선동자간의 결탁에 의해 당과 무관 요원과 읍 면 협의회장이 임의로 선정된 사례. (홍영욱군수도 선거구 그 후로의 지지상황이 강연 인물로 평가인단 구성)

▲ 본인외 송나로 참가 않고 선거인단에 선출되었고 입당원서만 제출하여 개입 없는 사례.

▲ 공천을 거역한 한 부부복과 입회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당원명부에 포함된 사례.

이러한 사례 외에도 여러가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선결과에 불복한 공천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탈당 등 일

당군민들에게 공산 형의하고 여러가지로 하였으나 정정이 되지 않았고하여 화합과 타협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하였다면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일방적인 작문에 의해 제여의 선거인단 선정과 거역의 대응이 모호한 하향으로 부당한 불공정 경선과 결과에 대해서는 적대 응대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진정한 유권자인 군민과 화합을 받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공천 경선결과에 불복한 후보자들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견제하였으나 도덕적인 결함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고 하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예를 몇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운영위원 선정의 편파성인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운영위원이 특정인을 지지하고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선정되었고, 둘째, 선거인단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520명) 청년층(30%) 여성층(30%)를 제외한 200여명이 기준당원속에서 선정되고 부족한 310여명은 신규 입당자로 급조하여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2002. 4. 1. 1면〉

경선에서 선출된 한나라당 후보는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함양군민들의 정서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하였다. 경선 불복 후보자들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견제하였으나 도덕적인 결함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고 하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예를 몇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운영위원 선정의 편파성인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할 운영위원이 특정인을 지지하고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선정되었고, 둘째, 선거인단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520명) 청년층(30%) 여성층(30%)를 제외한 200여명이 기준당원속에서 선정되고 부족한 310여명은 신규 입당자로 급조하여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 본인이 당원이 되고 선거인단에 선정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례.

▲ 부부간에 두 사람 다 선정된 사례.

▲ 친목계원처럼 특정인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사례

▲ 제한된 연령층이 무더기로 선정된 사례(69~71년생)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의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국 요원과 읍 면 협의회장이 임의로 선

〈2002. 4. 1. 2면〉

한나라당 공천 후보경선이 경선탈락 후보자들의 경선불복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밝히고 있어 향후 6·13 지방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함양실내체육관에서 507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투표로 공천된 홍영욱 군수후보자와 임창호, 송기원 도의원 후보자가 확정되자 상대후보자들이 공천결과에 따른 불복을 가지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경선당일 후보전원이 당헌·당규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선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탈당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행사장에서 선서까지 해놓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군민들을

정한 사례.(특정후보와 연계해 그 후보자의 지지성향이 강한 인물로 선거인단 구성)

▲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선거인단에 선정해놓고 입당원서는 나중에 끼워 넣는 사례.

▲ 중립을 지켜야 할 사무국과 협의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득표운동에 앞장선 사례.

이러한 사례외에도 여러가지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경선관리 선거관리원들과 이강두 위원장께 공식 항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하며 화합과 단합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하였다면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일방적인 각본에 의해 짜여진 선거인단 선정과 거액의 금품이 오고간 타락으로 부당한 불공정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출마를 결심하고 진정한 유권자인 군민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함양신문 2002년 3월 4일자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제하의 기사가 시정요구인을 공직파면자, 전과3범 등으로 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2002년 4월 1일자 「한나라당 경선과문 확산」 제하의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4일자 9면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후보를 겨냥, 공직에서 파면되었거나 퇴출당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위법, 탈법, 위장을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또 4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경선과문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금번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기준에 미달돼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경선 탈락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한나라당과 당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함양신문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9일자 8면)

내 용 : 함양신문에 2002년 3월 4일자 제438호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라는 제하에 기고문기사에서 6. 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함양군수로 출마할 후보중 ▲ 공직에서 파면, ▲현재하고 있는 일들이

반론 보도문



홍영옥 군수후보
한나라당 공천

함양신문에 2002년 3월 4일자 제428호 「함양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리자」라는 제목의 제하에 기고문기사에서 6. 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함양군수로 출마할 후보중 ▲ 공직에서 파면, ▲현재하고 있는 일들이 위법, 탈법, 위장을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고있는 사람이 있는것 같이 기고 하므로써 함양인의 화합을 크게 저해 하였을 뿐 아니라 25만 함양인의 자존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것처럼까지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대한 입장표명을 합니다.

본인이 평소 가슴에 품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가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고 있는 내용으로 약20년 전에 있었던 일로 '86년 9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현재도 연금(No 18602535)을 받고 있으며, '88년의 경상남도 의회의원 선거시 유세장에서 까지 상대후보가 공격을 하였던 내용이고 도의원 출마 이전부터 일반건설업 1개사 전문건설업 2개사의 자본주로서 회사운영에 자문을 해 왔으며,

도의원 당선이후 회사운영 체제나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본인이 출자한 건설업체의 함양군 발주공사 점유율이 '98년 11%, '99년 8%, '00년 4%로 낮아져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3개사 모두 경영진과 합의하여 양도처분 하였으며, 재산도 도의원 당선후 첫('98년7월) 신고액이 35억3천8백만원 이었던 것이 '01년말 신고액이 25억2천2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경상남도청에 23년을 근무 하면서 대통령표창, 녹조근정훈장을 받은등 열심히 일하다 '89년 9월 2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후후 바로 귀향하여 16년동안 4H후원회 회장 6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회장 6년, 민선 군체육회장 2년, 학교운영위원 및 위원장 6년, 장애인후원회이사 및 회장 10년, 함양중학교총동창회 회장 2년, '99년도 천령문화재전위원장 등 군단위 기관단체 대부분에 동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 '94년 국무총리 표창, '99년 경남인의 상, '00년 함양군민상을 포함 총48회에 걸쳐 표창, 공로패, 감사패를 받는데 오히려 함양인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자존과 자긍심을 더높이는 일에 충실 하였으므로 위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법, 탈법, 위장을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되고있는 사람이 있는것 같이 기고하므로써 함양인의 화합을 크게 저해 하였을 뿐 아니라 25만 함양인의 자존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된 것처럼 비쳐져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보여져 이에대한 입장표명을 합니다.

본인이 평소 가슴에 품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가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고 있는 내용으로 약20년 전에 있었던 일로 '86년 9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현재도 연금(No 18602535)을 받고 있으며, '98년의 경상남도 의회의원 선거시 유세장에서 까지 상대후보가 공격을 하였던 내용이고 도의원 출마 이전부터 일반건설업 1개사 전문건설업 2개사의 자본주로서 회사운영에 자문을 해 왔으며, 도의원 당선 이후 회사운영체제나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본인이 출자한 건설업체의 함양군 발주공사 점유율이 '98년 11%, '99년 8%, '00년 4%로 낮아져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3개사 모두

경영진과 합의하여 양도처분 하였으며, 재산도 도의원 당선후 첫(98년7월) 신고액이 35억3천8백만원 이었던 것이 '01년말 신고액이 25억2천2백만원으로 감소 하였고 경상남도청에 23년을 근무 하면서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열심히 일하다 '89년 9월 2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후 바로 귀향하여 16년동안 4H후원회 회장 6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회장 6년, 민선 군체육회장 2년, 학교운영위원 및 위원장 6년, 장애인후원회이사 및 회장 10년, 함양중학교총동창회 회장 2년, '99년도 천령문화제전위원장 등 군단위 기관단체 대부분에 동참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 '94년 국무총리 표창, '99년 경남인의 상, '00년 함양군민상을 포함 총48회에 걸쳐 표창, 공로패, 감사패를 받는등 오히려 함양인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자존과 자긍심을 더 높이는 일에 충실하였으므로 위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범군민정의실현연대가 결성식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2
시 정 요 구 인 : 홍 영 옥
피시정요구인 : 국제신문
접 수 일 : 2002. 4. 16.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국제신문 :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0일자 31면)
내 용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와 정치참여의 장을 열기 위한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시민연대 유권자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번 유권자 운동은 지난 4·13 총선 당시의 낙천 낙

선운동처럼 특정인의 낙천 낙선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탈피, 부적격자 기준을 만들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토록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진주YMCA 진주YWCA 등 경남 진주지역 4개 시민단체는 9일 "지방정치를 정치인의 손에 맡겨두고 선거만 기다리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를 결성,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는 교수 및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과 유권자 및 미래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유권자교육단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정책평가단은 후보자들의 공약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진주·함양 등 시민단체 유권자운동본부 결성

후보자 자질 검증·부적격자에 표 안주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와 정치참여의 장을 열기 위한 경남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의 시민연대 유권자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번 유권자 운동은 지난 4·13 총선 당시의 낙선 낙선운동처럼 특정인의 낙선 낙선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탈피, 부적격자 기준을 만들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토록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진주YMCA 진주YWCA 등 경남 진주지역 4개 시민단체는 9일 "지방정치를 정치인의 손에 맡겨두고 선저만 기다리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를 결성,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는 교수 및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정책평

가단과 유권자 및 미래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유권자교육단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정책평가단은 후보자들의 공약은 물론 과거의 경력 범죄전력 등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유권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권자교육단은 모의 투표함을 설치, 표를 행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주권인식을 높이고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가 성숙한 지역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성찰하는 시민정치교육을 전개한다는 것.

운동본부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주지역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10개항의 정책질의서를 만들고 선거과정을 통해 지방의 발전방향을 시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 함양군 함양변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연대와 시민단체는 9일 오후 2시 함양변영회 사무실에서 지역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욱) 결성식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함양정실연은 이를 위해 스수회사 건 연루 구속자 또는 파렴치범 등의 전과자 △현직 의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회사를 위장경영하면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후보 △지역정서를 흐리는 후보 등에 대해서는 표를 주지 않는 유권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정실연에 참여하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지역인사는 함양변영회, 함양노동자연대(군정직협 농·축협노조 전교조 한통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1천여명에 이르며 함양종교연합도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단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주 함양 / 김인수 hokukseon@naver.com

함양정실연은 이를 위해 △수뢰사건 연루 구속자 또는 파렴치범 등의 전과자 △현직 의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회사를 위장경영하면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후보 △지역정서를 흐리는 후보 등에 대해서는 표를 주지 않는 유권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정실연에 참여하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지역인사는 함양변영회, 함양노동자연대(군정직협 농·축협노조 전교조 한통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1천여명에 이르며 함양종교연합도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단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홍영욱으로 국제신문 2002년 4월 10일자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제하

의 기사에서 함양변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연대와 시민단체가 범군민정의실현연대 결성식을 가지고 부정선거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10일자 31면 『지방선거 두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남 함양군 함양변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 연대와 시민단체는 4월 9일 오후 2시 함양변영회 사무실에서 지역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욱) 결성식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허위보도였기에 바로잡으며, 특정 후보에게 입

은 물론 과거의 경력, 범죄전력 등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유권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권자교육단은 모의 투표함을 설치, 표를 행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주권인식을 높이고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가 성숙한 지역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성찰하는 시민정치교육을 전개한다는 것.

운동본부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주지역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10개항의 정책질의서를 만들고 선거과정을 통해 지방의 발전방향을 시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 함양군 함양변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연대와 시민단체는 9일 오후 2시 함양변영회 사무실에서 지역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욱) 결성식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주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
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2002. 4. 10.자 31면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
유권자 감시활동 ‘깃발’』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함양
군 함양번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 연대와 시민단체가
범군민정의실현연대(회장 강대옥) 결성식을 갖고 부정
선거 감시 및 부도덕 후보 표 안 주기 운동에 나서기
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범군민정의실현연대는 물론
함양군내 그 어떤 단체도 낙선운동을 위해 결성된 사
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판단해 보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거 선거 후보자(또는 후보예정자)는 선거기

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인에게 그 권리가 인
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가 시정요구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공표하였거나 그 내용이 시정요구인과 개별적
인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보도가 향후 선거
에 있어서 시정요구인 또는 여타 후보자(또는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시정요구인은 범군민정의실현연
대와 무관한 자로서 그 단체의 결성 여부와 활동상황
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 보
도로 인해 시정요구인이 선거에 있어서 불리해지거나
여타 후보예정자가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보기에 어
렵다.

따라서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
당한 이익이 없는 당사자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여론조사의 형식적 요건 및 객관성을 배제하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가상대결만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3

시 정 요 구 인 : 김 동 진

피시정요구인 : 한산신문사

접 수 일 : 2002. 4. 16.

처 리 결 과 : 주 의

보도내용

한산신문 : 『강부군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 제하의 기
사 (2002년 4월 13일자 1면)

내 용 :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에 강부군씨가 결정
됐다. 고성군수 후보에는 이학렬씨가 결정됐다.

한나라당 통영·고성지구당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통영·고성지역의 시장 군수
와 도의원 후보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부군씨(56)를 통영시장 후보에,
이학렬씨(47)를 고성군수후보로 선출했다.

또 경남도의원 후보에는 통영1지구에는 김윤근씨
(43), 통영2지구에는 김명주씨(36), 고성제1지구에는
하정만씨(67), 제2지구에는 박창흥씨(61)를 각각 선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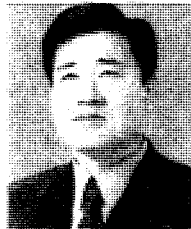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자가 결정되자마자 고성군수
후보를 신청했던 최평호씨 지지자들이 당운영위를 박
차고 나가 공천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또 통영시장후
보를 신청했던 김동진씨(53)와 김태웅씨(56)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군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

고성군수 후보 이학렬...도의원 통영1 김윤근, 통영2 김명주
고성1 하정만, 고성2 박창홍...타 후보 승복불응 무소속 출마



◇통영시장 후보 강부근



◇고성군수 후보 이학렬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에 강부근씨가 결정됐다. 고성군수 후보에는 이학렬씨가 결정됐다.

한나라당 통영·고성지구당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통영·고성지역의 시장·군수와 도의원 후보선정자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부근씨(56)를 통영시장 후보에, 이학렬씨(47)를 고성군수 후보로 선출했다.

또 경남도의원 후보에는 통영1지구에는 김윤근씨(43), 통영2지구에는 김명주씨(36), 고성제1지구에는 하정만씨(67), 제2지구에는 박창홍씨(61)를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자가 결정되자마자 고성군수 후보를 신청했던 최평호씨 지지자들이 당운영위를 박차고 나가 공천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또 통영시장후보를 신청했던 김동진씨(53)와 김태웅씨(56)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지역에는 군수후보에서 탈락된 제정훈씨(58)가 운영위 결정전에 탈당을 선언했으며, 안수일씨(56)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학렬씨와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던 최평호씨(55)는 현재 자신의 지지자들과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김동욱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영시장 후보결정은 가장 고뇌를 한 부분이라며 탈락된 김태웅씨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늦게 출발한 점과 몇개월간의 공백기간동안 강부근씨 측에서 당원들을 장악했던 부분이 이번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면조사와 1차(3.19-3.22), 2차(4.1-4.3), 3차(4.8-4.9)의 전화 설문조사결과 강부근 공천자와 김동

진 무소속과 가상대결결과 강부근씨가 47%, 김동진씨가 34.9%를 차지했으며, 강부근 공천자(42.2%), 김동진 무소속(25.9%), 김태웅 무소속(15.4%) 3자대결 구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의원은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통영시장 후보에 결정된 강부근씨는 유영초교, 통영동중, 통영고, 경상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유영초교 총동창회장, 경상대 통영동문회장, 4대 충무시의회의원, ROTC

통영지부 고문, 통영시재향군인회 회장, 통영문화원 부원장, 기초자치발전연구소 소장, 통영축협조합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고성군수후보에 결정된 이학렬씨는 거류면 출신으로 지난 16대 국회의원출마했으며,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해양정책연구소 소장, 미텍사스주립대학 졸업,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成炳沆 기자】

고성지역에는 군수후보에서 탈락된 제정훈씨(58)가 운영위 결정전에 탈당을 선언했으며, 안수일씨(56)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학렬씨와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던 최평호씨(55)는 현재 자신의 지지자들과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김동욱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영시장 후보결정은 가장 고뇌를 한 부분이라며 탈락된 김태웅씨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늦게 출발한 점과 몇개월간의 공백기간동안 강부근씨 측에서 당원들을 장악했던 부분이 이번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면조사와 1차(3.19-3.22), 2차(4.1-4.3), 3차(4.8-4.9)의 전화 설문조사결과 강부근 공천자와 김동진 무소속과 가상대결결과 강부근씨가 47%, 김동진

진 무소속(25.9%), 김태웅 무소속(15.4%) 3자대결 구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통영시장 후보에 결정된 강부근씨는 유영초교, 통영동중, 통영고, 경상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유영초교 총동창회장, 경상대 통영동문회장, 4대 충무시의회의원, ROTC통영지부 고문, 통영시재향군인회 회장, 통영문화원 부원장, 기초자치발전연구소 소장, 통영축협조합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고성군수후보에 결정된 이학렬씨는 거류면 출신으로 지난 16대 국회의원출마했으며,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해양정책 연구소 소장, 미텍사스주립대학 졸업,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한산신문이 2002년 4월 13일자 『강부근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통영시장후보로 강부근 후보가 결정된 것을 여론조사와 함께 보도하면서 여론조사의 형식적 요건 및 객관성을 배제하고 강부근 후보에게 유리한 가상대결만 밝히고 있어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항

한산신문사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한 한산신문 2002년 4월 13일자 1면 『강부근 한나라당 통영시장 후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이 강부근 후보에 대한 유리한 가상대결만을 밝혔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고성군수)에 대한 여론조사(서면조사, 전화 설문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강부근 한나라당 공천자와 무소속 김동진, 강부근 한나라당 공천자와 무소속 김동진, 김태웅 등의 가상대결구도에

서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강부근 후보에 대한 유리한 가상대결만을 밝혔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기관,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지 않아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가상대결에서 자신이 한나라당 공천자가 되었을 경우의 여론조사도 밝히길 원하나 보도 전에 한나라당 공천자로 강부근씨가 선정되었으므로 피시정요구인인 한산신문으로서는 시정요구인이 공천자가 되었을 경우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 제4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제2항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취지상 특정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와 그 결과를 밝히는 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를 구분없이 준수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4

시 정 요 구 인 : 정 세 군

피시정요구인 : 대한매일

접 수 일 : 2002. 4. 29.

처 리 결 과 :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대한매일 : 『정세군의원 차명계좌 운용』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6일자 31면)

내 용 : 고교동창 명의 비자금관리 의혹...선거자금 사용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안모(51)씨는 지난 3월4일 안산시내 중소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 1만원을 내고 새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전주 신흥고 동

정세균의원 차명계좌 운용

고교동창 명의 비자금관리 의혹… 선거자금 사용

정의원 “선관위에 보고… 출처·사용처 명확”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안보(51)씨는 지난 3월4일 안산시내 중소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 1만원을 내고 새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전주 신흥고 동기동창인 정 의원측에게 넘겨져 차명계좌로 사용되고 있다.

이 통장은 계좌번호가 345-031398-×××로 지난 3월에 1500만원, 4월에 20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이 입금됐다. 입금자는 정세균 의원으로 돼 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의 정국과 권금지금기 등을 통해 정 의원의 비서관인 강귀

섭(42)씨 등이 인출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선거캠프인 ‘새시대 새전북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돈의 인출과 사용시점, 금액 등이 연구소의 수입·지출내역과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정 의원의 선거캠프로 들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씨는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정 의원이 거액을 입금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주최내역	최고입금액	입금횟수	입금총액	잔액
2002년	계좌번호: 345-031398-	입금일자	입금금액	잔액	잔액
이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금액	잔액	잔액
03-04신규			*10,000	*10,000	장독수05
03-04	적불카드 (전국카드계좌) 발급계좌: 보관주의				
2002-03-04	별매명단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5-05
2002-03-04	인터넷 (PC)뱅킹 가입을 축하합니다				345-05
03-09타행환	정세균	*10,000,000		*10,010,000	동향 035
03-11현금		*5,000,000		*5,010,000	잔 07
03-14현금		*4,000,000		*4,010,000	잔 09
03-15타행환	정세균	*5,000,000		*5,010,000	동향 036
03-15타행CC		*300,800		*300,800	잔 700

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중소기업은행 안산 상록수 지점 발행의 통장 사본

한 것은 모르고 있다.”며 “왜 정 의원이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전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의정활동비를 선거캠프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찾아쓰기 위해 후원금통장에서 안씨 통장에 입금시킨 것이며 선관위에 보고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의 비서 강귀섭씨는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이 선거캠프와 가까운데 있어 안씨에게 통장개설을 부탁해 지난 3월초 서울에서 전달받았다.”고 차명계좌 사용을 시인했다.

전주 일송학기자 shlm@kdaily.com

가동창인 정 의원측에게 넘겨져 차명계좌로 사용되고 있다.

이 통장은 계좌번호가 345-031398-×××로 지난 3월에 1500만원, 4월에 20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이 입금됐다. 입금자는 정세균 의원으로 돼 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의 창구와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정 의원의 비서관인 강귀섭(42)씨 등이 인출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선거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선거캠프인 ‘새시대 새전북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돈의 인출과 사용시점, 금액 등이 연구소의 수입·지출내역과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정 의원의 선거캠프로 들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씨는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정 의원이 거액을 입금한 것은 모르고 있다.”며 “왜 정 의원이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전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의정활동비를 선거캠프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찾아쓰기 위해 후원금통장에서 안씨 통장에 입금시

킨 것이며 선관위에 보고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의 비서 강귀섭씨는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이 선거캠프와 가까운데 있어 안씨에게 통장개설을 부탁해 지난 3월초 서울에서 전달받았다.”고 차명계좌 사용을 시인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대한매일이 2002년 4월 26일자 『정세균의원 차명계좌 운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 돈세탁을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의혹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6일자 사회면 『정세균의원 차명계좌 운용』 제하의 기사에서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국회의원 정세균 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모금한 후원

금 가운데 정위원의 의정활동비조로 기부받은 돈이며, 세비와 후원금 등이 입금되는 의정활동비 지출계좌는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 및 영수증이 신고돼 자금흐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계좌는 정위원이 설립한 새시대 새전북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투명한 회계보고를 위해 정위원의 고교동창이자 위 연구소의 이사이며 회계책임자인 안열씨 명의로 개설된 것이며,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국회농협지점에 개설된 정위원의 의정활동비 지출통장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정위원 명의로 입금한 돈으로써, 비자금관리나 돈세탁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정세균 의원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물론 전북도민들에게 심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세균 의원의 경선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피시정요구인은 대한매일 2002년 5월 14일자 사회1면 중앙하단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기사를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경선에 나시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문제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국회의원 정세균 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모금한 후원금 가운데 의정활동비로 기부 받은 돈으로 비자금세탁과는 무관한 깨끗한 돈이라며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자금세탁이라함은 검은 돈을 다른 계좌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비록 시정요구인의 고교동창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의 출금

계좌가 시정요구인의 국회비서 전소희 명의의 통장이었고 출금 후 입금인이 시정요구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자금세탁은 아닐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시정요구인의 「자금세탁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추론성 기사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이 사건 기사의 매 판 보도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확인해 이를 지면에 반영하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고 다음 일자에는 시정요구인의 단독 해명보도문을 게재한 점을 고려해 정정보도사항을 「자금세탁이 아님」을 밝히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

대한매일 :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14일자 31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26일 사회1면을 통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시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된 자금은 정 의원측의 회계담당자에 의해 국회내 농협지점에서 정 의원의 실명을 사용, 타계좌로 입금되는 등 그 돈의 출처가 투명하게 나타나 돈세탁과는 무관했음을 밝힌다.

정정 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26일자 사회1면을 통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시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된 자금은 정 의원측의 회계담당자에 의해 국회내 농협지점에서 정 의원의 실명을 사용, 타계좌로 입금되는 등 그 돈의 출처가 투명하게 나타나 돈세탁과는 무관했음을 밝힌다.

피시정요구인이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

재심청구인 : 대한매일

접수일 : 2002. 5. 16.

처리결과 : 기각

재심청구이유

대한매일 윤청석 부장이 지난 4월 26일자 『정세균의 원 비자금관리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5월 3일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해주기로 합의한 것은 회사의 방침과 다른 것이다.

대한매일은 정의원의 회계책임자 구좌에서 나온 자금이라 할지라도 차명계좌에 입금돼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자금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언론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비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선심위의 정정보도 게재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재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시정요구인, 정세균이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한 이상, 자금세탁의 의혹을 제기한 심의대상기사는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자금세탁'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소득 원천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비록 정세균이 고교 동창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애초의 출금계좌의 명의인이 정세균의 국회비서인 전소희였고, 전소희가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차명계좌에 정세균 명의로 입금하였으므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거나 소득원천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형적인 자금세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단지 정세균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세균에 대하여 자금세탁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세균이 전북지사 후보경선에 나서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를 근거 없는 추론성 기사로 판단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명한 원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람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5
시 정 요 구 인 : 장 성 윤
피시정요구인 : 강원도민일보
접 수 일 : 2002. 5. 27.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 『지선현장-철원 최종문 군수후보 옥중출마 강행』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7일자 5면)

내 용 : ◇…지난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崔鍾文 철원군수후보가 옥중출마를 선언해 눈길.

崔후보는 구속 수감된 24일까지만해도 불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참모진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 옥중출마를 선언.

이날 崔후보는 “물의를 일으켜 철원군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옥중출마 결심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믿고 지지하는 조직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주장. 한편 崔후보 참모진영은 “張모 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평창 공명선거 공중 홍보전 '눈길'

◇...평창읍내 공명선거와 선거동참홍보를 위한 공중홍보전이 펼쳐져 눈길.

평창군선거위는 25일 제2회 평창강민속축제에 맞춰 평창장암수리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이 참가해 공명선거 패러글라이딩 홍보를 전개.

이날 홍보활동은 평창읍 장암산 패러글라이딩장에서 패러 3대가 출발해 이 중 1대에 공명선거 현수막을 부착하고 축제장에 도착.

평창군선거위와 장암수리 동호회원들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매주 1회씩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공명선거와 선거동참 공중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

〈平昌〉

철원 崔鍾文 군수후보 옥중출마 강행

◇...지난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崔鍾文 철원군수후보가 옥중출마를 선언해 눈길.

崔후보는 구속 수감된 24일까지만해도 불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참모진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 옥중출마를 선언.

이날 崔후보는 "물의를 일으켜 철원군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옥중출마 결심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믿고 지지하는 조직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주장. 한편 崔후보 참모진영은 "張 鎰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崔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나 사이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崔후보를 구속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했다"며 "비록 崔후보가 수감돼 있지만 부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옥중당선 시키겠다"고 기입. 〈鐵原〉

고성 중·고교 동문회에 입지자 몰려

◇...고성중·고 동문회 기별 체육대회가 개최된 26일 고성중·고 운동장에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이 대거 몰려 표심얻기에 주력.

이날 개회식에는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黃鍾國 군수, 咸炯仇·李京度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으며 개회식 후 동문들의 자리를 일일이 돌며 악수.

또 도의원 1선거구에 출마하는 金源基·禹成 후보와 2선거구의 徐東哲·尹榮洛 후보도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알리기에 분주.

이와함께 도의원 2선거구에 출마하는 辛明善 도의원은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일일이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고성중·고 출신 군의원 입지자들도 대거 참석, 동문들의 한표를 호소하는 등 각축. 〈高城〉

나 사이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최후보를 구속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결과, 장후보는 최후보를 고소,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씨가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선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신의 선거준비위원 등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02년

崔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나 사이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崔후보를 구속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했다"며 "비록 崔후보가 수감돼 있지만 부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옥중당선 시키겠다"고 기입.

5월 25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시정요구이유

강원도민일보 2002년 5월 27일자 『지선현장-철원 최중문 군수후보 옥중출마 강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최중문 후보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람이라고 인용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최후보는 경찰의 인지수사에 의하여 구속 수감되었고. 시정요구인은 최후보에 대해 선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밖에 없기에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7일자 5면 『지선현장』 제하의 기사에서 "장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최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

강원도민일보 : 『철원 張성운 군수후보, 경쟁 崔후보 선처 탄원』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9일자 15면)

내 용 : ◇... 본보 27일자 5면 '지선현장' 제하

의 기사중 "張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崔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나 사이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최후보를 구속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 했다"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張성운후보측이 주장.

이에 대해 사실 확

철원 張성운 군수후보, 경쟁 崔후보 선처 탄원

◇... 본보 27일자 5면 '지선현장' 제하의 기사중 "張후보의 내연관계를 녹음한 녹취서를 입수해 유포한 崔후보의 행위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울타리 하나 사이인 이웃이고 선후배지간에 최후보를 구속까지 시킨 행위는 너무 했다"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張성운후보측이 주장.

이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張후보는 崔후보를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선거준비위원 등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崔씨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선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5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鐵原〉

인 결과 張후보는 崔후보를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선거준비위원 등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崔씨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선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5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3자만의 대결구도 설정, 특정후보 지지도 과대 포장 등의
여론조사 질의내용으로 시정 요구인이 불출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경쟁후보를 유리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6
시 정 요 구 인 : 정 흥 수
피시정요구인 : 주간 영광함평 내일신문
접 수 일 : 2002. 5. 31.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주간 영광함평 내일신문 : 『6·13 영광군수선거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2002년 5월 23일자 6, 7면)

내 용 : 문 1) 귀하는 6월 13일 영광군수 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투표한다
- ② 가급적 투표한다
- ③ 그때 가봐야 알겠다
- ④ 기권한다

문 2) 귀하는 6월 영광군수 선거에 민주당후보로 김봉열 현 군수와 무소속으로 김규현 현 군의원, 장현 호남대 교수가 출마해 3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① 김봉열 현 군수 (현 영광군수)
- ②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전 영광군의회 의장)
- ③ 장현 호남대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 ④ 기타()

⑤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3) 귀하는 6월 영광군수 선거에 민주당후보로 김봉열 현 군수와 무소속으로 김규현 현 군의원, 김연관 전 도의원, 장현 호남대 교수, 정흥수 전 행자부 방재국장이 출마해 5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① 김봉열 현 군수 (현 영광군수)
- ②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전 영광군의회 의장)
- ③ 김연관 전 도의원
(현 별정우체국연합회 이사장)
- ④ 장현 호남대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 ⑤ 정흥수 전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백수읍 출신)
- ⑥ 기타()
- ⑦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4) 그럼 귀하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영광군수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김봉열 현 군수
- ②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
- ③ 김연관 전 도의원
- ④ 장현 호남대 교수
- ⑤ 정흥수 전 행정자치부 방재국장
- ⑥ 기타()
- ⑦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5) 귀하는 6월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박태영 후보와 무소속으로 송재구 후보, 송하성 후보가 출마해 3자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 ① 민주당 박태영 후보 (전 산업자원부 장관)
- ② 무소속 송재구 후보 (전 전남도 부지사)
- ③ 무소속 송하성 후보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④ 기타()
- ⑤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문 6) 귀하가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 ① 한나라당 ② 민주당
- ③ 자민련 ④ 민주국민당
- ⑤ 민주노동당 ⑥ 사회당
- ⑦ 지지정당 없다

문 7) 귀하는 영광·함평 내일신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주 읽어 보고 있다
- ② 한달에 한두번 읽어 보고 있다
- ③ 영광·함평 내일신문을 들어 보았지만 읽어보지는 못했다
- ④ 들어 본적도 없다

본지가 6·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봉열 현군수가 35~38%의 지지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본지가 20~21일 양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서울의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서 주민들은 현재 입지를 표명한 김봉열 군수를 비롯해 김규현 영광군의회 의원, 장현 호남대 교수 등 3자 가상대결에서 김 군수를 38.1%로 1위로 지지했고, 장 교수(27.6%), 김 의원(18.5%)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3인과 정홍수 행자부 전 방국재국장, 김연관 전 도의원을 포함한 5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군수가 35.1%, 장 교수 21.4%, 김 의원 17.3%, 정 전방재국장 7.7%, 김 전도의회원이 5.9%를 차지했다.

또한 주민들은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인 김 군수가 39.7%, 장 교수 17.0%, 김 의원 12.5%, 정 전방재국장 4.7%, 김 전도의원 0.7%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전남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박태영 후보를 38.4%, 무소속 송재구 후보와 송하성 후보를 각각 7.7%, 5.8% 지지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김봉열 군수가 현재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의 지지율을 응답자들의 지지정당별 조사와 비교해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35~39%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군수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김봉열 군수가 현재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의 지지율을 응답자들의 지지정당별 조사와 비교해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35~39%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구도대로 선거국면에 접어들 경우 김 군수가 당선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선 가능권으로 언급되던 김규현 의원과 장현 교수 등의 지지율 및 3자 가상대결 구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이 같은 결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소속 후보군들의 합종연횡이 선거국면의 관전포인트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향후 무소속 후보군들의 행보에 따라 지지율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 지방선거 예상 투표율

영광군민의 75.0%가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응답은 14.2%, 기권하겠다는 응답은 1.1%였다.

과거 선거조사에서 실제 투표율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보다 약 5~10%정도 낮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투표율은 65%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50대이상:87.9%, 40대:79.7%, 30대:62.4%, 20대:55.1%), 학력은 중졸이하(84.7%), 직업은 자영업/사업(9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영광군수 선거 3자 가상대결

영광군수 선거 3자 가상 대결에서 영광군민의 38.1%가 차기 영광군수로 민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김봉열 군수 선두, 장현·김규현씨 뒤이어

본지 한길리서치 의뢰, 3자 5자 가상대결에서 김 군수 앞서
무소속 후보 합종연행 불가피할 듯 ... 도지사는 박태영 후보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김 군수의 지지율을 상당부분의 지지자들
25~39%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수로 선거에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조사 의 성 격	구 분	응 답 자 수	응 답 비율
표 본 의 특 성	성별	남자 26.1%	여자 26.1%
	연령	20대 36.2%	30대 35.6%
	학력	고졸 31.2%	대졸 19.3%
	직업	농·임·어업 22.4%	제조업 19.5%
	소득	월 100만원 이하 41.4%	월 100만원 이상 41.4%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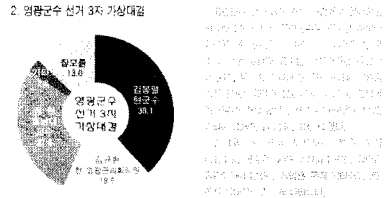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본지 여론은 4월 19일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
후보가 누구인가?
① 김봉열 31.3%
② 장현 27.6%
③ 김규현 21.4%
④ 기타 2.8%
⑤ 불응 13.9%



〈2002. 5. 23. 6면〉

군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7.6%,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
나, 김봉열 현 군수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는 2.8%, 잘못 모름은 13.0%였다.

김봉열 현 군수 지지자는 성은 여자(41.4%), 연령은
50대 이상(44.8%), 학력은 중졸이하(44.3%), 직업은
무직/기타(5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현 호남대 교수 지지자는 성은 남자(31.3%), 연령
은 20대(36.2%)/40대(35.6%), 학력은 대졸이상
(44.2%), 직업은 자영업/사업(46.5%), 주부(37.1%)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규현 의원 지지자는 성은 여(20.2%), 연령은 40대

(22.8%)/30대(21.4%), 학력은 고
졸(19.5%)/중졸 이하(19.3%), 직
업은 농·임·어업(22.4%)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영광군수선거 5자 가상대결

영광군수 선거 5자 가상 대결에
서 영광군민의 35.1%가 차기 영광
군수로 민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군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를 지지
한다는 응답은 2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군
의회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3%, 무소속 정흥수 전 행정자
치부 방재국장을 지지한다는 응
답은 7.7%, 무소속 김연관 전 도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9%로 5
자 가상대결에서도 김봉열 현 군
수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기타는 0.8% 잘못 모름
은 11.8%였다.

김봉열 현 군수 지지자는 연령
은 50대 이상(40.9%)/20대(39.1%),
직업은 무직/기타(57.8%)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현 호남대 교수 지지자는 성
은 남자 (26.1%), 연령은 40대
(32.5%), 학력은 고졸(31.2%), 직
업은 자영업/사업(32.7%)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규현 의원 지지자는 성은 여자(17.8%), 연령은 30
대(22.2%)/40대(21.3%), 학력은 중졸 이하(19.9%)/대
졸 이상(18.3%) 직업은 자영업·사업(22.8%)/농·
임·어업(2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영광군수 선거 당선 예상

영광군민의 39.7%가 민주당 후보인 김봉열 현 군수
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무소속 장현 호
남대 교수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7.0%로 나
타났다. 그리고 무소속 김규현 현 영광군의회 의원은
12.5%, 무소속 정흥수 전 행정자치부 방재국장은

부풀려 타 후보들 및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음을 시인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주간 영광합평)에 별지 제1목록 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주간 영광합평) 2002년 5월 23일자 6, 7면에 6·13 영광군수선거와 관련,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김봉열 현 군수가 3자, 5자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에 있어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영광군수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자신의 영광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서 위 여론조사 두 번째 질의인 자신을 제외한 3자 가상대결구도와 자신을 포함한 세 번째 질의인 5자 가상대결구도는 시정요구인의 지지도를 급락케 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단기간 내에 급상승한 것은 여론조사

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여론조사의 질의내용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설정되고, 누구도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성이 가미되었고 이 결과가 언론에 공표된 경우는 불공정보도가 될 수 있음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관련 기사의 경우,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을 위 여론조사 2번 질의에서 배제한 이유는 바록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경선 전에 지지도가 3강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영광군수 경선에서 패한 이후의 시점에서 조사한, 위 여론조사에서의 질의내용 2번과 3번은 경선 전후의 상황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 급등에 대한 의혹은 여론조사의 조작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시정요구인이 여성당원을 협박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7

시 정 요 구 인 : 조 영 옥

피시정요구인 : 가평신문

접 수 일 : 2002. 6. 3.

처 리 결 과 : 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가평신문 :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당신 죽여버리러 올 거야!”』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일자 1면)

내 용 : 이번 6. 13지방선거에 가평을 이끌 지도

자로 나서는 사람이 일반 여성을 상대로 동네깡패 수준의 공갈협박을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가평경찰서 민원실에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 모씨가 한나라당 가평군수후보 조OO씨를 고소하며 드러났다. 본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다.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전 한나라당 여성 회장으로 조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색을 하며 “너 조심해, 장OO을 시켜 쥐도새도 모르게 당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당신 죽어버리러 올 거야 !”

이번 6.13지방선거에 가평을 이끌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 일반 여성을 상대로 동네강패 수준의 공갈협박을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리냈다. 본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며 “너 조심해. 장00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 죽어라고 시켰으니깐” 하며 앞으로 조심하라며 돌아가다 재차 “당신 죽어버리러 올 거야” 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최 모씨는 처음에 어떻게 할까 갈등을 하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밤에 잠을 못 자기를 며칠, 끝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소를 결심했다. 더군다나 당사자는 조 후보가 범법운전으로 두 사람을 친 경력자라는 점에서 두려움은 더했다고 한다.

본사에 연락한 고소인은 ‘어떻게 군을 대표하신다고 나오시고

게다가 전직 교육자라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실명을 밝히는 일도 서슴지 않겠다며 꼭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비롯 가평지역 홈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특히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동석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건의 조기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평신문 지방선거 특별 취재팀
(2002년 5월 25일 가평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사실확인-편집부)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도 동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가평경찰서 민원실에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 모씨가 한나라당 가평군수후보 조00 씨를 고소하며 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은 이 전 한나라당 여성회장으로 조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색을 하

신 죽이라고 시켰으니깐”하며 앞으로 조심하라며 돌아가다 재차 “당신 죽어버리러 올 거야” 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최 모씨는 처음에 어떻게 할까 갈등을 하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밤에 잠을 못 자기를 며칠, 끝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소를 결심했다. 더군다나 당사자는 조 후보가 범법운전으로 두 사람을 친 경력자라는 점에서 두려움은 더했다고 한다.

본사에 연락한 고소인은 ‘어떻게 군을 대표하신다고 나오시고 게다가 전직 교육자라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실명을 밝히는 일도 서슴지 않겠다며 꼭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비롯 가평지역 홈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특히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동석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건의 조기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이유

가평신문은 2002년 6월 1일자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당신 죽어버리러 올 거야!”』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이 여성당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1면에서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가평군수선거 후보자인 한나라당 조영욱 후보캠프에서 한나라당 여성당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제목에 거론된 여성당원도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밝히는 바입니다.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동네강패 수준의 공갈협박을 하여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마치 협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전체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게 하였으나 당사자인 조 후보측에 사실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게재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편향보도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정병국 의원도 동행했다고 게재함으로써 마치 정 의원도 암묵적으로 상대여성을 협박하는데 함께 동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임을 밝힙니다.

본지는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인에게 사실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조영욱 후보 및 정병국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반론 보도문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후보자 조영욱은 고소인 최씨를 지난 5월23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로 표를 쟁구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최씨는 또 자신이 불안해서 며칠동안 밤잠을 못 자다 결국 고소했다고 하지만, 고소는 하루 뒤 인 5월 24일에 접수돼 최씨 발언은 진실성이 없다.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보도인데, 선거관련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군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선거기사 시정요구인 가평군수 후보자 조 영 욱

인건번호 2002 서심 7

시정요구인 조영욱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우리29

피시정요구인 가평신문

본지는 가평군 가평읍 대우리 30-9

한성빌딩 4층에 있다

공과대수기 9월 10일

본문 기사상 요구한 한 가평신문 2002. 6. 5. 자 1면에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후보자 조영욱은 고소인 최씨를 지난 5월23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로 표를 쟁구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후보자 조영욱은 고소인 최씨를 지난 5월23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로 표를 쟁구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보도인데, 선거관련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평신문사 직원 일동
(김호병, 한성집, 이희선, 유효진, 이종환, 전상문)

투 고

한나라당 군수후보 협박 주장은
"선거 조작된 허풍"

군수후보 조영욱, 협박으로 선거
결과 조작, 비합리적 주장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로 표를 쟁구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보도인데, 선거관련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후보자 조영욱은 고소인 최씨를 지난 5월23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해서 스스로 표를 쟁구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보도인데, 선거관련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평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 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김 범 진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은 결코 최모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말해 형사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 위원회가 사건의 본질인 「협박」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정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선행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입장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고소인 최씨의 소장과 그의 제보내용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해명성 반론게재 요구는 비록 수사가 진행중일지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식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가평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가평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면 「한나라당 군수후보 여성당원 협박」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의 경찰 고소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후보자 조영욱은 고소인 최씨를 지난 5월23일 모 슈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 농담했을 뿐,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다.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여럿이 대화하는 곳에서 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

주 문 : 피시정요구인은 가평신문 2002년 6월 8일자 1면에 별지 제2목록의 반론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라.

신청취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가평신문에 별지 제1목록 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가평신문 2002년 6월 1일자 1면에 6·13지방선거 가평군수 후보자인 한나라당 조영욱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타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 한나라당 여성당원 최모씨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박했다고 보도하였다.

색을 하고 상대운동원을 공갈협박하여 스스로 표를 떼려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겠는가.

최씨는 또 자신이 불안해서 며칠동안 밤잠을 못 자다 결국 고소했다고 하지만, 고소는 하루 뒤 인 5월 24일에 접수돼 최씨 발언은 진실성이 없다.

아울러 선거기사는 민감한 보도인데, 선거관련 이해관계자의 양쪽 입장을 공정히 다루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

군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선거기사 시정요구인 가평군수 후보자 조 영 옥

1 시정요구인이 상대후보측 사람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8

시 정 요 구 인 : 유 승 열

피시정요구인 : 대전매일

접 수 일 : 2002. 6. 8.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매일 :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7일자 20면)

내 용 : 지난 3일 오전 8시 금산을 상리 주공아파트앞 노상에서 군수후보인 유모(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슴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명正大하게 선거를 치러야 할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을 접한 금산지역 유권자들은 '마음가짐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군수 후보가 큰형님 같은 윗사람에게 그같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를 어떻게 믿고 군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분개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감정을 앞세운 상대 후보의 비방이나 이성을 잃어버린 후보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결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테두리 속에 군정 발전에 대한 정책 대결로 일관된 선거전을 펼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음 간절하다.

두 번 다시 경거망동한 후보자들의 돌출 행동은 유권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기자수첩

지난 3일 오전 8시 금산을 상리 주공아파트앞 노상에서 군수후보인 유모(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슴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명正大하게 선거를 치러야 할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을 접한 금산지역 유권자들은 '마음가짐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군수 후보가 큰형님 같은 윗사람에게 그같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를 어떻게 믿고 군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분개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후보자의

이 같은 돌출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감정을 앞세운 상대 후보의 비방이나 이성을 잃어버린 후보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결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金 熾 秀
〈남부본부〉

더욱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테두리 속에 군정 발전에 대한 정책 대결로 일관된 선거전을 펼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음 간절하다.

두 번 다시 경거망동한 후보자들의 돌출 행동은 유권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공명과 폭력이 난무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불법·타락선거가 아닌 정정 당당한 6·13 지방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 [錦山]

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금권과 폭력이 난무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불법·타락선거가 아닌 정정 당당한 6·13 지방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

시정요구이유

대전매일은 2002년 6월 7일자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산군수 후보, 유모(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를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으며 군수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7일자 20면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금산군수후보인 유송열씨(민주당)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선거캠프에 있는 배동휘씨를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가슴을 잡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배동휘씨에게 신문에 게재된 것이 사실이라며 출두요구를 했고, 배씨는 유송열 후보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문에 게재된 것처럼 욕설이나 앞가슴을 잡는 행동은 없었다며 출두요구에 대해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두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게재한 것은 불공정한 편향보도였음을 밝힙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7일자 20면에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금산군수 후보 유모(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슴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산군수 후보 유모씨는 배모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배모씨에게 상대 후보를 돕지 말고 선후배간인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뿐 욕설과 행패를 부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욕설과 행패가 있었다는 것은 배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대전매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0일자 20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7일자 20면에 ‘군수후보 자질검증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금산군수 후보 유모(민주당)씨가 무소속 김행기 후보 캠프에 있는 배모씨와 만나 심한 욕설과 함께 앞가슴을 잡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수 후보 자질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산군수 후보 유모씨는 배모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배모씨에게 상대 후보를 돕지 말고 선후배간인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뿐 욕설과 행패를 부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욕설과 행패가 있었다는 것은 배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정요구인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 부천시의회 베스트1위 의원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9
시 정 요 구 인 : 이 강 인

피시정요구인 : 부천자치신문
접 수 일 : 2002. 6. 11.

처 리 결 과 : 주 의

보도내용

부천자치신문 : (1)『선거 막판 상대방 비방 폭로전 “한방에 끝내겠다”』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며칠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후보자들의 일단 되고보자는 심리가 상대 후보를 한방에 날리기 위한 비방·폭로전으로 치달고 있다.

아울러 월드컵과 맞물린 시기적 요인으로 6.13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 일로 되어버릴 위기 속에서 막판 ‘돈’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측과 민주당 진념 후보측은 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선거 개

입의혹과 안기부자금 수수의혹설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부천에서는 원혜영후보 운동원측이 상대후보 홍건표 후보를 겨냥 94년 부천세도사건 당시 공무원으로 있던 동생의 세금갈취에 대한 문제를 집중 공략했으며, 홍 후보측은 부천 부패게이트가 터질 기미가 보인다고 공격자금 440억이 사기당했다고 맞섰다.

또한 본지 선거특별취재팀이 확인결과 부천남부서 수사2계에 도의원으로 입후보한 C씨에 대한 고발·고소가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1동 시의원후보 P씨가 상대후보 L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등을 폭로했다. P씨는 상대후보 L씨가 시의원 활동 당시 시에서 모대학에 용역의뢰한 보고서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고공보에 게재된 ‘부천시민단체가 뽑은 베스트1’이라는 내용이 확인결과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상동 시의원 후보 R씨는 상대후보 L씨가 사유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임차료를 내지 않아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이며, 불법증축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미루다가 결국 과태료를 무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후보를 공략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선거 유세가 당원 또는 금품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 청중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상대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비방·폭로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한방에 보내기 폭로전 극치』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8일자 4면)

중1동 박종국시의원 후보는 상대 이강인 후보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베스트 1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부천시의 회가 수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긴 대학교 해당교수 자료와 동일하고 논문심사위원 또한 동일 인물인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이 높다고 폭로했다.

박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이 후보가 ‘부천시민단체가 뽑은 부천시의회 베스트1’이라고 게재한 것과 관련, 부천경찰서 등 시민단체에 확인결과 이강인후보가 베스트 1위 의원이라고 밝힌 자료가 없다며 이 후보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의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의

선거 막판 상대방 비방 폭로전 “한방에 끝내겠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후보자들의 일단 되고보자는 심리가 상대 후보를 한방에 날리기 위한 비방·폭로전으로 치달고 있다.

아울러 월드컵과 맞물린 시기적 요인으로 6.13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 일로 되어버릴 위기 속에서 막판 ‘돈’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측과 민주당 진념 후보측은 7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선거 개입의혹과 안기부자금 수수의혹설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부천에서는 원혜영후보 운동원측이 상대후보 홍건표 후보를 겨냥 94년 부천세도사건 당시 공무원으로 있던 동생의 세금갈취에 대한 문제를 집중 공략했으며, 홍후보측은 부천 부패게이트가 터질 기미가 보인다고 공격자금 440억이 사기당했다고 맞섰다.

또한 본지 선거특별취재팀이 확인결과 부천남부서 수사2계에 도의원으로 입후보한 C씨에 대한 고

발·고소가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1동 시의원후보 P씨가 상대후보 L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등을 폭로했다. P씨는 상대후보 L씨가 시의원 활동 당시 시에서 모대학에 용역의뢰한 보고서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고공보에 게재된 ‘부천시민단체가 뽑은 베스트1’이라는 내용이 확인결과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상동 시의원 후보 R씨는 상대후보 L씨가 사유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임차료를 내지 않아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이며, 불법증축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미루다가 결국 과태료를 무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후보를 공략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선거 유세가 당원 또는 금품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 청중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상대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비방·폭로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김선관 기자

<2002. 6. 8. 1면>

192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은 부천경실련, 부천 YMCA 등 부천시민단체들에 의해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중' 1위로 선정이 되었고,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은 '연구보고서'를 인용만 했을 뿐, 결코 표절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우수위원 선정부분과 관련해 시정요구인은 부천시 시민단체가 2001년 12월 부천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 베스트위원을 선정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중' 시정요구인을 1위로 선정한 바 있고,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선거공보에 마치 '전체 시의원 중' 1위인양 허위 게재했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다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인식될 수 있으나, 시정요구인이 사실자세를 있는 그대로 공보에 올리지 않은 점도 정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과장이 피시정요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정확한 기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의 석사학위논문 표절부분에 대해

서는 문학적, 사회적 평가가 가미된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시정요구인 입장에서는 논문의 서론과 각주에서 분명 '연구보고서'를 인용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시정요구인 입장에서는 인용의 정도가 지나치고 거의 베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해 표절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피시정요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석사학위 논문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평가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상당부분이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점을 적절히 지적하여 논문의 불완전함을 공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정도를 넘어서, 논문이 전적으로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역시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요구는 당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잇따라 구속되는 것은 시정요구인의 동생인 경찰에 의한 표적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2시심10

시 정 요 구 인 : 이 수 선

피시정요구인 : 한울일보

접 수 일 : 2002. 6. 11.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한울일보 : 『'경찰 선거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1일자 15면)

내 용 : 경찰이 6.13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잇따라 구속하자 마을 청년들이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모후보의 선거운동원

들이 최근 경찰에 3명이나 연달아 구속된 것은 "상대 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전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8일 울주군 범서면 제1지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64)의 지지를 당부하며 주민들에게 70만원의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장 김모씨(40)와 선거운동원인 주부 전모씨(40)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형들에게 3차례에 걸쳐 40만원의 금품을 건네 박모씨(47·유치원 이사장)를 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시장·단체장, 광역의원도 아닌 일개 기초의원 후보

‘경찰 선거개입’ 의혹

“특정후보 운동원 잇따라 구속… 표적수사”

범서 제1지구 주민,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

경찰이 6.13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잇따라 구속하자 마을 청년들이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모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최근 경찰에 3명이나 연달아 구속된 것은 “상대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전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8일 울주군 범서면 제1지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64)의 지지를 당부하며 주민들에게 70만원의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장 김모씨(40)와 선거운동원인 주부 전모씨(40)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

형들에게 3차례에 걸쳐 40만원의 금품을 건넨 박모씨(47·유치원 이사장)를 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시장·단체장, 광역의원도 아닌 일개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경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상대후보로 나선 이모씨의 동생이 경찰이기 때문에 표적수사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속자를 위한 석방운동을 전개, 10일 현재 54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이모씨(45)의 동생 이모 경사(43)는 얼마 전까지 동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 최근 해당 선거구인 서부경찰서 상황실로 전출된 뒤 형의 선거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뿐 이경사의 제보에 의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환기자

라 구속되는 것이 시정요구인의 동생인 경찰에 의한 표적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서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울주군 범서1지구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잇따른 주민구속사태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 “특정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실은 본지 6월 11일자 15면 『‘경찰 선거개입’ 의혹』

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경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상대후보로 나선 이모씨의 동생이 경찰이기 때문에 표적수사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속자를 위한 석방운동을 전개, 10일 현재 54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이모씨(45)의 동생 이모 경사(43)는 얼마 전까지 동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 최근 해당 선거구인 서부경찰서 상황실로 전출된 뒤 형의 선거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이경사의 제보에 의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정요구이유

한울일보 2002. 6. 11일자 『‘경찰 선거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이 잇따

제하의 기사는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구속 사태와는 무관하다.

상대후보측의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에 의한 것이지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또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끝나 마을이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함양신문 : 『범서1지구 기초의원 선거 “경찰개입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2일자 15면)

내용 : 울주군 범서1지구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잇따른 주민구속 사태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 “특정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주장(본보 11일자 15면)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과는

범서1지구 기초의원 선거 “경찰개입 사실과 다르다”

울주군 범서1지구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잇따른 주민구속 사태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 “특정 후보의 인척이 경찰이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주장(본보 11일자 15면)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과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

찰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구속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상대후보측의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에 의한 것이지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끝나 마을이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환기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측은 11일 “동생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구속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상대후보측의 금품살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의 직접 내사에 의한 것이지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끝나 마을이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